

생명의 인식

워트니스 리

생명의 인식

위트니스 리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모든 권권은 본사 소유입니다. 본 출판사의 명기된 허락 없이는 이 책의 어떤 부분도 복사, 녹음, 정보 저장 및 검색 체계를 포함하여 도안, 전자, 기계상의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 재생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무료 배포를 위한 초판 1쇄 / 2004년 3월 25일

ISBN 89-8478-208-4 03230

무료 배포처

레마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437-1

Originally Published by
Living Stream Ministry, Anaheim, California U. S. A.
Korean Copyright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목 차

- 서문 · 5
- 제1장 생명이란 무엇인가 · 9
- 제2장 생명의 체험이란 무엇인가 · 21
- 제3장 생명의 첫 번째 체험—거듭남 · 29
- 제4장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 · 35
- 제5장 생명의 느낌 · 53
- 제6장 생명의 교통 · 63
- 제7장 영의 느낌과 영을 인식함 · 69
- 제8장 영과 혼의 분별 · 83
- 제9장 세 가지 생명과 네 가지 법 · 97
- 제10장 생명의 법 · 119
- 제11장 내적 인식 · 155
- 제12장 생명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 185
- 제13장 생명의 출로 · 195
- 제14장 빛과 생명 · 207
- 주님의 두 종에 관하여 · 231

서문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대적을 모두 처리하는 한 단체의 사람을 얻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이 위대한 갈망과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더욱이 사람이 이 생명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는 방법을 아는 자들은 더 드물다. 성도들은 매우 약하여 어린아이 같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거의 없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이나 지식이나 역량이나 은사를 생명과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 필요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을 통해, 그분의 놀랍고도 비밀한 생명의 길을 모든 믿는 이들이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계시하신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은 이천 년 동안 성도들이 생명에 대하여 얻은 이해와 체험의 정수에, 리 형제님의 삼십 년간의 개인적인 체험을 더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실로 완전하며 훌륭하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는 '생명의 인식'에 관해 논하며, 생명의 특성과 생명이 일하는 여러 원칙을 보여 주는 열네 장으로 이루어진다. *후반부는 '생명의 체험'에 관해 논하며, 영적인 생명의 체험의 여러 단계와 생명을 따르는 길을 설명하는 열아홉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각 주제를 체험하고 훈련한다면 지름길로 전진하여 생명의 성숙 단계에 속히 이를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쉽게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생명 과학을 실재화하고

*이 메시지의 후반부는 <생명의 체험(상·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복음서원에서 출판되었다.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이 자라기를 갈구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이 메시지를 꼭 읽어 보기 바란다.

1956년 11월
대만 대북에서
장유람

생명에 관한 열네 가지 항목

우리는 생명이 무엇이고 생명과 관계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각 방면에서 보기 위해 열네 장을 할애하여 열네 가지 주된 항목을 다룰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생명의 인식에 관한 기초를 놓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출판된 <생명의 체험>(한국복음서원刊)에서 생명의 체험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제 1 장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볼 것이다. 생명을 알려면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매우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의 공효이 필요하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 문제를 분명히 하려면 적어도 여섯 항목을 언급해야 한다.

I.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임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온 우주 가운데 어떤 종류의 생명을 생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해야 한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한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말한다. 이 두 성경 구절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그분의 생명만이 생명이며 그 외의 다른 어떤 생명도 생명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언급할 때는 마치 그 생명을 유일한 생명인 것처럼 다룬다(요 1:4, 10:10, 11:25, 14:6 등).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신성하고 영원하므로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며 다른 생명들은 생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것, 또는 탁월하고 다른 모든 것에서 분별된 것

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탁월하고 분별된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신성하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다(차후에 이 항목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금 컵은 금이다. 그리고 그 컵은 금이므로 금의 본성을 가진다. 사실 금이 그 컵의 본성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의 본성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신성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원하다’는 것은 창조되지 않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스스로 존재하고,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되지 않으셨다. 그분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시 90:2, 원문 참조) 계시는,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출 3:14)이시며, 항상 ‘동일’(시 102:27)하시다. 하나님 자신께서 그러하시므로 하나님 자신인 생명도 또한 그러하다.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한다.

신성한 것과 영원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 자신의 특성이므로, 이 둘은 또한 그분의 생명의 본성이고 그분의 생명의 특성이다. 그러나 영원함은 하나님의 생명의 한 특성에 지나지 않지만, 신성함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의 생명의 본질을 말한다. 다시 금 컵의 예를 보자. 금 컵의 본성은 금과 방눅성(부식을 방지하는 성질—역자 주) 둘 다이다. 그러나 금은 그 컵의 특징일 뿐 아니라 그 컵의 본질 자체이기도 한 반면, 또 다른 본성인 방눅성은 그 컵이 금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것은 그분의 생명이 신성하기 때문이다(신성함은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신성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우주 가운데서 창조된 생명에는 모두 신성한 본성이 없다. 그러므로 창조된 생명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오

직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만이 신성하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그러하므로 자연히 하나님의 생명 자체도 또한 그러하다. 하나님의 생명은 신성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신성하고 또 영원하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으로 간주된다.

생명은 살아 있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으로 간주되는 것은 모두 죽지 않는 것이어야 하므로,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죽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동일하게 남아 있고 공격하고 파괴하려 해도 계속 살아 있다. 죽음과 변화에 굴복하고 모든 재난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는 생명은 영원불멸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으므로 생명으로 간주될 수 없다. 생명은 영원히 살아 있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영원한 것만이 그러할 수 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신성한 것만이 영원하다! 신성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하시다. 신성한 것만이 영원하고, 영원한 것만이 변함없이 영원히 살 수 있으므로, 신성하고 또 영원한 것만이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종류의 생명은, 천사의 생명이든지 사람의 생명이든지, 동물의 생명이든지 식물의 생명이든지 모두 필연적으로 죽고 변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신성하지도 않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그 생명만이 거룩하고, 영원 불멸하며, 변하지 않고, 사망에 매일 수 없으며, 파괴될 수 없다(행 2:24, 히 7:16). 그 생명을 아무리 공격하고 파괴하려 해도 그 생명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한 상태로 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외에 다른 어떤 생명도 그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원의 견지에서 볼 때,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다. 그 생명에는 생명의 이름뿐 아니라 생명의 실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의미를 완전히 충족시킨다. 다른 생명들은 이름뿐인 생명일 뿐 실재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의 불멸성과 불변성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고 생명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하고 영원한 본성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만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생명이다. *(주 1)

II. 생명은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임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을 보아야 한다. 그 후에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수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둘 다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임을 명백히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이 신성하고 영원한 것임을 이미 보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신성하시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생명이시다. 따라서 흘러나오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 자신의 신성하고 영원한 본성에 따르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흘러나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 편에서 생명이실지라도 우리 편에서는 생명이 아니시다. 그분은 흘러나오셔야 한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분의 흘러나오심은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그분께서 육신 되심이다. 하나님은 육신 되심으로 하늘로부터 사람들 가운데로 흘러나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나타내실 수 있었다(요 1:1, 14, 4).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딤후 3:16) 되셨다고 말하고, 또 한 면에서는 “생명이 나타내신 바”(요일 1:2)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육신 가운데 계셨을 때 자신을 생명이라

*(주 1) 하나님의 생명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헬라이어 원본은 이 생명을 언급할 때마다 가장 높은 생명을 가리키는 ‘조에(zo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요 1:4, 요일 1:2, 5:12 등). 이 단어 외에도 신약 성경의 헬라이어 원본에는 1)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비오스(bios)’(눅 8:43, 21:4 등, 원문 참조)와 2) 혼 생명이나 사람의 천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프쉬케(ψυche)’가 사용된다(마 16:25-26, 눅 9:24 등).

고 말씀하셨다(요 14:6). 하나님은 그분의 흘러나오심의 첫 단계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내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흘러나오심의 두 번째 단계를 취하셔야 한다. 그분의 흘러나오심의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이다.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육신의 몸이 죽음을 통하여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그 육신으로부터 흘러나오셔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수가 되실 수 있었다(요 19:34, 4:10, 14). 구약에 나오는 반석은 그분을 예표한다. 그 반석은 세계 맞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나왔다(출 17:6, 고전 10:4). 그분은 생명을 담고 있는 한 알의 밀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육신의 껍질로부터 흘러나와 그분의 많은 열매들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요 12:2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흘러나오심이다.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 이 생명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흘러 들어오심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다. 또 이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갈 때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 된다. 하나님의 이 흘러나오심은 그분의 보좌로부터 시작했다. 먼저 그 생명은 나사렛 예수 안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후에 십자가를 통과하여 사도들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생명은 생수의 강들로 사도들에게서 흘러나왔다(요 7:38). 그 생명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통하여 흘렀고 마침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 생명은 우리로부터 나와서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 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결국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영원까지 흐를 것이다.

에스겔서 47장에 언급된 물은 하나님의 이 흘러나오심을 상징한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은 생명 자체이므로 이 흐름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이 흐름이 영원에까지 이를 때, 그때 영원의 상태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 자체일 것이다.

성경이 맨 처음에 생명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에게 흐르는 강을 보여 준다(창 2:9-14).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생명수나 생명나무같이 우리를 위한,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흘

러나온 것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 자신의 흘러나오심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 준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흘러나오셨고, 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하게 되었다.

Ⅲ.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임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항목은 생명이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며,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이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혹은 신격의 총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격의 모든 총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골 2:9).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즉 신격의 모든 총만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이 생명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이 생명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인 신격의 총만이다. 이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도 이 생명 안에서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신격의 총만이요 하나님 자신의 내용이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역시 신격의 총만이요 하나님 자신의 내용이다.

Ⅳ. 생명은 하나님 자신임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며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은 하나님 자신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

의 내용 역시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생명이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고 또 하나님의 내용이므로, 자연히 생명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이것이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네 번째 항목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7절부터 11절까지에서 그분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다. 또한 그분은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요 1:1, 14, 딤후전 3:16). 그분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은 주로 하나님께서 생명이심을 계시한다. 성경은 주로 ‘생명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지 ‘하나님의 생명’은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말하고 혹은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한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고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이심’이나 ‘생명이신 하나님’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하나님 자신 전체’를 암시하지는 않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다’, 또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같은 말은 완전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그분의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므로 그분의 생명은 바로 그분 자신이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다.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지는 것이다. 생명을 살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생명을 살아 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살아 내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만일 다르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단지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생명을 살아 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살아 내야 하는 그 생명이 또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살아 내야 하는 생명은 사실상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을 살아낼 때 우리는 무엇을 살아 내는가? 생명을 살아 내는 것은 사랑, 겸손, 온유, 인내를 살아 내는 것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 겸손, 온유, 인내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떠한 선함이나 미덕도 생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미덕을 살아 내는 것은 생명을 살아 내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살아 내는 것만이 생명을 살아 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살아 내는 사랑, 겸손, 온유, 인내가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생명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 내는 모든 선함이나 미덕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 내는 모든 미덕들은 하나님의 흘러나오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살아 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에베소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보여 준다. 우리가 받아들인 생명이 바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 역시 충만하다. 그 안에 사랑과 빛과 겸손이 있으며 온유와 인내가 있으며 관용과 동정이 있고 이해가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함과 미덕들이 이 생명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우리로부터 이 모든 미덕들을 살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이 기 때문에, 그러한 미덕들을 살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 내는 것이다. 생명이 살아 나타날 때, 이 생명은 사랑, 겸손, 온유, 인내 같은 것들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 나타난 것이므로 모두 하나님의 표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살아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표현 또는 생명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V. 생명은 그리스도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 그리스도이심을 더 많이 보여 준다. 생명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육신,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생명이시다(요일 5:12). 하나님이셨던 그 생명, 하나님이신 그 생명이 그분 안에 계신다(요 1:4).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이 생명인 것(요 14:6, 11:25)과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 오신 것(요 10:10)을 거듭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분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요일 5:12),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골 3:4)이시라고 말한다.

생명이 하나님이듯이 생명은 또한 그리스도이다. 생명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듯, 생명을 가지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이다. 생명을 살아 내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살아 내는 것이듯, 생명을 살아 내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살아 내는 것이다. 생명이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듯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생명이 아니듯이 그리스도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생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생명은 그리스도이다.

VI. 생명은 성령임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분께서 생명이심을 말씀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과 하나님께서 하나이실 뿐 아니라(7-11절) 성령과 그분께서 또한 하나이심을(16-20절) 말씀하셨다.*

7절부터 11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체

* 16절과 17절에서 주님은 성령을 ‘그’라고 가리키시지만, 18절에서는 대명사 ‘그’를 ‘나’로 바꾸셨다. 주님께서 ‘그’와 ‘나’를 바꾸신 것은 ‘그’가 ‘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그분 자신임을 계시한다.

현이심을, 즉 그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신 것을 보여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생명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의미한다. 16절부터 20절까지에서 그분은 더 나아가 성령께서 그분의 체현이요 그분의 다른 형태이심을 계시하셨다. 또 그분의 몸의 임재가 우리를 떠날 때, 그분 자신이신 이 실재의 영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계시하셨다.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영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바로 그분 자신이시다.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성령이심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생명이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은 생명으로서 성령이시다. 그분께서 생명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것이며 또한 성령께서 생명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주시는 생수를 영생(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은 우리에게, 우리로부터 흘러나는 생수가 우리가 받아들인 성령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심을 밝혀 준다. 우리가 받아들인 성령은 우리가 체험하는 영원한 생명 또는 우리가 생명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서 체험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 불린다(롬 8:2).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것은 성령께 달려 있으므로, 성령은 '생명의 영' 이시다. 성령과 생명은 하나로 연합되어 분리될 수 없다. 성령은 생명에 속하고 생명은 성령께 속한다. 생명은 성령의 내용이고 성령은 생명의 실재이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은 생명의 실재이실 뿐 아니라 생명 자체이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삼일(三一)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심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그 영이시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나심이다. 아들은 그 영으로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므로 그 영은 아들의 들어오심이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다.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나심이므로(딤후 3:16), 그분은 생명의 나타나심이다(요일 1:2). 또한 그 영은 아들의 들어오심이

므로 그분은 생명의 들어오심이다. 생명은 원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들 안에서 사람 가운데 나타났고,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그 영께서 생명의 영이 되신 것이다. 그 영은 생명의 영이시므로 사람은 그 영을 통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의 생각을 그 영에 둘 때 생각이 생명이 된다(롬 8:6). 그 영은 생명의 영이시므로 사람이 자신의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을 만질 때 생명을 접촉하고, 그 영께 순종할 때 생명을 체험한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생명은 삼일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늘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 아니라 흘러나오신 삼일 하나님이다. 삼일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은, 그분 자신인 그분의 내용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온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영으로서 흘러나오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질 때 생명을 만진다. 왜냐하면 생명은 곧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제 2 장 생명의 체험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인 “생명의 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룰 것이다.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보았으므로 생명의 체험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I. 하나님을 체험함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 자신임을 보았다.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다. 생명의 체험은 모두 하나님을 체험하고 접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한 체험은 생명의 체험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개는 하나님께서 빛 비추신 결과가 아니라 사람 스스로 자신을 성찰한 결과이다. 그 회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도록 하지 못하므로 생명의 체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빛 비추심에 기인한 회개는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도록 하므로, 그것은 생명의 체험이다.

사람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 것은 생명의 체험이 아니다. 그것은 인공적인 것이고 사람 자신의 일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과하신 결과가 아니며 사람이 하나님을 통과한 결과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의 체험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이 생명의 체험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과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통과한 결과로 얻은 체험을 생

명의 체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빛 비추심을 받아, 우리 자신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우리 자신의 잘못을 본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본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님의 피로 씻겨지기를 구한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통과한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의 체험이다.

생명의 체험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지고 체험한다.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은 모두 생명의 체험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체험은 생명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빌 2:13-16).

II. 그리스도를 체험함

생명을 체험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체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체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실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수 없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셔야 한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늘과 아무도 가까이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면(딤후 6:16),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없다. 더욱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셔야 한다. 그분의 신성한 생명은 반드시 인성과 연합되어야만 인성을 소유한 우리

와 연결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육신이 되셨으며 인성과 연합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인성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간략히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다음 방면들을 체험할 것이다.

A. 우리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갈 1:16)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갖는 그리스도에 관한 첫 번째 체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을 체험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B.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갈 2:20)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체험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사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성도로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의 주된 부분이다.

C.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갈 4:19)

이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 내적 생명의 요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형상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하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분으로 체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체험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형상을 이루시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숙되는 것이다.

D. 우리 몸에서 확대되시는 그리스도(빌 1:20-21)

이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외적 생활의 표현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다소 깊은 체험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서 확대되어 나타나시는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적 생명의 성숙이다. 바로 이때 우리는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내적 요소들이 되게 한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는 것은 외적 생활의 표현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외적 나타남이 되도록 허락한다. 그러므로 이 체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 생명의 요소들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 생활의 나타남으로 체험한다.

E.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장성한 분량(엡 4:13)

이것은 ‘몸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요소와 조성 성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자라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단체적인 체험이다.

F.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됨(고후 3:18)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되는 체험에서 시작하여 우리 몸이 구속되기까지 계속된다(롬 8:23). 우리가 그분을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되어, 결국 우리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태로 변형될 것이다(빌 3:21). 그때에 우리는 완전히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고(롬 8:29)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요일 3:2). 그때 우리는 그분을 충만하게 체험할 것이다.

우리의 내적 생명에 속한 모든 것과 우리가 살아 내는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므로 그분은 또한 우리의 성화이시다(골 3:4, 고전 1:30). 우리의 내적 생명에 관한 모든 체험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여야 한다. 더욱이 우리의 외적인 거룩한 생활도 우리를 통하여 살아 나타나는 그리스도

여야 한다. 생명에 관한 우리의 모든 체험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분과 함께 승천하는 것과 같은 큰 생명의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생명의 체험까지도 모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죄로부터의 구출이든지 세상을 이기는 것이든지 거룩하고 영적인 생활을 사는 것이든지 사랑과 겸손을 살아 내는 것이든지 모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관용과 인내까지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이 우리로부터 행동하고 살아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빌 3:10), 즉 그분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도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다.

III. 성령을 체험함

요한복음 14장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신 후에(6절), 그분과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고 그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시며 그분께서 생명이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생명이심을 의미한다는 것(7-11절)을 보여 주셨고, 또 성령과 그분께서 하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사시는 것(16-19절)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그분과 하나님께서 모두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함을 보여 주셨다(20-23절). 간략하게 말해서, 주님은 그분이 생명이심을 말씀하신 후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1) 하나님은 생명으로 그분 안에 계신다. (2) 생명이신 그분은 성령이시다. (3)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 그러므로 생명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다. 사실상 성령은 우리가 생명으로 체험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모두이시며, 또는 우리가 생명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체현이시듯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체현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서 체험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며 또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또는 생명의 영이시다(롬 8:2). 이 생명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생명으로 체험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분도 이 생명의 성령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분도 이 생명의 성령이시다(롬 8:9-11). 우리가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음에 넘기도록 이끄시는 분도 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이 생명의 성령이시다(롬 8:13, 26). 생명에 관한 우리의 모든 체험은, 깊든지 얕든지 성령께서 산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에 관한 모든 체험은 이 생명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부활 권능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이 그리스도임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며 또 생명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생명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하며, 또 이 생명을 체험할 때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체험함은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것

이 생명의 체험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 생명의 체험이다. 오직 이렇게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만이 생명의 체험이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생명의 체험으로 간주될 수 없다.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열심이나 종교적인 생활이나 자기 개발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생명의 체험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생명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생명의 체험은 우리 자신의 행한 것이나 열심히 노력하여 개선한 것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 나타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바르신 결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추구할 수 있기 바란다.

제 3 장

생명의 첫 번째 체험—거듭남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보았고, 생명의 체험이 무엇인지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첫 번째 체험, 즉 거듭남을 볼 것이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의 체험의 첫 단계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처음 체험하는 것이다. 이 체험은 매우 근본적이고 지극히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몇 가지 요점을 통해 이것을 볼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요점을 보자.

1.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남이 필요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낮은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타락하고 악하게 되었고(렘 17:9, 롬 7:18), 악에서 선으로 변화될 수 없으므로(렘 13:23)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생명이 (1) 부패하고 사악하며, (2) 개선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고금의 모든 현인들은 사람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 수양의 가르침을 주창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교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미 타락되었기 때문에 개선하여 선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첫째 이유이다.

둘째로 높은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우리의

생명이 타락하지 않고 악하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가? 그렇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아니라 단지 창조된 생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단지 창조된 생명만을 얻고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은 얻지 못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을 얻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사람의 생명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야 한다.

처음에 아담의 생명이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아닌 창조된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인간의 생명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고 그의 생명이 부패하지 않았으며 전혀 악이 없이 완전히 선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거듭나야 한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사람'을 얻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이 선하기만을 원하셨고 사람도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거듭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이 단지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과 똑같은 존재, '하나님—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

이 둘째 이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 거듭남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라니! 우리가 타락하고 악하여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비록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개선되어서 완전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과 같아지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하나님—사람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생명을 사람 안에 넣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여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처음 인간 생명에 더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거듭남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다. 낮은 차원의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타락하고 악하고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 살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한 것이다. 높은 차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이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모두 이것을 볼 수 있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듭남에 대해 말할 때에는 이 높은 차원을 지적하여 우리가 완벽하고 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II.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의하면,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게서 나는 것이다(요 3:3-6). 원래 우리의 영은 죽었지만, 우리가 믿은 그 시각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을 접촉하여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처음 천연적인 출생과는 별도로 우리를 낳으셨다. 간단히 말하면, 거듭나는 것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요(요 1:13) 또 우리의 처음 인간 생명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사용하는가?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이 체험을 거듭남(다시 태어남)이라 부르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더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 또는 처음 사람의 생명에 더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임을 명백히 보아야 한다. 우리의 처음 생명과는 별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넣어 주셨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III.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넣어 주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거듭나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가? 사람이 복음을 듣거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셔서 그가 죄를 범했고 타락한 것을 느끼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다(요 16:8).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회개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은 주 예수께서 그의 구주이신 것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 순간 그는 자동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을 그의 구주로 영접한다. 일단 그가 주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은 그의 영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넣어 주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음 생명 이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 거듭난 것이다.

IV. 거듭남의 결과들

거듭남의 결과 또는 그 성취는 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1) 거듭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거듭남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뜻이므로, 그것은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요 1:12-13), 하나님과 생명 관계를 갖게 한다.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얻은 그 생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며, 이 생명은 또한 자동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분명한 근거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

취할 수 있다.

2) 거듭남은 사람을 새 창조가 되게 한다. 새 창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새 창조이다. 옛 창조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전혀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요소들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창조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창조가 된다. 이것은 거듭남이 우리 안에 성취한 것이다.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참된 요소를 갖게 하여 새 창조가 되게 한다(고후 5:17). 이 새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결정체이며,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다. 이것은 인성의 요소들과 신성의 요소들을 모두 갖고 있고, 사람이자 하나님이며, 사람과 똑같고 하나님과도 똑같다.

3) 거듭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게 한다. 거듭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요소들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한다. 거듭남을 통하여 그 영 하나님은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을 그분과 한 영으로 연결되게 하신다(고전 6:17).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그분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게 하신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제 4 장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거듭남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며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을 주고,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거듭남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거듭남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야 한다.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은 거듭남의 결과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거듭남의 결과들은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에서 나오고, 전자는 후자 때문에 성취된 것이다. 거듭남의 결과들은 거듭남이 우리에게 성취한 것인 반면,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받는 것이다. 거듭남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소들을 얻도록 하여 우리를 새 창조가 되게 할 수 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얻도록 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할 수 있다. 거듭남이 우리에게 성취한 모든 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받은 것에 기인한다. 거듭남을 통해 받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당시 영적인 생명을 여러 방면에서 체험할 수 있고 또 거듭난 이후에는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적어도 일곱 가지를

받는다. 이 일곱 가지는 신성하고 위대하며 또 매우 중요하고 우리와 밀접하다. 이제 이 일곱 가지를 하나씩 간략히 보기로 하자.

I. 하나님의 생명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첫째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으로 주입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보았다.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본성 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방면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생물이든지, 생물에 관한 모든 것은 그 생명에 근거한다. 그 능력과 기능들은 모두 생명에서 나오며 그의 외적 활동과 표현들도 다 그 생명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그러한 종류의 생물인 것은 그것이 그러한 종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그 생명에 근거한다. 이것은 분명한 원칙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최고의 존재이시며, 그분의 모든 어떠한 심은 물론 (심지어 절대적으로) 그분의 생명 안에 있다. 그분의 모든 어떠한 심—진리, 거룩함, 빛, 사랑—은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그분의 모든 표현들—선함, 의로움, 자비, 용서—도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내적으로 그러한 신성한 역량과 기능들을 가지실 뿐 아니라 외적으로는 그러한 신성한 활동과 표현들을 가지신다. 그분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은 그러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은 그분의 생명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감춰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 담겨져 있다. 그러

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들이며(골 2:9-10)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게 된다(벧후 1:3-4).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하므로, 이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그러한 신성한 역량과 기능들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과 동일한 역량과 기능들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므로, 우리 안의 이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이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살아 내게 한다는 뜻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역량과 기능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는 거룩함의 역량과 빛의 기능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동일한 거룩함의 역량과 빛의 기능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부터 그분의 거룩함을 살아 내시고 그분의 빛을 비추실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그분의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고 그분의 빛을 비출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빛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의를 행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사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살아 낼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 예수님을 부활시킨 위대한 능력을 알아야 한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사망을 벗어 버렸고 사망을 정복하셨다. 죽음은 매우 강하다(아 8:6).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 주 예수께서 사망에 들어가셨을 때, 사망은 주님을 붙잡아 두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주님은 사망의 그 붙잡는 세력을 격파하고 일어나셨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강한 생명이 있으므로 주님은 일어나실 수 있으셨고 사망에 매일 수 없으셨다(행 2:24). 그분께서 사망의 강력히 붙잡는 세력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생명 때문이었다. 거듭남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크고 강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이 크고 강한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큰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가 사망을 벗어 버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듯이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 두 가지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하나는 창조의 위대한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부활의 크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부활의 크신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다(롬 4:17).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그분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은 사람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생명인 그분의 부활의 큰 능력은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살아 낼 수 있게 한다. 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 크신 부활 능력이다!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넣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부활 능력을 우리 안으로 넣으셨다는 뜻이다. 오,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의 크신 능력임을 보게 하시기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만큼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실 수 있듯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이 능력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이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가! 이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생명이다! 이 생명에

대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감사하자!

II. 생명의 법

거듭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므로,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법도 준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안에 담겨진 생명의 법도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모든 종류의 생명은 그 고유의 타고난 능력이 있고, 이것이 그 생명 본연의 기능이다. 각종 생명의 본연의 기능은 바로 본연의 법 또는 생명의 법이다. 어떤 생명이 어떤 창조물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그 창조물이 그 본연의 법 또는 그 생명의 법을 소유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그 신성한 능력을 가지며, 이 능력은 그 생명의 신성한 본연의 기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연의 기능은 그 생명 본연의 법 또는 생명의 법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그 안에 담겨진 본연의 법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며 이 법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의 법도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생명의 법 또한 거듭남을 통해 얻게 된다.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충만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담겨진 법은 하나님 자신과 모순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어떠한 심과 모순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본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 같이 이 법은 하나님 자신의 법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법을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또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생명의 법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법들이다. 이 법들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 밖에 있는 돌판에 문자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이다(출 34:1, 28). 생명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심비(心碑)에 새기신 하나님의 법이다. 돌판에 새긴 법들은 바깥에 있는 법이요, 문자로

된 법이요, 죽은 법이며, 능력이 없는 법이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없다(롬 8:3, 히 7:18-19). 우리의 심비에 새긴 법들은 내적인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살아 있는 법이며, 위대한 능력을 가진 법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살아 낼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종류의 생명 안에 담겨 있는 그 본연의 법들로 인하여 모든 창조물은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 즉, 그 본연의 법들은 그 창조물 안에 살아 있는 법이 된다. 암탉의 예를 들어 보자. 암탉의 사는 방식이나 알을 낳는 것은 그 암탉의 생명 안에 포함 된 본연의 법들이다. 암탉은 그 법들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알은 어떻게 낳아야 하는지를 저절로 알게 된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어떤 법을 암탉에게 줄 필요가 없다. 암탉 안에 있는 생명에 담겨진 그 본연의 법들이 암탉 안에 살아 있는 법들이다. 암탉은 그 법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담겨진 그 본연의 법들은 생명의 본연의 여러 능력이다. 우리는 이 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 자신을 살아 낼 수 있는지를 저절로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연의 여러 능력 또는 본연의 법들로 인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합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느끼고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연의 여러 능력 또는 본연의 법들이 우리의 내적인 법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기록된 이 법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연의 여러 능력이고 본연의 법들이므로 성경은 그것들을 ‘법’이라 부른다. 로마서 8장 2절에 언급된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다. 이 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로마서 8장은 이 법을 ‘생명의 영의 법’이라 명명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

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다.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의 생명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법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생명은 강하다. 하나님의 영도 또한 강하다. 하나님의 강한 생명과 하나님의 강한 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의 법 또한 강하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법의 근원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법의 집행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이 법은 특히 강하고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인식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신성한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일단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 안에서 이 강하고 능력 있는 법, 위대한 능력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고, 우리 안에 살아 있는 생명의 이 법에 따라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내기를 원하신다.

Ⅲ. 새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 마음도 준다.

새 마음은 무엇인가? 새 마음은 낡은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한다. 새 마음은 우리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한 데서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다. 에스겔 36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을 말한 후에 그분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말한다. 이 구절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반대했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돌 같은 마

음'이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워지게 하셨다. 그러므로 거듭난 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은 '고기 같은 마음'이 된다. 전자의 돌 같이 굳은 마음은 우리가 가졌던 낡은 마음이고, 후자의 고기 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마음은 사물을 향한 우리의 기호와 애정을 나타내는 기관이다. 마음은 사물들을 향한 우리의 기호, 애정, 즐거움과 욕구에 관해서 우리를 대표한다. 우리의 기호와 애정과 즐거움과 욕구는 모두 우리 마음의 작용들이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죄와 가까웠고 세상을 사랑했으며 정욕에 따라 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관심이나 사랑이 없이 차고 굳어 있었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아무런 갈망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 기호, 새 애정, 새 즐거움, 새 갈망을 가진 새 마음으로 만드신다. 이같이 우리가 일단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하늘에 속한 것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한다. 심지어 그러한 것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반응하고 기뻐하며 그것들을 바란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이것을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전에 우리의 마음은 낡고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부드럽게 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분을 사랑하려고 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마음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것은 새로운 기능을 가진다. 이 새 기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기

호와 사랑, 새로운 갈망과 바람을 갖도록 한다. 이 새로운 기호, 사랑, 갈망, 바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새 마음의 기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

IV. 새 영

에스겔 36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새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새 영도 갖게 된다.

새 영은 무엇인가? 새 영은 우리의 죽고 낡은 영이 새롭게 되고 소생된 것을 의미한다. 새 마음이 낡은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이듯이 새 영은 낡은 영이 새롭게 된 것이다. 낡은 마음은 새롭게 될 때 부드러워지고 낡은 영은 새롭게 될 때 소생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낡은 마음의 문제는 굳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의 낡은 영의 문제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굳고 낡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시어 새 마음이 되게 하시듯이, 우리의 죽고 낡은 영을 소생시킴으로 새롭게 하시어 새 영이 되게 하신다.

사람의 창조된 영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었다. 사람은 그의 영을 통하여 그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다. 후에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은 죄로 오염되고 손상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고 죽은 영이 되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낡게 되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을 오염시킨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므로, 그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요소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 안에 주입하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골 2:13 참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죽고 낡은 영이 새롭게 되고 살아 있는 새 영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원래 옛 창조였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없었다. 후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없을 뿐 아니라 죄로 오염되기까지 하여 낡게 되었다. 어떤 것이 옛 창조의 일부에 속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

다. 하나는 하나님의 요소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탄으로 오염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이 낡은 영이 된 것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낡은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으로 만드시기 위해 두 방향으로 일하신다. 한 면으로 그분은 주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여 우리 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버리신다. 그 결과 우리 영은 깨끗해진다. 또 다른 한 면으로 그분은 그분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영 안으로 주입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그분의 요소를 갖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낡은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으로 만드신다. 그분이 우리의 낡은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으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신다는 의미이다.

거듭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왜 또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단지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은 또한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셔야 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단지 그분을 바라고 사랑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분을 접촉하게 하실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셔야 했다.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기호와 사랑을 나타내는 기관임을 이미 언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기능은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한다(시 42:1-2). 마음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만질 수는 없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능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능만을 가질 뿐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하나님을 만지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영이다. 마음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할 뿐이지만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여기 내게 멋진 펜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내 마음은 그것을 무척 좋아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접촉할 수도, 그것을

취하여 소유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능력은 내 손에 속한다. 손은 영을 예시한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갈망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영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영도 두신다.

우리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할 수 있으며, 새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질 수 있다. 우리의 새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즐거움과 기호, 새로운 느낌과 관심을 갖도록 한다. 우리의 새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새롭게 접촉하고 통찰할 수 있는 새 영적 능력과 기능을 갖도록 한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연약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 느낌이 있고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신속히 접촉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은 그분을 접촉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즐거워하면 우리의 영은 그것들을 이해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에 더하여 새 영을 주신 의도이다.

V. 성령

에스겔서 36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셨다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의 영을 두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얻은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도 포함된다.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한편으로 그분은 그분의 영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 영 안으로 주입하도록 하여 우리의 죽은 영을 소생하게 하셨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 영 안으로 두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소생되고 새로워진 우리 영 안에 그분의 영을 거하게 하신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를 지닌 소생되고 새로워진 영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새로워진 영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도 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일까? 우리 영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기능은 무엇일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주요 기능에는 적어도 일곱 방면이 있다.

A. 내주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어 내주하는 영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롬 8:9-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주신 특별한 축복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외부로부터 사람 위에 임하게 하셨을 뿐, 사람 안에 거하게 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영을 내주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였다(요 14:16-17).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영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모두를 우리 안에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골 2:9-10).

* 로마서 8장 9절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말하고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 증거하시나니”라고 말한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B. 보혜사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보혜사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달라고 간구하셨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일서 2장 1절의 ‘대언자’와 동일하며, ‘위안자’ 또는 ‘옆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원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위안자로 주셨다. 그분의 아들이 그분께로 돌아갔을 때, 그분은 다른 보혜사, 다른 위안자로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그분의 아들의 체현이신 그분의 영을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체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시듯이, 하나님의 영께서도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신다.

C. 진리의 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다. 원문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실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 또는 ‘실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한 심과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한 심을 우리 안에 실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한 심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한 심과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계시되고 분배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지고 체험할 수 있다.

D. 생명의 영으로

로마서 8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 부른다(9절, 2절).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생명

의 영이시기도 함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비록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요 1:4),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알고 체험한다. 생명과 연관된 모든 문제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생명의 모든 체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험이 된다.

E. 인(印)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은, 거듭날 때 우리가 영접한 성령이 우리 안에 인(印)으로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은 그분의 영을 인으로서 우리 위에 찍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장이 어떤 물건 위에 찍힐 때 그것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를 남길 뿐 아니라 그 물건 위에 도장과 똑같은 모양을 남긴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인으로서 계신 하나님의 영의 기능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체현이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 같이, 그리스도 같이 되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인치신다.

F. 보증으로

에베소서 1장 14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 보증은 서약이나 담보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인치시는 도장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우리가 누릴 우리의 분깃이자 유산임을 서약하는 보증이기도 하시다.

G. 기름 부음으로

요한일서 2장 27절은 우리 안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 이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낸다(눅 4:18).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기름 부음이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 안의 이 기름 부음은 자주 우리에게 기름

바른다.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움직이심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거나 우리에게 기름 바른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바르심으로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의 내적 성분이 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갈망과 모든 것에서 그분의 뜻을 알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이 일곱 가지 기능은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가! 이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기능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놀라운 영이신가를 알게 한다.

VI. 그리스도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체현이심을 계시한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또한 소유한 것이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갈 1:16).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후 13:5).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분의 내주하심의 주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본성을 가짐으로써 그분과 완전히 같아지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요 1:4, 요일 5:11-12). 다시 말해서,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기를 원하신다(요 14:6, 골 3:4). 비록 하

* 이 요점은 <생명의 체험> 상권 제7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께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체험하고 살아 내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갈 2:20), 우리로부터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4:10-11).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자라고 그분과 같아지기를 원하신다(고후 3:18).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자라고 그분과 같아질 때,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골 1:15)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임을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두실 때,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며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골 2:9).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신다(엡 3:17-19).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도록 하실 뿐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들어가도록 하신다(롬 8:17, 히 2:10).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골 3:4, 1:27).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VII.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얻게 되므로 따라서 하나님도 얻게 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실재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는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성령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신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요일 3:24, 4:13). 주 예수님은 또한 그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다(요 14:23).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든 그리스도이시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을 소유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소유한다. 영, 그리스도, 하나님 셋 모두가 하나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언급할 때의 그 중점은 우리 안의 그분의 기름 부음에 있고(요일 2:27),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의 중점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사시는 것에 있으며(갈 2:20),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의 중점은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운행하심에 있다(빌 2:13, 히 13:21, 고전 12:6, 원문 참조). 성경은 이 세 문제를 매우 분명하게 구별하여 제시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관하여 성경은 '기름 부음'을 말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사심'을 말하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관하여는 '운행하심'을 말한다.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는다는 말을 쓰거나, 성령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을 쓰지 않으며, 성령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는 말을 결코 쓰지 않는다. 성경은 단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

신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세 가지 말하는 방식은 서로 바꿀 수 없다.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관유(灌油)로서 계시는 성령과 관계되고, '사심'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되며, '운행하심'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관유로서 계시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름을 바르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생명으로서 계시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은 일하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바르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또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사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그분의 뜻을 우리 안으로 역사해 넣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얻은 것이 너무도 위대하고, 높고, 부유하며,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이 생명의 법을 얻는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얻는다. 더 나아가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얻는다.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족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하게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승리하고 뛰어나게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도록 하는 데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한다.

제5장 생명의 느낌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또한 우리는 생명의 첫 번째 체험인 거듭남과 거듭남을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지도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느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우리에게 생명의 느낌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추구할 때마다 이 생명의 느낌을 주의하고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생명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생명의 느낌과 생명의 체험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인식이란 주제를 연구하려면 생명의 느낌의 문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I. 성경적인 근거

성경이 생명의 느낌을 명백하게 언급하지는 않을지라도 사실상 생명의 느낌에 관해 말하고 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생명의 느낌에 관하여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된 평안은 분명히 의식(意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평안은 외적 환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히 느낌의 문제이다. 여기에 언급된 평안이 느낌의 문제라면, 여기에 언급된 사망과 생명 또한 느낌의 문제이다.

사망의 느낌은 우리가 사망의 요소를 느끼도록 한다. 사망의 요소들

은 약함, 공허, 우울, 어두움, 고통이다. 사망은 적어도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내포하며, 이 요소들의 총체는 대부분 사망과 동일하다. 사망은 사람들을 약하게 하며, 사람들은 극도로 약해질 때 죽는다. 사망은 모든 것을 끝내므로 사람을 공허하게 한다. 사망은 사람을 우울하고 낙심하게 한다. 가장 우울하고 조용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다. 사망은 또한 사람을 어둡게 한다.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들어간 자들이다. 동시에 사망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최고의 고통을 겪는 사람은 사망에 떨어진 자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 사망을 느끼는 것이다.

사망의 이러한 느낌들은 우리가 육신을 관심하는 데서 오는 결과이다. 육신을 관심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이러한 사망의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육신을 조금 관심했다면 저녁에 만찬 집회에 올 때 안에 약함을 느껴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여러분은 공허함과 우울, 심지어 어둡고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느낌들은 사망의 느낌들이다. 때로 여러분은 사망의 느낌들 중 어느 하나를 더 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그 모든 느낌들을 동시에 느끼기도 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사망을 느끼는 것은 육신을 관심하는 데서 기인한다.

생명의 느낌은 사망의 느낌과는 정반대이다. 사망의 느낌은 우리가 약함과 공허함을 느끼도록 하는 반면,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강함과 만족을 느끼도록 한다. 사망의 느낌은 우리가 우울하고 어둡고 고통 중에 있다고 느끼도록 하지만,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생기 있고 밝고 평안하다고 느끼도록 한다.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강하고 만족스럽고 밝고 생기 있고 편안하다고 느끼도록 하므로, 그것은 또한 우리가 평안의 느낌, 즉 좋고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 언급된 것들이 모두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육신은 영과 대조를 이루고, 사망은 생명과 평안과 대조를 이룬다. 사망의 반대에는 생명뿐만 아니라 평안이 있다. 그러므로 사망은 약함과 공허함과 우울과 어두움을 내포할 뿐 아니라 고통도 포함한다. 약함과 공허함과 우울과 어두움은 생명과 대조를 이루는 반면, 고통은 평안과 대조를 이룬다.

사망의 느낌은 우리가 육신을 주의하는 데서 오지만 생명과 평안의 느낌은 우리가 영을 주의하는 데서 온다.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영을 따르고, 영을 주의할 때, 우리는 안에 강함과 만족을 느끼며 동시에 생기 있고 고통이 없고 편안하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 느낌을 마음에 두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안에 강함과 만족을 느끼며 동시에 생기 있고 밝고 고통이 없으며 편안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영을 주의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가질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이 생명의 느낌을 언급하는 이유는 먼저 세 가지—그 영, 생명, 생명의 법—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 영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셨다. 생명은 그 영의 내용으로서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다. 법은 생명의 본연의 능력과 기능이다. 이 셋은 함께 연합되어 생명의 영의 법이 되었다.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서 생명에 관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준다. 우리가 영을 주의하고 영에 따라 행동하고 살면, 생명의 영의 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준다. 생명을 느끼는 것은 강하고, 만족하고, 생기 넘치고, 밝고, 신선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평안을 느끼는 것은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좋으며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육신을 관심하고 육신에 따라 행동하고 산다면, 이 법은 우리에게 사망의 느낌, 곧 우리가 약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고통 중에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이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식(意識)의 문제이며, 이 의식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에 속하므로 그것이 주는 의식 또한 생명에 속한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 언급된 의식은 이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그 의식 또한 생명의 느낌에 속한다.

성경에서 생명의 느낌의 문제에 관해 두 번째로 언급한 곳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4장 19절이다.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이유가 그들이 모든 느낌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 사실 사람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려면 그 이전에 그 안의 모든 느낌을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그에게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그의 느낌들을 무시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 느낌들을 무시하지 않고 내적인 느낌들에 제한받으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 그의 느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느낌들을 무시해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흠치고 때리며 강탈하거나 그 외의 다른 나쁘고 악한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 느낌들을 무시해야 한다. 사람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수록,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내적인 의식을 더 많이 무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쁘고 사악한 사람에게는 느낌이 없는 반면 선하고 친절한 사람에게는 느낌이 풍부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중 누구의 내적 느낌이 더 강한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비교할 때 우리의 의식이 더 강한가, 그들의 의식이 더 강한가?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고 대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들이 가진 느낌들에 더하여 그들이 가지지 않은 느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려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철저히 우리의 느낌들을 무시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처럼 모든 느낌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 느낌에 유의할 것을 간절히 권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생명의 내적 느낌을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모든 느낌들을 버리는 불신자들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한 뒤,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새 사람은 영 안에 있는 생명에 속한다. 우리가 이 새사람 안에서 살려면 그 영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은 불신자들처럼 모든 느낌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권할 뿐 아니라 이 새사람 안에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영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을 유의해야 하며, 이 생명의 느낌에 따라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사도들이 쓴 거의 모든 서신들에는 은혜와 평안을 언급한 축복과 인사의 말이 있다. 은혜는 우리가 얻은 하나님이며,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을 때 갖는 느낌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누림

으로서 얻은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된 결과로 평안이 있게 된다. 즉 은혜는 우리가 내적으로 평안을 느끼도록 한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평안은 그가 은혜를 누릴 때 가지는 느낌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평안이 없거나 전혀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이 부족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얻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체험한다면, 우리 안에는 넉넉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평안은 환경 안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내적으로 평안한 상황이다. 우리는 사도들의 인사말에 언급된 평안이 이러한 종류의 내적 평안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적 평안은 의식의 문제이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랐을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내적인 평안의 느낌, 또는 내적인 평안이 있기를 바랐음을 의미한다. 내적인 평안의 느낌은 생명의 느낌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평안의 느낌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했을 때, 사도들은 그들이 내적인 생명의 느낌에 유의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II. 생명의 느낌의 근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명의 느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산출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얻은 것들—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법,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로부터 산출된다.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법,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내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신다. 우리는 이 느낌을 생명의 느낌이라 부르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느낌을 가진다. 더욱이 생명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느낌은 더 예민하다.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강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만 느낌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강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생명의 법은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 또한 느낌들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은 우리가 느낌을 갖도록 하는데, 특히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느낌을 갖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이 정상일 때는 그다지 특별한 느낌이 없다. 그러나 몸이 병들었을 때에는 강한 느낌이 있으며 이러한 강한 느낌은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법칙을 거스를 때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법을 순종할 때 그것은 많은 느낌을 주지 않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매우 뚜렷한 느낌을 준다.

성령은 관유로서 우리 안에서 기쁨 바르시며 움직이신다. 그리스도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세 분 모두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이신다. 그분들은 모두 조용하거나 잠잠하지 않고 우리에게 느낌들을 주기 위해 움직이신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든 생명의 법이든 성령이든 그리스도이든 하나님이든, 모두 우리에게 느낌들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느낌들을 주는 데 있어서 함께 섞여 있다. 그러므로 다섯 모두로부터 나온 느낌들은 다섯 종류의 느낌이 아니라 한 느낌,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명의 느낌이다.

왜 이들 다섯—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법,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느낌들이 다만 한 종류의 느낌인가? 왜 이 느낌이 생명의 느낌인가? 그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삼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며 생명의 법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해서 이들 다섯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느낌들은 한 종류에 속한 것이다. 이 느낌이 생명의 느낌인 것은 그것이 생명의 삼일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며, 이 생명은 생명의 법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들은 생명으로부터 나오고 생명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 느낌들은 생명의 느낌이다. 이 느낌은 하나이지만 다섯 방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기능을 또한 가진다. 동시에 이 느낌은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안에 기름 바르시는 성령의 요소를 포함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요소를 포함하며,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면들로 인해 이 느낌은 부요하고 강하고 예민하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느낌보다 훨씬 더 부요하고, 더 강하고, 더 민감하다. 불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느낌들은 단지 사람 안에 창조된 선의 느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된 선의 느낌 외에 생명의 느낌, 곧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얻은 것들이 우리 안으로 더해준 신성한 느낌이 있다.

III. 생명의 느낌의 기능

그러면 이 생명의 느낌의 기능 또는 용도는 무엇인가? 생명의 느낌의 기능 또는 용도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 영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영 안에서 살고 있는가? 생명의 느낌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생명의 느낌을 가진 것도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생명의 느낌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증명한다. 우리는 생명의 느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를 따르며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받는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을 적용해 보자. 사망의 느낌은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일단 우리가 사망의 느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망의 느낌은 약함, 공허함, 우울함, 어두움, 고통을 내포한다. 일단 우리가 그러한 느낌들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이 우리가 이미 올바르지 않다는 것과 영 안에 살고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생명의 느낌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그것은 우

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준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강하고 만족스럽고 생기 있고 밝고 편안하다고 느끼도록 한다. 우리가 내적으로 강하고 만족스럽고 생기 있고 밝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영 안에 살고 있다는 내적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생명의 느낌에는 위대한 기능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며, 또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계속 증명해 준다. 생명 안에서 우리를 계속 이끄는 것도 이 느낌이며, 생명 안에서 우리의 실제 상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명해 주고 보여 주는 것도 이 느낌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느낌은 내적인 인도와 증거이다. 생명의 느낌이 우리가 내적인 생명과 평안을 느끼도록 할 때면 언제나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생명의 느낌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 메마른 것을 느끼도록 할 때면 언제나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 없고 또 생명과 평안이 없다는 느낌도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여러분은 강하고 만족스럽고 생기 있고 밝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며, 또 강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거나 생기가 없거나 밝지 않거나 편안하지 않다는 느낌도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내적으로 강하고 만족스럽고 생기 있고 밝고 고통 없고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비록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느낌 밖으로 이끌어내어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 동굴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가진다. 비록 외적인 느낌들은 사라질지라도, 가장 깊은 부분에는 여전히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 있다.

생명과 평안은 생명의 느낌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느낌으로서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상태가 정상적임을 증명해 준다. 약함과 불안은 생명의 느낌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느낌으로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약함

과 불안의 느낌들은 둘 다 사망의 느낌이다. 사망의 느낌은 확실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떠한 것을 만지는 데서 온다. 사망의 느낌은 모두 우리가 크든 작든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밖의 것들을 만졌음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지고 있는지는 모두 우리 안의 생명과 평안, 또는 약함과 불안에 달려 있다. 만일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만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만일 우리가 내적으로 약함과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좇아 생각하고 하나님 밖의 것들을 만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약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함을 느끼는 때일지라도 여전히 강함을 느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알게 될 때 약함을 느끼지만, 그리스도를 만지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강함을 또한 느낀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약함만 느끼고 강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약함을 느끼는 그때 곧 강하다고 말했다(고후 12:10).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약함을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약함만 생각하여 강해질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우리가 거의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약함은 사망의 느낌이고 사망의 느낌은 항상 육신에 따라 생각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약할 수 있지만 강하다고 느끼며,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평안의 느낌을 갖는다. 그는 외부로부터 환난을 당함으로 고통을 느끼지만, 내적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짐으로 평안의 느낌을 가진다. 만일 우리가 외부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 내적으로 전혀 평안이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신다(요 16:33). 주 안에 사는 사람, 영 안에 사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평안을 누린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만일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동안 내적인 평안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허물며 아무런 환난이 없을 때에도 내적 평안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더 분명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생명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육신을 좇아 생각하는지 영을 좇아 생각하는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영 안에서 살고 있는지는 생명의 느낌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알려 준다. 생명의 느낌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속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증명하는 인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전진하려면 생명의 느낌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인 증거와 인도하심을 주목해야 한다.

제 6 장 생명의 교통

이 책에서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면서 두 가지를 기대한다. 첫 번째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에게 여기에서 언급한 생명의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도록 돕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형제자매들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여 이후로는 모두가 다른 장소에 가서 그것을 영 안에서 말해 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 책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특별한 연구 조사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말해 낼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만질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들을 교리로뿐 아니라 체험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생명의 모든 용어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할 뿐 아니라 모든 용어의 정의와 용법을 밝히기 원한다.

오늘 내 안에는, 모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에 속한 것들이라는 매우 무거운 부담과 깊은 느낌이 있다. 우리의 일과 활동은 모두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일과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의 일과 활동은 후에 더 증가하고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과 봉사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많은 무게를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일이 풍성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생명 안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져야 하고 다른 사람도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지도록 이끌어

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갈망하시는 일과 어울릴 수 있다.

우리가 한 일의 모든 결과들은 생명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된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들을 쫓아내지만 그들이 그분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22-23절, 원문 참조). 더 나아가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는 어떤 이가 투기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다(15절). 그러한 일들은 의심할 것 없이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실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하며 주님의 생명이 그분의 일을 위해 우리를 이끄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굉장한 일이나 어떤 업적을 열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생명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하며 우리가 알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그들 역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갈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세워서도 안 되며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일은 단지 주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분배하고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 주시길 원한다.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준에 이를 수 있고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앞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느낌을 보았다. 생명의 교통은 생명의 느낌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교통을 보기로 한다.

I. 생명의 교통의 근원

생명의 교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근원은 무엇이며, 무엇에서 나오는가?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사도들)가 … 너희(믿는 이들)에게 전하노니 … 너희로 우리와 교통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원문 참조)고 말한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교통’이 있게 하기 위해

사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교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므로 그것은 생명의 교통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교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며, 생명의 교통은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생명의 교통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자마자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생명의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의 교통의 근원이다.

II. 생명의 교통의 매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교통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온다. 그러므로 성령은 또한 이 교통을 ‘성령의 교통’이라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교통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으로 인해 시작된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 성령의 무슨 교통이나”라고 말한 이유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교통을 갖도록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요구하시며 강권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교통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교통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교통의 매체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교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이 생명의 교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을 생각함으로 행할 때만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교통을 누릴 수 있다.

III. 생명의 교통의 의미

생명의 교통을 정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해져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후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인가, 전체인가? 우리의 최종 판단은, 그것은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며 흐름이라는 것이다.

밝은 전구 안에 있는 전기를 예로 들어 보자. 그 전기는 발전소의 전기의 일부인가 아니면 전체인가? 그 대답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내의 동일한 전기가 이 밝은 전구들 안에도 역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전류이다. 일단 전류가 멈추면 이 밝은 전구들은 빛내기를 그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내 손에 있는 피는 국부적인 피인가, 몸 전체의 피인가? 만일 그것이 국부적인 피라면 아무런 교통이 없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몸 전체의 피라면 역시 아무런 교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환하고 있는 피, 곧 흐르고 있는 피다. 그것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으며 그침 없이 흐르고 있는 몸 전체의 피다. 그것은 전체인 동시에 부분이며 부분인 동시에 전체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성도들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흐르는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통과하고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성도들을 통과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교통하도록 한다.

그것은 빛을 내고 있는 전기의 밝은 전구와 똑같다. 그 안의 전기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 전구는 발전소와 빛을 내는 다른 많은 밝은 전구들과의 교통 안에 놓이는 것이다. 이 교통은 전구 속에 있는 전기의 흐름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교통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에 달려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흐름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교통을 가진다. 이 생명의 교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수많은 성도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교통의 의미는 생명의 '흐름'이다. 이 생명의 흐름은 생명과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생

명 자체의 흐름의 교통이다. 이 생명의 흐름의 교통은 우리가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복종함으로 살고 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생명의 흐름의 교통을 따르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면 언제나 흐름은 멈춘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도 끊어지고 우리와 성도들 사이의 교통도 사라진다.

IV. 생명의 교통의 기능

생명의 교통의 기능 또는 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 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이 생명의 교통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된다. 생명의 흐름을 더 많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풍성을 공급받는다. 생명의 교통의 그러한 공급은 몸의 공급인 혈액의 순환과 같고 빛의 공급인 전기의 흐름과 같다.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알려 준다. 또한 생명의 교통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것들을 공급한다. 당신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항상 그것은 당신의 생명의 교통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명의 교통 안에 산다면 우리의 생명 공급은 계속해서 그침 없이 올 것이다.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느낌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생명의 교통이 중단되자마자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잃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생명의 교통이 중단되지 않았을 때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생명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교통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이 있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생명의 느낌이 지시하는 바에 달려 있다. 우리가 생명의 교통 안에 더 많이 살수록, 우리의 생명의 느낌은 더 민감해지고 우리는 생명을 더 많이 공급받는다.

생명의 교통에 관해서는 이만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 생명의 교통은 우리를 공급하는 반면 생명의 느낌은 늘 우리를 점검하고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는 생명의

느낌으로 결정되며,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공급을 생명의 교통을 통해 받는다.

제 7 장

영의 느낌과 영을 인식함

이제 우리는 일곱 번째 중점, ‘영의 느낌과 영을 인식함’을 볼 것이다. 생명의 모든 체험은 영 안에 있으므로 영을 인식하는 것은 생명의 체험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영이라 불리는 이것은 실제로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영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영을 접촉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영이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기는 다소 어렵다. 몸에 대해 말하기는 매우 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혼에 대해 말하기도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혼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생각하는 것, 고려하는 것, 결심하는 것, 결정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내는 것, 슬퍼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등과 같은 기능과 작용들을 통해 혼을 느끼고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에 대해 말할 때만은 참으로 어렵다. 영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영을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로마서 8장은 영에 대해 말한다. 영 안에서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 이만큼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알려면 반드시 로마서 8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I. 네 항목

영을 말할 때 사도는 네 항목을 사용한다.

A. 생명

2절에서 사도는 '생명의 영'을 말한다. 이것은 그가 말하는 영이 생명의 영, 곧 생명에 관계되고 생명을 담고 있고 생명에 속한 영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그는, "영에 둔 생각은 생명이라"(원문 참조)고 말한다. 이것은 생명이 영의 열매이며, 영이 생명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진다. 생명과 영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통해 영을 알 수 있다. 영을 알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생명을 이해하기는 비교적 쉽다.

B. 법

2절에서 사도는 '생명의 영'을 말할 뿐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것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이 생명에 속할 뿐 아니라 생명의 법을 소유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영에 대해 말할 때, 생명에 대해 말하고 법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는 이 셋—생명과 영과 법—을 하나로 연결한다. 생명과 그 영은 분리될 수 없으며, 법과 그 영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질 수 없다. 생명이 그 영의 내용과 유출인 반면, 법은 그 영의 기능과 작용이다. 우리는 생명을 접촉함으로써 말미암아 영을 만지며, 법을 지각함으로써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영을 느낀다. 영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법은 찾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을 발견할 수 있다.

C. 평안

6절에서 사도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생각을 영에 둔 결과가 생명일 뿐 아니라 평안이기도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명이 그 영의 열매이고 평안도 그 영의 열매이다. 영을 만질 때 우리는 생명을 접촉하고 평안도 접촉한다. 우리가 생명에 의해서 영을 이해할 수 있듯이 평안에 의해서도 영을 깨달을 수 있다.

D. 사망

6절에서 사도는 영에 둔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기 전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는 부정적인 것을 대

조로 사용하여 긍정적인 것을 보여 준다. 육신과 영이 반대이고 사망과 생명이 반대이다. 생명은 영의 열매이고 영으로부터 나온다. 사망은 육신의 열매이고 육신으로부터 나온다. 생명은 우리에게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알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의해 긍정적인 면에서 영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은 우리에게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알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의해 부정적인 면에서 영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이 우리를 긍정적인 면에서 영을 인식하게 하듯이 사망은 우리를 부정적인 면에서 영을 이해하게 한다. 영을 인식하려면 생명을 알아야 하고 생명의 반대인 사망도 이해해야 한다.

사도가 네 항목—생명과 법과 평안과 사망—에 관하여 말한 것에 따르면, 그것들은 다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네 항목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것들과 매우 명백하게 연관된 영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항목들은 모두 어떤 의식을 내포하거나 수반한다.

II. 의식

가장 낮은 식물의 생명 외에는 모든 생명이 분명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 높은 수준의 생명일수록 그 의식은 더 풍부하다. 여기서 말한 '생명의 영'에서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인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 의식은 가장 풍부하다. 우리 안의 이 생명은 우리를 영적인 의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우리가 영과 영에 속한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의식이 없는 물체의 법은 의식의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의식 있는 생명의 법은 의식의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형제를 때린다면 그는 즉시 아픔을 느낀다. 만일 내가 내 손을 그의 두 눈 쪽으로 갑자기 뻗는다면 그는 즉시 눈을 깜빡거릴 것이다. 그의 몸에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생명의 법이 있으므로 그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를 치는 순간 그는 아픔을 느낀다. 이것은 하나의 법이다. 내가 그를 향해 손을 뻗을 때 그의 두 눈은 깜빡거린다. 이것 또한 하나의 법이다. 비록 이것이 다 법칙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그것이 의식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육체의 생명의 법이 일종의 인식의 지시에 속한 것임을 증명해 준다. '생명의 영'의 생명은 의식이 풍부한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생명의 영의 법 또한 자연히 의식이 풍부하다.

여기서 말한 평안은 물론 우리 안의 내적인 평안이다. 내적인 평안은 전적으로 의식의 문제이다. 우리가 안에 평안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못느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평안도 의식에 속한 것이다.

더욱이 여기서 말한 사망까지도 의식의 문제이다. 사망은 사람이 의식을 상실하도록 한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는 의식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의식이 없을 때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사망의 작용이 있다는 증거이다. 비록 그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닐지 모르나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에서 사망은 우리가 생명의 느낌을 상실하도록 할 뿐 아니라 사망의 느낌을 갖도록 한다. 우리가 생각을 육신에 둘 때에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가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상실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불안, 불편, 의기소침함, 압박 받음, 어두움, 공허함 등의 느낌을 갖도록 한다. 이런 종류의 불안, 불편, 의기소침함, 압박 받음, 어두움, 공허함 등이 사망의 느낌이며 우리가 사망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과 법과 평안과 사망, 이 네 가지 모두는 그들과 연관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의식은 우리가 영의 느낌을 만지도록 하고 그로 인해 영을 알도록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이 네 항목들의 의식을 점검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

Ⅲ. 생명의 느낌

여기서 말한 생명은 '생명의 영'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그 영에 속하고, 그 영으로부터 오며, 그 영과 더불어 있다. 이 생명과 함께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기도 하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단지 사람들 위에 임하여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사람이 내부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단지 능력의 영이셨을 뿐 아직 생명의 영은 아니셨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영께서 생명의 영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사람은 내부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이실 뿐 아니라 또한 생명의 영이시다. 그분은 사람 위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하시고 또 사람을 감동시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하실 뿐 아니라,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시고 또 생명의 영으로 사람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신다. 이때 그분은 생명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므로,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분은 생명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분께서 들어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며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 그리하여 생명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신다. 이제 하나님(그분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시다)의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 셋 모두는 하나로 연합되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본래 맹물이 담겨 있는 유리컵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가 그 안에 설탕이 첨가된 과즙을 섞으면 그것은 세 가지, 즉 물과 설탕과 과즙이 든 컵이 된다. 물은 우리의 영을 의미하고 과즙은 하나님의 영을 대표하며 설탕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 이 셋을 하나 안의 셋인 생명의 영으로 만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영'의 생명이 있는 영

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다 내포한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연합이다. 성경 역지들은 로마서 8장에 언급된 영을 성령으로 이해해 왔다. 그래서 그들은 영을 대문자 'S' (영어에서 'Spirit'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킴, 역자 주)로 기록해 왔다. 많은 성경 독자들도 여기에 언급된 그 영이 단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영적 사실과 영적 체험은 여기에 언급된 영이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임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이 장의 16절에서 사도는 이러한 영적 사실(이것은 또한 영적인 체험이기도 하다)을 말한다. 그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 증거하시나니”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그가 앞에서 언급한 영이 ‘성령과 우리의 영’의 연합인 한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이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고 우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는다. 그것은 마치 과즙과 섞인 유리 컵 속의 물과도 같다. 여러분은 그것을 과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둘이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령과 우리의 영도 한 영으로 연합되었다. 두 영의 연합인 이 한 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생명의 영이 된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리하여 그 셋은 하나로 연합되어 생명의 영이 된다.

원래 우리의 영은 다만 사람의 영에 지나지 않았으며 죽어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으로 더하신다. 이제 우리의 영은 살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단순한 영이 아닌 생명의 영이 되었다. 이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모든 의식들은 우리가 이 영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 영에 두고 행할 때, 또한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이 영을 좇을 때 이 영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이 생명의 의식을 갖도록 할 것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으며, 능력이 있고 강하고 밝고 거룩하고 실제적이며 공허하지 않으므로 이 생명의 느낌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선하고 생기 있고 능력 있고 강하고 밝고 거룩하며 실제적이고 공허하지 않다고 느낀다. 우리가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영을 주의하고 있으며, 영을 좇아

행하고 있으며, 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느낌들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 또는 우리 생명의 영의 감각으로서 우리가 속에서부터 영을 따라 행하고 영에 의해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 그러한 느낌들을 만질 때 우리는 영을 만진다. 그러한 느낌들을 주의할 때 우리는 영을 주의한다. 영 자체는 비교적 느끼기 어렵지만, 영 안의 생명의 그러한 느낌들은 쉽게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느낌들을 긴밀히 따를 때 영을 알 수 있고 영 안에 살 수 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느낌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영을 주의하며 행할 때, 이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 계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행복하고 안심하며 편안하고 만족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내적 생명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질 때, 우리는 생명을 만진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안다.

‘생명의 영’의 생명이 있는 영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이므로, 이 생명의 느낌이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눠 주고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접촉하도록 한다. 이 같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생명, 곧 우리의 영 안의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을 체험할 때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만족, 생명의 능력, 생명의 빛 비춤, 생명의 신선함, 생명의 생동감과 탁월함을 느끼도록 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의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고 영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IV. 생명의 영의 법의 느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법도 있

다. 이 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다. 모든 생명은 그 법을 가진다. 우리 몸의 생명은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의 법을 가진다. 생명의 법은 생명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반대하고 거절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도 법이 있다. 그것은 영에 속하고 영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 본성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고 행하는 바가 그 영적 본성에 일치할 때 이 법은 그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은 반대하고 거절한다. 그것이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확실히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냐하면 영으로부터 온 것만이 그 영적 본성에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고 영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은 일종의 의식의 명령에 속한 것이고, 그 자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법이 동의하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반대하고 거절하는 모든 것은 그법이 느끼는 것과 그법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을 통해 알게 된다. 우리가 존재하고 행하는 바가 영 안에 있고 우리 안의 생명의 영의 본성에 일치한다면, 이 법은 우리가 이 법이 그것을 찬성하고 승낙한다고 느끼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은 우리가 이 법이 그것을 반대하고 거절한다고 느끼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의 느낌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는지 영을 좇아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므로 이 법의 느낌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느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의 느낌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알 수 있다.

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법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 또한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과일 주스를 마실 때 그것이 달콤한 것을 자연스럽게 느낀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는 우리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육체의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술이 주스에 닿자마자 우리는 그 달콤함을 맛본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느낌이 우리 신체의 생명의 법이다. 이 법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스의 맛을 느끼도록 한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도 이와 같다. 우

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고 행하는 바가 영 안에 있는지, 우리가 영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 줄 필요가 없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태를 알려 준다. 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스런 이 느낌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본연의 기능이다. 이로써 우리는 스스로 영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자연스럽게 한다. 우리가 영 안에 더 많이 살수록 우리가 존재하고 행하는 바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본성에 더 많이 일치하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은 우리가 더 많이 자연스러움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우리 안의 생명의 영은 영의 자연스런 법이므로 우리의 생활과 일이 그 영적 본성에 일치할 때만이 우리는 내적으로 자연스러움을 느낀다. 우리가 내적으로 자연스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영안의 생명의 법을 좇아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연스러운 느낌은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고 영을 좇아 행하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좇는다면, 즉 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연스러운 의식을 좇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의 생명의 영을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느낌은 영 그 자체의 느낌이므로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느낌을 좇는 것이 바로 영을 좇는 것이다.

V. 평안의 느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곳일 뿐 아니라 새사람이 있는 곳이다.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영—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영—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새사람이다. 우리가 외적인 활동과 행동 가운데서 우리 안의 생명의 영을 주의할 때에는 우리 안의 영적 새사람에 의해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

리 속 사람과 걸의 활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안함을 느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안한 이 의식이 생명의 영의 법의 느낌이 산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생명의 영을 주의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의 생명의 영의 법을 좇아 행하며 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속에서부터 자연스러움을 느끼도록 하고 평안의 느낌을 가지도록 한다. 이 평안의 느낌과 생명의 느낌은 함께 나아간다. 생명의 느낌은 신선하고 생기 있으며 평안의 느낌은 자연스럽게 편안하다. 생명의 느낌은 만족과 넘치는 활력이며 평안의 느낌은 안식과 위로이다. 우리가 영을 주의하고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며 살 때 생명의 느낌인 신선하고 생기 있고 만족하고 활기찬 느낌을 가질 뿐 아니라 평안의 느낌인 자연스럽게 안식하고 위안이 되고 편한 느낌도 갖는다. 일단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느낌을 따를 때 우리는 영의 느낌을 좇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영을 좇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러한 느낌에 의해 영을 알고 영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더 많이 영을 좇아 행하고 더 많이 영 안에서 살수록 우리 안의 이런 느낌은 더 풍부하고 더 깊어진다.

VI. 사망의 느낌

로마서 8장 6절에는 하나의 대조가 있다. 사도는, 육신을 관심한 결과가 사망인 반면 영을 주의한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육신이 영과 대비되듯이, 육신을 관심한 결과인 사망과, 영을 관심한 결과인 생명과 평안이 서로 반대됨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여기에서 사망이 생명의 반대일 뿐만 아니라 평안의 반대임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러므로 사망의 느낌은 생명의 느낌의 반대일 뿐 아니라 평안의 느낌의 반대이기도 하다.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신선하고 생기 있고 만족하고 활기차게 느끼도록 하며, 사망의 느낌은 생명의 느낌의 정반대인 낡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무력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평안의 느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안식하고 위안이 되고 편하게 느끼도록 한다. 사망의 느낌은 평안의 느낌의 정반대인 부자연스럽고 안식이 없으며 위안이 없고 불안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적으로 황량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메마르고 약하며 무력하고 어둡고 활기 없다고 느끼거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위안이 없고 조화되지 못하고 갈등으로 가득하고 부자연스럽고 슬프고 묶여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영 안에 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영의 반대인 육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육신의 정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전체를 의미한다. 우리의 내적인 새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영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외적인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한다. 영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육신에 속한다. 혼이 육신과 다르기는 하지만 혼은 이미 타락하여 육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혼으로부터 나오거나 혼에 속한 모든 것 역시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육신에 속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혼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육신을 관심하든 혼을 관심하든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육신을 관심하는 것이다. 육신을 관심한 결과는 사망이다. 이 사망의 느낌은 우리가 우울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불편함을 느끼도록 한다. 우리에게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육신을 관심하고 있고 육신이나 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느낌은 우리가 영의 반대인 육신을 알고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반대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 자체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생각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영적이든 영적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만일 우리가 깊은 속에서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우울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으며 영 안에 살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일상적인 일이나 좋지 않은 것을 행할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내적으로 공허하고 우울하고 불만스럽고 즐겁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가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많은 때에(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육신으로 마치 책을 읽듯 기도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적서짐과 기쁨이 없이 더욱더 메마름과 우울함을 느낀다. 기도한 후에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뿐 만족을 얻지 못한다. 머리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서는 우리의 영이 생명의 공

급을 얻을 수 없다. 대신 사망의 느낌을 만질 뿐이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아주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 안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 주는 기쁨과 적셔짐은 만질 수 없고, 단지 사망이 주는 메마름과 우울함만을 느낄 뿐이다. 많은 경우 우리의 복음 전파 역시 이와 같다. 영을 좇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공허함과 메마름을 느끼거나 사망을 느낀다. 우리는 만족과 적셔짐을 느낄 수 없으며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 영 안에 있고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만족과 안식이 가득함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육신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통해 육신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육신을 앞으로 영을 알 수 있다.

사망은 우리가 우울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불쾌한 그런 느낌들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느낌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그러한 사망의 느낌들은 우리에게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영 안에 살도록 촉구하며 경고한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사망의 느낌이 있는데도 우리가 계속 육신의 생명으로 행동하고 처신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망은 우리 안의 영이 의식을 상실하고 감각을 잃어버리도록 할 수 있다. 만일 우리 안의 영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의식을 상실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 육신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사망에 의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으며 또 알아야 한다.

VII. 영의 느낌으로 말미암아 영을 인식함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느낌들은 우리가 우리 안의 생명의 영으로 인해 가지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영의 느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을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소 어렵지만, 영의 그러한 느낌들로 영 자체를 알기는 비교적 쉽다. 영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의 느낌

으로 알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가 영의 느낌을 긴밀히 좇으며 행하고 살 때에는 영을 좇고 있으며 영을 주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의 자연스러움을 좇고 생명과 평안의 느낌들을 유의하고, 사망의 느낌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에 유의하며 이러한 느낌들 안에 산다면, 우리는 영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느낌들은 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느낌들을 통해 영을 만지고 영을 인식할 수 있다.

제8장 영과 혼의 분별

우리는 ‘영의 느낌과 영을 인식함’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영과 혼의 차이를 볼 것이다.

1. 영과 혼의 분리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분석하여 두 부분인 형이상학적인 부분과 형이하학적인 부분으로 나눈다. 형이하학적인 부분은 육체를 의미하며, 형이상학적인 부분은 정신을 의미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말한 혼이다. 그들은 사람의 몸 안에 정신, 즉 혼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 안에 혼 이외에 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혼’만을 말하지 않고 ‘영과 혼’을 말한다. 영과 혼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혼과 영을 나누는 것에 대해 말한다.

참된 영적인 생명의 성장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영과 혼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임을 알아야 하며,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며,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혼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영과 혼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혼을 부인하고 혼으로부터 해방되며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A. 혼 대(對) 영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 말한다. 한 부류는 혼적인 사람(‘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원문은 ‘혼적인 사람’이다)

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것은 사람이 서로 다른 혼과 영 중 어느 하나로 말미암아 살고 또 그것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사람은 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혼에 속함으로 혼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영에 속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혼적인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알 수조차 없다. 이것은 혼이 영과 대비됨을 분명히 보여 준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은 혼과는 조화되지 않으며 어울리지 않는다. 영은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하고 수용하기를 기뻐하지만 혼은 그렇지 않다. 혼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리석게 여긴다.

성경 안에는 육신이 영에 반대됨을 보여 주는 로마서 8장이 있을 뿐 아니라 혼이 영과 반대됨을 보여 주는 고린도전서 2장도 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하고 영에 속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도 혼에 속하고 영에 속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은 육신에 관해 말할 때 육신과 죄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죄짓는 사람은 다 육신에 속한다. 그러나 혼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죄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죄를 짓지 않고 (사람이 볼 때)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혼적이고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 (엄격하게 말해서 사람의 혼은 육신 아래로 타락하였으므로 사람이 혼적일 때 또한 육신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혼 그 자체를 말할 때는 혼의 존재와 육신의 존재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영적이고 혼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뜻을 이해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육신 안에서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멈춘다면 영적일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육신 안에서 거칠게 행동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와 육신에서 구해 내실 뿐 아니라 혼에서도 구해 내신다. 주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죄나 육신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혼 아닌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의 구원은 우리를 도덕성의 수준까지 구원하여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영성의 수준까지 구원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훌륭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반드시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혼적인 사람으로서 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제나 자매는 매우 도덕적이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고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거나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B.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혼의 무력함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에 관련된 혼의 상태를 분명하고도 철저히 말해 준다. 혼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혼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혼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할지라도 그것들을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혼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원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혼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깨닫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관심도, 소망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을 찾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혼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도록 혼에서 구출하셔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의 혼의 무력함에 관하여 분명해져야 하며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겨야 한다. 혼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

들을 받지 않으며 깨닫지도 못한다. 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어떤 형제나 자매는 매우 선하고 잘 처신하며 미덕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며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을 많이 만나왔다.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에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벽처럼 막혀 있고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도덕성이나 선악이나 옳고 그름의 표준대로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의식과 통찰력은 부족하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 안에서 영리하고 그들의 지식 안에서는 강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 안에는 빛 비춤이 없으며 영의 느낌은 무감각하다. 그들을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행위에 관한 한 그들은 정말 선하다. 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안다. 그들은 영리하고 빈틈이 없으며 부지런하고 철저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마치 그들은 나무나 돌이 된 것처럼 아무 느낌도 이해하는 능력도 없다. 게다가 종종 영적인 것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냉랭하다. 그들은 이해하는 데에서도 느낄 뿐 아니라 추구하는 데에서도 또한 게으르다.

그러므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은 아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행위에 있어서 선한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영의 느낌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며, 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노련하며, 영 안에서 산다. 선함과 영적인 것은 매우 다르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선하지만 영적이지 않다. 그들은 선하지만 영 안에서 살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선함은 볼 수 있지만 영은 만지지 못한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사람의 미덕은 보지만 하나님의 향기는 맡지 못한다. 한 면에서 그들은 육신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히 혼 안에 있다. 비록 그들은 육신을 방종하게 하지는 않지만 영 안에 살지도 않는다. 그들은 죄 짓는 일들을 승인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육신을 좇아 죄를 짓지는 않지만 자아, 즉 혼으로 말미암아 산다. 혼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며 그들의 생활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들은

혼 안에서 혼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으며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C. 혼의 내용

혼은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 우리의 자아이다. 그러므로 혼은 우리 자신이다. 분석적으로 말하자면 혼 안에 포함된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세 부분이다. 생각은 사람의 사고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우리가 대개 두뇌라고 말하는 것이다(생리학 상으로는 두뇌이고 심리학 상으로는 생각이다). 그것은 혼의 주요한 부분이다. 사람이 사고하고 묵상하고 고려하고 기억하는 것은 모두 혼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이다. 타락 후의 사람, 특히 오늘날의 사람은 대부분 생각 안에서 살고 생각의 사상(思想)의 지시를 받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사람의 행동은 항상 사람의 사상에 묶인다. 자신의 사상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간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얻으려면 사람의 사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날 대단히 많은 이론들과 학교들과 교육 체계가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을 얻기 위해 사람의 사상을 다루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의 사상으로 인해 그의 생각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 즉 두뇌 안에 살고 생각의 사상의 지시를 받기 때문이다.

혼 안에 있는 감정은 사람이 사랑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기관이다.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흥분하거나 침체되는 것은 다 사람의 혼 안에 있는 감정의 기능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약하다. 그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매우 쉽게 흥분한다. 그들은 종종 문제들을 그들의 감정으로 처리한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을 사고로 설득하여 이기기가 어렵지만 그들의 감정은 매우 쉽게 감동시킬 수 있다. 그들은 생각 안에서는 당신에게 쉽게 설득되지 않지만 감정 안에서는 쉽게 움직여진다.

혼 안에 있는 의지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 사람이 결정하고 결심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혼 안에 있는 의지의 기능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 안에 있다. 생각이나 감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살듯이 의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로 산다. 생각이나 감정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한 부분이 생각이나 감정인듯이 의지 안에 사는 사람도 그러하다. 의지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그의 결정에 있어서 매우 강하다. 일단 그가 어떤 행동의 과정을 결정했다면, 결코 그를 변경시킬 수 없다. 당신이 그를 설득하더라도 그는 이유를 주의하지 않는다. 당신이 감정으로 그에게 호소하더라도 그는 결코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의지로 말미암아 행동하며 의지 안에 있는 사람이다.

혼 안에 있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세 부분이다. 이 세 부분은 모든 사람 안에서 자동적으로 표현된다. 모든 사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더러는 생각 안에 더 많이 있고, 더러는 감정이 더 풍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의지에 있어서 더 강하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총명하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아무리 감동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을 얻으려면 당신은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생각, 혹은 두뇌 안에 살고 있는 지적(知的)인 사람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감정에 있어서 풍부하다. 그들은 마치 두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만을 소유한 것 같다. 그러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감정으로 인해 일을 그르친다. 당신이 그들을 설득해 보면 그들은 주의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지도 않는다. 만일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다룬다면 그들의 속 부분을 만지기가 매우 쉽다. 수천 혹은 수만의 이유들도 그들에게는 한두 방울의 눈물보다 효력이 없다. 때때로 당신이 아무리 그들을 설득해도 그들을 납득시키지 못하지만 당신이 단지 약간의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들은 감정을 주의할 뿐 이성은 주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 안에 있지 않고 감정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의 의지는 특별히 강하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어떤 제안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일단 결정을 하면 매우 확고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대개 아주 견고하고 완고하며 감정이나 이성은 주의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의 완고한 의지로 생각을 정립하고 방침을 세운다. 당신이 그들을 설득하려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을 사용하려 해도 그들은 감동받지 않는다. 그들은 지식 안에도 있지 않고, 감정 안에도 있지 않고, 의지 안에 있다.

II.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A. 혼적인 사람

생각 안에 있는 사람이든 감정 안에 있는 사람이든 의지 안에 있는 사람이든 다 혼적이다. 생각 안에서 사는 사람이든 감정 안에서 사는 사람이든 의지 안에서 사는 사람이든 다 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든 감정으로 말미암아 살든 의지로 말미암아 살든 다 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혼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쉽다. 우리는 단지 그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말미암아 행동하는지 아닌지, 그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사는지 아닌지를 보기만 하면 된다. 그가 이 셋 중 어느 하나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이 셋 중의 어느 하나 안에 사는 한, 그는 혼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은 종종 ‘좋은 사람’이라 불릴 수 있다. 그는 흔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흠이 없다. 명석한 생각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칭찬을 받고, 절제하는 감정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신임을 얻는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살 때, 그는 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 안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비록 사람 앞에서는 죄 없고 흠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의 영은 막혀 있고 영적인 이해는 둔감하다.

언젠가 나는 어떤 곳에서 한 동역자를 만났다. 그의 행위는 정말 선했지만 그는 너무 많이 생각(혹은 두뇌) 속에 살았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일을 이해하거나 깨닫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들에 관해 말할 때마다 그가 두 눈을 돌릴까 봐 몹시 두려웠다. 내가 말할 때, 그는 요지를 거의 파악할 때까지 계속 들은 다음 그의 두 눈을 돌리면서 다시 혼돈되었다. 그의 두 눈이 돌아가는 것은 그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단지 그의 생각을 사용하여 고려할 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느끼기 위해 그의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다.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생각은 종종 형제들에게 어려움과 걸림돌이 된다. 많은 형제들은 영적인 것들을 다룰 때 자주 생각을 사용한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사용함으로써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혼의 부분인 생각이 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생각 안에 사는 사람은 혼 안에 살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혼적인 사람이 된다.

생각이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형제들의 어려움이듯이 감정은 빈번히 자매들의 걸림돌이 된다. 많은 자매들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 많이 감정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각처의 모든 교회에서 열심과 사랑이 있고 행동을 주의하고 행위가 건전한 많은 자매들을 보아 왔다. 그런데도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그들은 의식이 부족하고 그러한 것들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너무 많이 그들의 감정 안에 살고 그들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기 때문이다. 외관상으로 감정은 죄는 아니지만, 감정은 그들이 영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의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모든 영적인 느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며,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감정이 그들의 함정이다. 감정은 그들이 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혼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혼의 영역 안에 계속 붙들어 둔다.

많은 형제들에게 있어서 의지 또한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데에 어려움과 걸림돌이 된다. 몇몇 자매들까지도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들은 너무 많이 그들의 의지대로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적인 느낌이 나 이해가 전혀 없이 혼 안에 산다.

어떤 사람이 혼의 어느 부분 안에 있든지 그는 매우 쉽게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그 부분 안에서 살 것이다. 생각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하기만 하면 자연히 그 문제를 거듭거듭 생각하고, 많은 각도에서 그것을 고려할 것이다. 감정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무의식중에 감정에 매우 많이 유의한다.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사람과 문제들을 다룰 때 매우 쉽게 그의

의지에 의존함으로 확고한 결심과 바꿀 수 없는 결정을 한다. 어떤 사람이 혼의 어느 부분이든지 쉽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산다면, 그는 확실히 그 부분에 속한 사람이다. 만일 당신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심사숙고하는 사람을 본다면 그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는 생각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흥분되고 쉽게 웃고 쉽게 눈물을 흘리며, 즐거워하다가 잠시 후에 우울해진다면 틀림없이 그는 감정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사람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획하고 결심하며, 특별히 힘을 쓰지 않아도 의지가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작용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당신은 의지가 강하고 의지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안에서 가장 강하고 풍부한 혼의 부분은 그가 어떤 일을 당하여 그것을 처리할 때마다 항상 최전선에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일을 처리할 때 그의 혼의 특정 부분이 그 일을 주도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바로 그 특정 부분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가 혼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B. 영적인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혼적인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가를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 혼적인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므로 영적인 사람은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혼적인 사람이 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영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은 영 안에서 살고 혼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 역시 혼을 소유하고 그들의 혼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평범한 혼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풍부하지만, 그들은 이 혼적인 기관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혼적인 기관 안에 살지도 않는다. 그들은 영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 살며 영이 그들의 모든 행동과 행위의 주인과 근원이 되도록 한다. 그들 안에 있는 영은 가장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며, 영이 그들의 행동의 근원이고 그들의 활동의 출발점이다. 그들 안에 있는 혼은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 그들의 혼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기능을 발휘하지만 이들은 모두 영의 통제 아래 종속되어 있고 영의 지

시를 받는다. 그들도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지만 혼의 이 기관들을 사용할 때 항상 영의 느낌을 따른다. 그들은 혼을 모든 것에서 주인이 되게 하고,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최전선에 서서 주도하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혼적인 사람과 같지 않다. 그들은 혼의 탁월함을 부인하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주도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들은 영이 그들 안에 주인이 되도록 하며, 영의 느낌을 따르기 위해 영이 그의 전 존재를 관리하도록 한다. 그들은 어떤 일에 마주칠 때마다 그것을 접하고 처리하기 위해 혼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먼저 영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느낌을 구하며, 그것을 접하고 느끼기 위해 먼저 그들의 영을 사용한다. 그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 주님의 느낌을 만진 후, 영 안에서 그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혼 안의 생각을 사용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혼 안의 감정을 사용하며, 혼 안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수행한다. 그들은 혼의 기관들을 사용하지만 혼적이지 않고 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 그들은 영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이며, 혼은 그들이 부리는 단지 하나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Ⅲ. 비정상적 상태

타락한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므로 혼으로 말미암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구원받고 소생된 영을 소유한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돌아와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람의 타락은 사람을 영에서 혼으로 하락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영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혼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혼에서 영으로 구원하여 사람이 혼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영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영과 혼과 그 안에 내포된 문제들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러는 혼 안에 머물고 혼으로 말미암아 산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갈망이 그들이 혼에서 해방되어 영 안에 사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영이 소생된 것과 그 영이 그들의 혼과 다르다는 것과 그들이 그들의 영 안에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혼 안에 머물고 혼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그들이 영이 아닌 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며 영 안에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혼에서 해방되어 영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합당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심하여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가련한 것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만 우리를 실수로부터 실수 없는 상태로 구해 내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혼으로부터 영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실수 없는 생활을 영위하기 원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인 삶,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혼이 아닌 영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생활을 하기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혼으로 말미암아 살며, 그들의 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사람들이 되고자 분투하고 노력한다. 그들의 영은 이미 소생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영을 사용하여 그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혼의 힘만으로 만족한 생활을 살고 그들 스스로를 완전한 사람들로 만들고자 한다. 사물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판단, 사랑과 기호는 모두 영 안에 있지 않고 혼 안에 있다. 비록 그들이 잘 처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행동과 행실에 흠이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이 아닌 혼 안에 살고 있다. 가령 그들의 생각이 깨끗하고 그들의 감정이 균형 잡혀 있으며, 그들의 결정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혼적일 뿐 영적이지 않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상태는 비정상적이다. 그들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들 스스로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그 성공은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에 참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영과 혼의 분별에 대해 약간의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가 혼으로부터 벗어나 영 안에 사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도 여전히 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영이 이미 소생되었음을 알고 있을지라도 영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혼으로부터 해방되어 영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혼 안에 머물러 혼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들은 사람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만지기 위해 혼을 사용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영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영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들이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 안에 살지 않는다. 그들은 혼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고 영을 사용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소홀히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항상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사용한다. 기껏해야 그들은 선하고 흠 없는 그리스도인들일 뿐 (사실상 이것도 의심스럽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뿐 하나님의 칭찬은 받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출—죄로부터의 구출이 아닌 혼으로부터의 구출, 사람에게 비난받는 부정한 육신으로부터의 구출이 아닌 사람에게 칭찬받는 깨끗한 혼으로부터의 구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여전히 문외한이요 외인인 것이다.

IV. 혼으로부터 구출되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혼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는 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있어서 무력하고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가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혼의 어느 부분이 아무리 우수하고 강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깨끗하고,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균형 잡히고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결코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

지 못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혼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했을 때, 그가 가리킨 ‘나’는 혼이다. 하나님의 평가에 따르면 혼은 죽어 마땅할 뿐이다. 또한 우리의 혼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혼에 속한 것들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혼이 죽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과, 그것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뿐이다. 그러한 계시와 이상은 우리가 혼을 정죄할 수 있도록 하며, 혼을 부인하고 혼을 거절하고 모든 일에서 혼이 주도하는 것을 금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것에서 결코 혼에게 양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을 죽음에 넘긴다. 우리는 성령께서 혼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혼의 활동을 처리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이 얼마나 무력한지, 혼이 얼마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분께서 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혼을 부인하고 혼을 거절할 수 있으며 혼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의 무력함과 혼을 처리하는 십자가를 보여 주시기를 주님께 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혼을 거절하고 혼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기를 배울 것이다. 생각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그의 지식을 거절해야 한다. 그는 생각하고 숙고하는 그러한 기능을 완전히 제쳐 두고, 영으로 돌이켜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식을 느껴야 한다. 그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론을 세우는 것, 조사하는 것을 거절하고 오로지 그의 영 안의 느낌을 긴밀히 좃고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의 감정을 거절해야 한다. 그는 그의 감정이 주도하고 지시하도록 놔 두어서는 안 되며 성령께서 그의 감정을 처리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그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죄를 두려워 하듯이 그의 감정을 두려워해야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영 안에 살아

야 하며, 감정의 지시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의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있어서 그의 의지를 하나님의 원수로, 영의 대적자로 여겨야 한다. 그럴 때 그는 그의 의지를 정죄하고 거절하고 부인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견고하고 강한 의지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그의 영 안의 의식에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의지를 깨뜨리시는 것을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가 혼의 어느 부분 안에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고 거절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든 감정이든 의지이든, 그것은 모두 깨뜨려져야 하며 처리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주도하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영이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감독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혼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면에서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혼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사용하고, 다른 한 면에서는 혼에 의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적이지 않고 영적일 것이다.

제9장 세 가지 생명과 네 가지 법

우리는 이제 생명의 인식에 있어서 아홉 번째 중점—세 가지 생명과 네 가지 법—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성경에서 지극히 중요한 진리이다. 우리가 우리 속의 영적인 생명을 분명히 알고, 죄 없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이 기본 진리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I. 세 가지 생명

A. 세 가지 생명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생명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세 생명—사람의 생명, 사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 안에 오직 한 생명, 즉 부모로부터 얻은 사람의 생명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 안에 사람의 생명 외에 사탄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8절과 20절은 사람 안에, 즉 사람의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고 말한다. 여기의 죄는 사탄의 생명을 가리킨다. 이 육신은 사탄의 생명을 담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 안에 머물며 자주 그 영을 거슬러 정욕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안에 사탄의 생명을 소유한다.

더욱이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말한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또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하나님의 생명)이 있고”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의 원래의 사람의 생명과 타락을 통해 생긴 사탄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 준다.

B. 세 가지 생명의 기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아담은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동산의 두 나무인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앞에 두셨다. 성경에서 나중에 주어진 계시들에 의하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탄을 의미하며,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그 당시 에덴동산, 즉 우주 가운데에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탄 세 편이 모두 관련된 하나의 상황이 벌어졌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그가 하나님과 겨루는 초점은 사람이 다. 사탄과 하나님은 다 사람을 원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해 사람을 원하셨고, 반면에 사탄은 그의 사악한 욕망의 실현을 위해 사람을 원했다. 하나님과 사탄이 사람을 얻는 방법은 모두 생명을 통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분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을 얻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여 사람이 그의 타락한 생명을 얻어 그와 혼합되도록 했다.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그날,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 후부터 사탄의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을 타락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은 그의 원래의 창조된 생명 외에 타락한 사탄의 생명 또한 얻게 되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아들 안에 두셔서 사람들 중에 나타나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그분의 아들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이 우리는 우리의 원래 창조된 사람의 생명과 타락을 통해 얻은 사탄의 생명 이외에 하나님의 생명 또한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세 생명을 하나씩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얻었다. 아담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타락하여

사탄의 타락된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아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C. 세 생명의 위치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사람과 사탄과 하나님의 세 가지 다른 생명은 각각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인 혼과 몸과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분은 생기를 사람 안으로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산 혼이 되었다”(창 2:7, 원문 참조). 이것은 창조를 통해 얻은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혼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탄에게 유혹되어 타락했을 때 사탄을 의미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그의 몸 안으로 섭취하였다. 그러므로 타락을 통해 사람이 얻은 사탄의 생명은 사람의 몸 안에 있다. 사람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므로 구원을 통해 사람이 얻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영 안에 있다. 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혼 안에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며, 몸 안에 사탄의 생명을 가진다.

세 가지 생명이 위치하는 세 부분을 좀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 부분들의 의식에 관하여 얼마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가장 밖에 있는, 물질적인 부분인 몸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신체의 모든 지체들을 포함하고, 물질세계를 접촉하는 촉각과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의 오감을 가진다. 그러므로 몸의 의식은 세상적인 느낌 또는 물질적인 감각이라 불린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부분인 영은 양심과 직감과 교통을 포함한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관이며,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인정되며 무엇이 그르고 거절되는 것인지를 느끼도록 해 준다. 직감은 우리가 아무런 수단이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느끼도록 해 준다. 교통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 교통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 곧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접촉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과 직감이 둘이다. 이 두 부분의 느낌이 영 안의 느낌이다. 그러므로 그것

은 영적인 감각 또는 하나님의 느낌이라 불린다.

영과 몸 사이에 위치한 혼은 우리 내부의 심리적인 부분이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포한다. 생각은 사고하고 고려하는 기관이고, 감정은 즐거움과 분노와 슬픔과 기쁨의 기관이며, 의지는 의견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 혼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두 부분, 생각과 감정만이 의식을 가진다. 생각의 느낌은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면에 감정의 느낌은 좋고 싫음에 기초를 둔다. 우리 혼의 두 느낌은 우리가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 즉 사람 자신 또는 자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심리적인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리적인 느낌 또는 자아 의식이라 부른다.*^(주 2)

D. 세 가지 생명의 본성과 상태

우리가 우리 안에 얻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생명은 각각 그 고유한 기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존재의 세 가지 서로 다른 부분에 따로따로 거한다. 그러므로 이 세 생명의 본성과 우리 안에서의 각각의 상태 역시 서로 다르고 다소 복잡하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직후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심히 좋았고' (창 1:31) '정직하였다' (전 7:29). 그러므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은 원래 좋았고 정직했다. 그것은 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에 대한 의식이나 부끄러움의 의식도 없었다. 그것은 순전하고 단순했다.*^(주 3)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 사람은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상황을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사람은 사탄에게 중독되어 그의 생명이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에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칠판지우개를 가지고 놀지 말라고 명했다 하자. 내가 집을 떠난 후 그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 지우개를 가지고 놀았다.

* (주 2) 보통 우리가 '사람의 의식' 을 말할 때, 그것은 혼의 감정 안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을 의미한다. 이 느낌은 혼의 생각, 몸의 오감, 영의 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영의 직감에 의해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주로 혼의 감정 안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으로 구성된다.

나는 돌아왔을 때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잘못된 행위는 단순히 가족 규율의 위반일 뿐 아무것도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번에 내가 독약병을 집에 두고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것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하자.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들은 그 병이 가지고 놀기에 재미있다는 것을 알고는 가지고 놀 뿐 아니라 또한 그 독약을 마셨다. 이 순간 그들은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족 규율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독이 있는 어떤 것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일어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금령에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사탄의 생명을 그 자신 안으로 취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적으로 복잡하게 되었다. 그는 원래 정직하고 좋은 사람의 생명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사악하고 타락된 사탄의 생명도 소유한 것이다.

온갖 종류의 죄로 가득 차 있는 사탄의 생명은 모든 타락의 씨와 악의 요소들을 담고 있다. 사탄은 사람 안에 살면서 사람이 정욕을 품고(요 8:44) 죄를 범하도록 한다(요일 3:8). 그러므로 그의 생명은 사람이 죄를 살아 내도록 하는 악의 근원이다. 사람이 저지르는 다양한 죄들은 사탄의 생명 또는 그 안에 거하는 마귀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이 마귀적인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비록 때때로 사람이 그의 생명을 쫓아 사람의 선함을 약간 살아 낼 수 있긴 하지만,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 마귀적인 생명을 쫓아 무서운 악들을 살아 내었다. 때때로 사람은 매우 점잖을 수 있다. 그는 정말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고 참된 사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화낼 때는 정말 마귀와 같고 악취로 가득하다. 사람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색

* (주 3) 타락 이후 하나님은 사람이 수치감을 갖도록 하셨다. 이 느낌은 이중 기능을 가진다.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증거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 준다. 만일 사람에게 수치감이 없다면 마음대로 죄를 범하기 쉽다. 누구든 수치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더 많이 보호될 것이다. 여자는 수치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 있다.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분명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이다.

함과 도박과 여러 가지 범죄에 빠져 있을 때에는 무서운 모습을 지니며 마귀의 냄새로 가득하다. 사람이 그 마귀적인 생명을 살아 내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생명이 그를 속이고 그를 마귀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과 마귀의 혼합된 생활을 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실제적인 내적 상태이다. 사람에게 사람과 사탄의 두 생명이 있고, 선한 본성과 또 다른 악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은 한편으로는 선하고 정직해지려는 소망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과 악을 향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세대를 거쳐 인간 본성을 연구했던 철학자들은 두 가지 다른 사상을 주창해 왔다. 즉, 하나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생명과 악한 생명을 다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 안에 이 두 본성이 다 있다.

그러나 주께 감사하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과 마귀의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도 소유하고 있다. 사탄이 사람의 타락을 통해 그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여 우리를 그와 혼합되게 하고 그에게 사로잡히며 그의 본성의 온갖 악을 소유하게 하였듯이, 하나님 역시 그분의 건지심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두심으로, 우리를 그분과 연합되게 하시고 그분께 사로잡히며 그분의 본성의 모든 신성한 선함을 소유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타락의 결정적인 요점이 생명이었듯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점도 역시 생명이다. 주의 상(末)을 대할 때, 우리는 먼저 생명의 떡을 떼고 그 후에 죄 사함의 잔을 마신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 먼저 피를 받고 나서 생명을 받기는 하지만, 생명을 상징하는 떡이 그분의 구원에 있어서 주된 상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피를 뜻하는 잔은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떡을 먹은 후에 잔을 마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안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더 복잡해진다. 우리는 사람의 정직한 생명과 사탄의 사악한 생명과 신성하고 선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탄과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에덴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과 사탄, 셋으로 구성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이 존재

한다.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탄, 셋이 모두 있는 에덴동산의 축소판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에덴동산에서 사람을 사이에 둔 하나님과 사탄의 다툼은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탄은 우리를 소유하려는 그의 사악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협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날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 역시 그분의 선한 기쁨심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의 사탄의 생명을 쫓아 산다면, 우리는 사탄의 사악함을 살아 내어 사탄이 우리에게 대한 그의 악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선함을 살아 내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한 기쁨심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한다. 때로 우리가 사탄의 생명을 쫓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쫓지도 않고 우리 사람의 생명만을 쫓아 독립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우리는 독립적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살지 않으면 사탄의 생명을 쫓아 산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아주 다른 세 종류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매우 친절하고 한 형제가 아침에는 정말 사람처럼 보이고, 정오에 그의 아내에게 화낼 때는 마귀를 방불케 하며, 밤에 기도 시간 중에 아내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그의 아내 앞에 자백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 같아 보인다. 그래서 하루 중에도 그는 아주 다른 세 사람처럼 행동하고 서로 다른 세 가지 상황을 살아 낸다. 아침에 그는 사람처럼 친절하고, 정오에는 마귀처럼 화를 내고, 밤에 죄를 처리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낸다. 하루 종일 그의 생활 가운데 사람, 마귀, 하나님이 모두 표현된다. 그가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세 인격인 사람과 마귀와 하나님의 생명이 모두 있기 때문이다. 그가 사람의 생명을 쫓아 살 때에는 사람과 같고, 마귀의 생명을 쫓아 행할 때에는 마귀와 같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표현한다. 우리가 쫓아 사는 그 생명이 우리가 살아 내는 바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한 사람 안에 세 가지 다른 생명인 사람의 창조된 생명, 사탄의 타락된 생명,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생명이 모두 있지만, 우

리는 세 가지 다른 사건 때문에 세 번의 다른 시점에 그 생명들을 얻었다. 첫째로 우리는 창조의 때에 창조를 통해 사람의 창조된 생명을 얻었고, 둘째로 타락의 때에 사탄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접하므로 사탄의 타락된 생명을 얻었으며, 셋째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을 얻었다. 이 세 가지 사건인 창조, 타락, 구원이 우리 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생명인 사람의 생명과 사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보고 알 때, 우리는 생명의 길에 관해 분명해질 수 있다. 사람과 사탄과 하나님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생명이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생명을 좇아 살아야 하는가? 사람의 생명인가, 하나님의 생명인가, 아니면 사탄의 생명인가? 우리가 좇아 사는 그 생명이 우리가 살아 내게 될 생명이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놓여 있다.

II. 네 가지 법

구원받은 우리 안의 세 가지 생명은 각각 하나의 법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세 가지 생명에 속한 세 가지 법이 있다. 이외에도 우리 밖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과 밖에 모두 네 가지 법이 있다. 이것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다.

A. 네 가지 법의 정의

로마서 7장과 8장의 중심 주제는 법이다. 먼저 6장에서 사도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이라”(14절, 원문 참조)고 말한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는 7장과 8장에서 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한다. 7장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1절, 원문 참조)고 말함으로 시작한다. 다시 “이제는 우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으니”(6절, 원문 참조)라고 말

하고, 뒤에서 바울은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7절, 원문 참조)고 말한다. 다시 “나는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22절, 원문 참조)고 말한다. 이들 모두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킨다. 마침내 그는 “내 지체들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싸워 나의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23절, 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노예로서 섬기노라”(25절, 원문 참조)고 말한다. 그리고 8장에서 그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2절, 원문 참조)고 말한다. 이 구절들에서 사도는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연관된 네 가지 다른 법에 관해 전부 말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7:22, 25), 즉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말해 주는 구약의 율법이다. 둘째는 우리 생각 안에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도록 하는 ‘생각의 법’(7:23)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셋째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7:23)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하는 우리 안의 이 법의 기능이 우리 몸의 지체들 안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 불린다. 넷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는 ‘생명의 영의 법’(8:2)이다. 이 법을 가져오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사람의 영으로 구성된 연합된 영인 생명의 영이다. 그러므로 그 법은 ‘생명의 영의 법’이라 불린다. 더욱이 이 영은 생명을 담고 있고, 생명에 속하며,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 불린다. 네 가지 법 중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만이 우리의 밖에 있는 반면, 나머지 셋인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과 몸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 있다.

B. 네 가지 법의 기원

네 가지 법의 기원은 각각 다르다. 돌비에 쓰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나머지 세 법은 먼저 우리가 언급한 세 가지 생명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생명

에는 법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법이 항상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생명은 항상 하나의 법을 소유한다.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세 가지 서로 다른 생명에 상응하는 세 가지 법을 갖고 있다.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은 창조된 선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 태어날 때에 얻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자연스런 능력이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는 선을 행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선호와 갈망이 있었고, 또한 양심에 가책을 받아 자신을 고쳐 보고 더욱 진보하려는 결심이 허다하게 있었다. 선을 행하려 하고 진보하려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으로부터 나온다. 그러한 것들은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 선의 법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하는 로마서 7장 18절에 기초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이 우리의 원래 창조된 생명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으며, 더더욱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이 결론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 육신 안의 상태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절, 23절, 24절의 문맥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타락되고 변질된 몸을 가리킨다. 우리의 타락되고 변질된 몸, 즉 육신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타락된 존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장의 후반부는 우리 타락된 존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우리의 생각 안에 선의 법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 준다. 의지와 생각은 둘 다 우리의 혼의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타락되고 변질된 몸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혼의 생각과 의지 모두 안에는 타락 후에도 선함의 요소가 있다. 이 선함의 요소는 자연히 우리의 창조된 선한 생명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은 우리의 원래 창조된 생명에 속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 출생할 때부터 존재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창조된 선한 생명은 타락을 통하여 사탄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었으므로 그 선함의 요소를 상실했다고 말한다. 이것 역시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 신맛의 요소를 꿀물이 든 컵 속에 가미하면 단맛을 손상시키지만 단 요소를 없애지는 않는다. 비록 사람이 사탄으로 인해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그의 선함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람 안에 있는 창조된 선함의 요소가 사탄으로 인해 부패되어 고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무(全無)한 상태로까지 부패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일 우리가 유리컵을 박살낸다면 그것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겠지만 유리의 요소는 여전히 남는다. 금 막대기 한 조각이 오물통에 던져질 수는 있지만 금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록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공경, 형제애, 성실, 진실, 예의 바름, 도덕성, 수치심 등이 다소 불순하고 혼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선한 요소들이 오염되기는 했지만 파괴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비록 그 요소들이 매우 약하기는 해도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의 현인들과 철학자들이 사람 안에 어떤 '뛰어난 미덕'과 '타고난 지각'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결론 내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타락된 존재 안에는 여전히 선함의 요소와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법이 있으므로, 사람의 본성에 관한 이들 철학자들의 발견은 옳다고 말할 수 있다.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사탄의 타락되고 악한 생명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앞에서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써, 사탄의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음을 말했다. 사탄의 이 생명 안에 악의 법, 즉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포함되어 있다. 사탄의 생명은 악하므로 그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그 법은 당연히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하고 악을 행하도록 한다.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과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생명에서 나온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과 연합되시어 생명의 영이 되셨다. 생명의 영의 이 생명 안

에는 생명의 영의 법 또는 생명의 법인 한 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의 법을 두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지만 선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을 두신다. 선의 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를 통해 주어진다.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행하는 요소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두신다. 이 생명 안에는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법의 기원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 속하고,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은 사람의 생명에서 나와 사람에게 속하며,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사탄의 생명으로부터 나와 사탄에 속하고, 생명의 영의 법은 생명의 영으로부터 나와 영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C. 네 가지 법의 위치

네 가지 법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들 각각의 위치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돌비에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밖에 있다. 선의 법은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혼 안에 있다. 선을 행하는 생명이 우리의 혼 안에 있으므로 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법 역시 우리의 혼 안에 있다. 이 법의 기능은 특히 혼의 생각 안에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이 법은 '생각의 법'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 안에는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선의 법, 선한 인간 본성이 있다. 죄의 법은 우리의 지체들, 즉 우리의 몸 안에 있다. 사람은 타락할 때 그의 몸 안으로 지식의 나무 열매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사탄의 악한 생명이 우리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사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죄의 법 역시 우리의 몸 안에 있다. 이 법이 우리의 몸 안에 있고 이 몸이 지체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이 법은 우리의 지체들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는 사탄과 사탄의 생명과 사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죄의 법과 사탄의 악한 본성이 있다. 사탄과 사탄의 그 악한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몸과 섞였기 때문에 몸은 변질되어 타락한 육신이 되었다.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생명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므로 생명의 영에서 나온 법 역시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의 기원이 그 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위치 역시 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적으로 영에 속하며 몸이나 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서 나온 법, 그분의 생명의 본성이 있다.

D. 네 가지 법의 본성과 기능

우리 안팎의 이 네 가지 법의 본성과 기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규칙들로 구성되며, 그 본성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우리 밖에 있는 이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규칙들을 좇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은 창조된 사람의 선한 생명에서 나오며, 사람의 선한 본성을 내포하고,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본성에 꼭 맞는다. 이 법이 우리 안에, 즉 우리의 생각 안에 선을 행하려는 원함을 일으킨다. 특히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선행할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의 법으로 인하여 선을 행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를 기뻐한다. 이것이 사도가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롬 7:25, 원문 참조)고 말한 이유이다.

우리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사탄의 악하고 타락한 생명으로부터 나왔으며 사탄의 악한 본성을 담고 있다. 사탄의 악한 생명은 우리의 육신 안에 현존하는 ‘악’ 이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 이다(롬 7:21, 20). 악한 생명에서 나온 이 법은 ‘죄의 법’ 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한다. 이 법은 우리의 육신에서 그 타고난 능

력을 행사하여 악을 행하고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에 대항해 싸운다.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려는 원함을 줄 때, 이 죄의 법은 그것에 대항해 싸우려고 일어나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롬 7:23).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법의 선한 요구를 만족하게 하려는 원함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복종하여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하며 사망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우리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리를 자극하는 죄의 법에 의해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타락된 존재 안에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조된 선한 생명으로부터 나온 한 법은 우리 혼의 생각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을 일으킨다. 사탄의 타락되고 악한 생명에서 나온 또 다른 한 법은 우리 몸의 지체들 안에서 작용하며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한다. 우리의 생각과 지체들 안에서 모순된 일들을 하는 서로 반대되는 이 두 법은 우리 안에서 서로를 대항해 싸운다. 그 결과 대개 죄의 법이 선의 법을 이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한다.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이성과 정욕의 싸움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성(이성)은 우리 창조된 생명 안에 본래부터 있던 선을 행하는 요소이다. 정욕(정욕)은 우리 타락된 몸 안에 거하는 죄, 또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악이다. 이성(이성)은 부분적으로 우리 사람의 양심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이루어 낸 선함은 지력에서 나오거나 지력을 통과한 것이다. 정욕(정욕)은 우리 타락된 사람의 본성에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몸의 지체들 안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정욕(정욕)이 만들어 낸 악은 몸의 지체들에게서 나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력이 강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더 있는 반면, 좀더 열정적인 사람은 쉽게 악을 행한다. 다른 말로 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선은 생각 안에 있는 지력에서 비롯되거나 생각 안의 지력을 통과하는 데 반하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은 지체들 안에 있는 정욕(정욕)의 결과이다.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이성이 유리한 위치를 얻을 때, 사람이 선을 행한다. 지체들 안에

있는 정욕이 더 나은 위치를 얻을 때 사람이 악을 저지른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싸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된 싸움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영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육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을 얻은 후에만 일어난다. 그러나 두 법의 싸움은 사탄의 타락되고 악한 생명과 창조된 선한 생명 사이의 싸움에 관계되어 있고, 이 싸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내적 싸움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싸움이다.

죄의 법을 가져오는 이 '죄(Sin)'는 사탄의 생명이므로 살아 있다. 대문자로 표시된 '죄(Sin)'는 그것이 인격화되고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고 오직 한 죄가 있을 뿐이다. 죄는 하나의 특별한 용어이고 유일한 대상이다. 죄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관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의 노예가 되도록 하며,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압도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한다고 말해 준다. 우리 밖의 많은 죄들(sins)은 단지 우리 안의 유일한 죄(Sin)의 작용이 가져오는 행위들일 뿐이다. 이 유일한 죄는 죄들의 뿌리요 어미이다.

죄가 어떻게 우리를 밖으로 죄를 짓게 하는가? 우리는 죄가 우리의 몸 안에 거한다는 것을 보아 왔다. 그러나 자극하는 기관은 몸이 아니라 의지이다. 사람의 혼에 속하는 의지는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지시에 복종하며 사람의 몸이 죄를 범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므로 비록 죄가 우리 몸 안에 거하기는 하지만, 그 손상시키는 일은 주변에서 시작하여 중심으로 침투해 나간다. 죄는 몸을 거점으로 하여 그 독을 뿜어 내면서 우리 전 존재가 부패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혼과 영에 손상을 입힌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9절)고 말한다. 로마서 1장과 마가복음 7장은 또한 온갖 종류의 죄들이 사람 안에 있다고 밝힌다. 이 성경 구절들은 사람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되었고 죄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의 혼 안의 생각은 악하고 감정은 오염되고 의지는 반역적이며, 심지어 사람의 영도 어두워졌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 안에 있는 죄의 활동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사람의 법과 사탄의 법, 선한 법과 악한 법, 두 법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 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서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생명에서 온 것이다.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 중에서, 신성하고 영원한 본성에 관한 한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다(이것은 1장 '생명은 무엇인가'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생명'이다. 생명의 영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생명'이듯이 그 본성도 '생명'이다. 이 법은 이 법을 가져오는 생명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선'하거나 '악'한 두 가지 법과 같지 않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생명과 선은 서로 다르다. 여기 세 가지 중점이 있다. 첫째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인 반면, 선은 사람의 생명의 본성이다. 둘째로 생명은 선하지만 선이 반드시 생명인 것은 아니다. 셋째로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는 생명과 선이 서로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생명은 선도 악도 아니다. 생명, 선, 악은 서로 다른 세 가지 독립된 것들이다.

우리는 생명과 선이 같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과 선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이 있고 또한 사람의 선이 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담고 있다. 사람의 선은 사람의 생명에서 오며 단지 사람의 선한 본성만을 담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언급된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살아 내는 선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선이고 하나님의 선이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로마서 7장 18절-19절, 21절과 9장 11절에 언급된 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좇아 살아 내는 선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선이고 사람의 선이다.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선은 '생명'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요소가 없는, 단지 사람의 선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만이 선일 뿐 아니라 '생명'의 본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참된 요소를 소유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과 선이 서로 다르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생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 본성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는 사람의 선은 자연히

하나님의 생명과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 하나님의 생명 본성을 담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본성을 담고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선을 살아 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이 법들은 그 힘의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우리는 법들이 그들 각각의 기원이 되는 대상의 힘의 정도에 따라 세기에 있어서도 다양함을 안다. 선의 법은 사람의 생명에서 나왔는데, 사람의 생명은 가장 연약하다. 그러므로 선의 법이 선을 행하는 힘 역시 가장 연약하다. 죄의 법은 더 강한 사탄의 생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이 법의 힘은 선의 법이 선을 행하는 힘보다 더 강하다.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 우리를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도록 한다. 생명의 영의 법은 가장 강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이 법의 힘 역시 가장 강하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법에 복종하여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 자체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자연스럽게 살아 낼 수 있도록 한다.

역대로 철학자들은 도덕성을 계발하거나 행위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주창해 왔다. 사실상 그들이 주창해 온 것은 이미 타락된 몸과 혼의 근거 위에서 사람의 지력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을 통해 사람 안에 있는 원래의 선을 복원하고 다시 활동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죄의 법의 타고난 힘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의 힘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법의 힘은 지속적이다. 사람이 애쓰는 것은 자기 노력인 반면 법의 힘은 자동적이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여 잠시 동안은 자신을 지탱할 수 있으나 그의 힘이 다 고갈되면 즉시 죄의 힘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외적인 몸과 역사하여 우리를 에워싸는 죄를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몸과 영 사이에 있는 혼에 역사하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강력한 힘을 가져오는 새로운 요소를 우리의 중심인 우리의 영 안으로 더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전진하시고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관통하시면서 한 법을 사용하여 또 다른 법을 정복하심으로 죄의 법 안에 있는 죄 짓는 능력을 이기신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전에 선의 법을 통해서는 살아 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선을 살아 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생명의 영의 법이 가져오는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생활을 살아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와 관계된 네 가지 법, 즉 우리 밖에 있는 한 법과 우리 안에 있는 세 법을 보여 준다. 우리 밖에 있는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세 법 중 한 법은 우리 혼 안에, 다른 한 법은 우리의 몸 안에, 또 다른 한 법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창조된 사람의 선한 생명에서 나온, 우리의 혼 안에 있는 법은 선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을 우리에게 일으킨다. 타락되고 악한 사탄의 생명에서 나온, 우리 몸 안에 있는 법은 악하며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한다.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생명에서 나온,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법은 신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살아 내도록 한다.

우리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대표하며 우리에게 거룩함, 의로움, 선함의 요구를 부여한다.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의 거룩하고 선한 요구를 만질 때 그 요구들을 실행하기 원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우리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이 우리 밖의 하나님의 법의 거룩하고 선한 요구들을 이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틀림없이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며 대개는 우리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에서 무력해질 뿐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요구들을 어긴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 혼 안에 있는 선의 법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혼 안에 있는 선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우리의 영을 쫓아 산다면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살아 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요구들을 이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성한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한 예로,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탐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구한

다.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의 이 요구를 만질 때 그것을 이행하고 싶어 하며 더 이상 탐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은 반대하여 일어나 우리를 내적으로 탐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탐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행할 수 없다. 이때 우리는 더 많이 탐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정하지만, 탐심을 스스로 제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탐심은 더욱더 우리 안에 강해진다. 밖의 하나님의 법의 요구로 인해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이 선을 행하려 할 때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즉시 우리 안에 악을 작용케 하여 우리의 선한 생각을 대항해 싸우게 한다. 더욱이 우리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거의 모든 교전에서 선의 법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진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법보다 더 강하고 우리를 죄의 법에서 구출하여 해방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에 의해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생명의 영의 법을 좇아 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극하는 탐욕에서 반드시 구출될 것이다. 우리는 탐하지 말라는 밖의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탁월한 거룩함을 살아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특정한 요구들을 하며,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은 즉시 그것을 이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법, 곧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의 사이에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우리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원하는 대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방해한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혼을 에워싸듯이 몸 안에 있는 죄의 법도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을 에워쌀 뿐 아니라 죄의 법은 선의 법보다 더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이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고, 둘러싼 죄의 법을 돌파하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이행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모든 것보다 더욱 강하다. 그러므로 그 법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고 죄의 법이 삼키려는 것에서 우리를 구출할 뿐 아니라 더욱 우리가 하

나님의 법의 요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와 연관된 이 네 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한 예를 사용할 수 있다.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마치 우리에게 구애하는 훌륭한 한 남자와 같다. 반면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은 그의 구애에 응하려는 정숙한 한 숙녀와 같다. 그러나 우리의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은 항상 그 숙녀를 쫓아다니며 그녀와 그 남자 사이에 말썽을 일으키는 악한 자와 같다. 그는 이 숙녀가 그 남자의 구애에 응하려는 것을 알 때마다 그녀를 납치하여 강제로 그녀가 자신의 뜻과 원함에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비유될 수 있는 하늘에서 온 한 천사가, 그 악한 자에게서 숙녀를 구하고 그녀가 그 남자의 구애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그녀의 원함은 실현된다. 결국 그녀는 하늘에서 온 이 천사가 사실은 그 남자가 분장한 분임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그녀가 그 남자의 구애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그 자신의 갈망을 그녀가 실현하도록 한 것이다.

이 예에서 우리는 비록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요구들을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요구들을 이행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겨 낼 힘이 전혀 없다. 게다가 죄의 법은 항상 선의 법을 반대하며 선의 법이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고 그 원함을 실행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출하라고 보내신 우리 영 안의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요구들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살아 낼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의 영의 법을 좇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구출되어 자동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결론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구출

은 사람의 개선과는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 근거가 다르다. 사람의 개선은 사람의 원래의 선에 근거하는 반면 하나님의 구출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 즉 생명의 영에 근거한다. 또한 그 방법이 다르다. 사람의 개선하는 방법은 사람의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몸을 모질게 다루고 정욕을 억제함으로 사람 안에 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출하는 방법은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영 안으로 주입하여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여, 먼저는 우리의 영의 각 부분을 새롭게 하고 다음으로 우리의 혼의 각 부분까지 새롭게 하며 마침내 물질적인 몸까지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도 다르다. 사람의 개선의 결과는 단지 사람의 가장 높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의 신성한 표준을 살아 내게 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구출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살아 내어 '하나님-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구출은 우리를 선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사람들로 만든다. 우주 가운데에는 '하나님-사람들'과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구출은 우리를 악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사람들'로 만든다.

셋째, 하나님에 의해 구출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구출은 우리를 '생명-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이다. '생명-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막연한 교리이다.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 안에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생명의 영의 법은 영 안에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영 안에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생명의 영의 법의 느낌은 생명의 느낌이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느낌 안에 살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생명의 느낌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영을 관심하고 영 안에 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영을 관심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 안에 사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 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내는 것은 생명이며 우리는 생명-사람들이 된

다.

넷째, 하나님의 구출의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을 복종하여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사시며 그분과 우리는 둘이 하나로 완전히 연합될 때까지 실제적으로 섞이게 된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요점이 더 있다. 첫째로, 우리는 내적 느낌을 접촉해야 하는데, 이것은 내적 느낌에 복종함을 뜻한다. 둘째로, 우리는 교통 안에 살아야 한다. 교통은 생명의 흐름이다. 교통 안에 사는 것은 생명의 흐름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세 가지 생명과 네 가지 법에 관한 이 장의 목적은 우리가 이 요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내적 느낌을 접촉하고 교통 안에 산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1)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2)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며 (3)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것이고 (4)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하나님—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며, 바로 이 안에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이 들어 있다.

제 10 장 생명의 법

지난 과에서 우리는 세 생명과 네 법을 보았다. 이제는 생명의 법, 곧 지난 과에서 말한 생명의 영의 법을 자세히 보기로 한다. 네 법 중에서 오직 생명의 법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자연스럽게 살아 나타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연적인 기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접촉하려면 반드시 생명의 법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I. 성경적 근거

성경 전체에서 오직 아래의 다섯 군데만 생명의 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할 수 있다.

A. 로마서 8장 2절 : “생명의 영의 법 ...”(원문 참조)

여기서 말한 생명의 영의 법은 곧 생명의 법이다. 이 법을 가져온 그 영은 생명을 포함하며,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법은 그 영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기도 하다.

B. 히브리서 8장 10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들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원문 참조).

C.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들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원문 참조).

이상 히브리서 8장과 10장의 두 군데 성경 말씀은 모두 먼저 ‘두고’를 언급한 후 ‘기록하리라’를 언급했고, 둘 다 ‘생각’과 ‘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두 구절이 다 한 가지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 두 군데 말씀은 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한 것이다.

D.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부분들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원문참조).

E. 에스겔 36장 25-28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 너희가 …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원문 참조).

위의 성경 구절은 적어도 (1)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함, (2)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 (3)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심, (4)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심, (5)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심 등 다섯 가지를 언급하였다. 이 다섯 가지를 합한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그분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한 결과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한 결과와 같다.

II. 생명의 법의 근원—거듭남

우리가 생명의 법의 근원을 말하려면 반드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생명의 법이 있게 된다.

A. 사람의 창조

거듭남을 말하려면 또한 사람의 창조부터 말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졌을 때 선하고 정직한 인간의 생명을 얻었을 뿐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사람 안으로 섞이게 하고 사람과 연합하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목표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몸과 혼 이외에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영을 지으셨는데 이 영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이 영을 사용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때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중심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B. 사람의 타락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기도 전에 먼저 타락해 버렸다. 타락을 통하여 사람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기관인 사람의 영은 죽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타락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기관인 영에 사망을 가져온 것이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람이 다시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게 되었고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럴 때 사람에게에는 두 방면의 필요가 있다. 한 면에서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한 죄를 처리해 주시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한 면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중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은 영에 생명을 주심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C.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 부정적인 면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려 구속을 이루시어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고, 긍정적인 면은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해방되고 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성령 안에 두어진 것이다. 결국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도록 하시는 것이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환경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회를 예비하신다. 그런 다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추고 감동시키신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자책하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 (요 6:63)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요 1:12). 이 권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신성한 본성이 있게 된다(벧후 1:4). 우리가 이 생명과 생명의 본성에 의해 산다면 하나님과 같아지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 낼 수 있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어떻

게 일하는가? 생명은 중심에서 둘레로, 즉 영에서 혼으로 그리고 몸에게 까지 일하여 결국 생명은 밖으로 확대되게 된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먼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우리의 영을 활발하고 신선하며 강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며 하나님과 달콤한 교통을 갖게 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혼 각 부분으로 확장되므로, 우리의 생각과 애호와 결정을 점점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한다. 심지어 우리의 분노 속에도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향기가 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그러나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몸 안으로 확장되어 우리의 몸 또한 생명 요소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한다. 이것이 곧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신다는 로마서 8장 11절의 의미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인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과 요소와 향기로 완전히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휴거되어 변형될 때까지, 우리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완전히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일하고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무시하여 강압적으로 일하거나 확대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지속적인 일과 확대는 우리의 감정의 원함과 생각의 협력과 의지의 복종을 요구한다. 만일 우리가 그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긴밀히 따르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 능력과 기능을 나타낼 길이 없다. 사람은 살아 있고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있는 살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협력하려 하는가 또는 협력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로 남아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 외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어(겔 36:26)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셨다.

마음은 원함과 관계있고, 영은 능력과 관계된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은 하나님께 배역함으로 단단하고 낡게 되었다. 그러므로 '돌 같은 마음' 또는 '옛 마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옛 마음'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절하며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 ‘옛 마음’ 이 외에 또 다른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 같은 마음’ 이 되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 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새 마음’ 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과 하나님을 사모한다. 새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기관이다. 우리는 새 마음으로 인하여 기꺼이 하나님과 협력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자유롭게 확장하고 일하도록 허락해 드린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죽고 낡게 된 영이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옛 영’ 이라고 불린다. 이 ‘옛 영’ 은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접하는 기능을 잃었으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영’ 이 외에 또 다른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살아 있는 영이 되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새 영’ 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새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새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새로운 기관이다. 우리는 새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협력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확장하고 일하도록 허락해 드린다.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려는 ‘지원함’ 을 갖게 되고, 새 영이 있을 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자유롭게 확장되고 일하도록 할 뿐,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신성한 표준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가장 영광스럽고 뛰어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의 새 영 안에 두신 것이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체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그것은 곧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이리하여 창조자와 창조물이 연합되었다. 오, 이것은 마땅히 찬송을 받을 만한

일이다! 게다가 영원한 영이자 한량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한량없는 기능과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한량없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바르고 공급하시고,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움직이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요구를 충족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혼을 통과하여 우리의 몸에게까지 확장되게 하신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아지는 영광스러운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사람의 자기 개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기 개선은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혼과 몸과 그 기능의 범위에서 수고하는 일에 불과하다. 사람의 능력은 본래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기 개선에 성공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우리 혼의 각 부분을 통과하여 각 부분을 점차적으로 새롭게 하며 또한 몸에게까지 이르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 안에 더해지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성하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더해진 것이지만 개선한 것은 아니다. 개선하려는 것은 본래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한계가 있다. 더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 속한 것을 더하는 것으로서 무한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들은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 생명 안에는 자연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생명의 자연적인 기능이 바로 '생명의 법'이다. 이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지만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의 법의 근원이고 거듭남은 이 생명의 법의 유래이다.

III. 생명의 법의 의미

생명의 법의 의미를 알려면 법이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은 자연적인 법칙이며 계속 변치 않는 규칙이다. 법이 반드시 생명에

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은 반드시 법을 지니고 있다. 생명이 지니고 있는 이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부른다. 이 생명의 법은 또한 그 생명의 자연적인 특성과 타고난 기능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쥐를 잡고, 개가 밤에 집을 지키고, 우리의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음식을 맛보며, 위는 소화할 수 있다. 이 모든 능력은 다 생명의 자연적인 특성과 타고난 기능이다. 모든 생명이 살아 있고 자유롭기만 하다면, 사람의 가르침이나 재촉 없이도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극히 자연스럽게 그 특성을 발전시키고 그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 생명 안의 이러한 자연적인 특성과 타고난 기능을 가리켜 생명의 법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이고 가장 뛰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특성과 기능도 반드시 가장 높고 뛰어난 것이다. 가장 높고 뛰어난 이 특성과 기능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자연히 가장 높고 뛰어난 것이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므로 자연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가장 높고 뛰어난 이 생명의 법을 얻었다.

제1장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생명의 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생명의 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내리신 율법과는 다르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 밖에 있는 돌비에 쓰인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은 밖의 법이요 문자의 법이다. 그 법은 사람 밖에서 사람에게 요구하며 그 조항 하나하나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법은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악하고 죽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의 요구에 응하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은 도리어 그 율법의 정죄 아래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그분의 생명과 함께 이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두셨다. 이 생명의 법은 신

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내적인 법이다. 이것은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

이 생명의 법은 우리 속에 두어졌다. 그러므로 그 위치에 따르면 생명의 법은 내적인 법이다. 이 법은, 사람 밖에 있기 때문에 외적인 법이었던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다. 또한 이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본성에 따르면 이 법은 생명의 법이고 따라서 공급할 수 있다. 이 법은, 문자의 법이기 때문에 다만 요구만 할 뿐 공급할 수 없는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다. 우리 안의 생명의 법, 곧 하나님의 생명의 자연스런 특성과 기능인 이 법은 생명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항목 한 항목씩 매우 자연스럽게 조절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조절한 결과는 하나님의 외적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이 생명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겠다. 만일 우리가 한 그루의 메말라 죽은 복숭아나무에게 율법들을 세우고 그 나무에게, “너는 반드시 파란 잎을 내고 붉은 꽃이 피게 하여 복숭아를 맺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하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요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조금의 효과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메말라 죽은 나무이므로 밖의 율법의 요구에 응답할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무에게 외적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나무 안으로 생명을 주입하여 나무를 소생시킬 수 있다면, 그 생명은 자연스런 능력을 갖게 되어 나무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할 뿐 아니라 외적인 율법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도록 한다. 이것이 생명의 법의 작용이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어떤 죽은 사람에게 “당신은 호흡해야 합니다. 당신은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합니다. 당신은 활동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하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율법의 요구들은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율법의 한 항목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를 살아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밥을 먹으며 잠을 자고 활동할 것이다. 이것 또한 생명의 법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이 두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전체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 자기를 개선함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이미 영접한 하나님의 생명이 책임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의 법과 더불어 우리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좇아 살고 행한다면, 생명의 법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의 모든 내용들을 한 항목 한 항목씩 우리 속에서부터 조절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율법에 조금의 부족도 없이 매우 잘 부합될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능가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4절의 의미이다.

우리 속 마음 판에 새겨진 생명의 법을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영의 법’(원문 참조)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이 법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임을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집행자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인격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이 인격이시다. 이 인격이 아닌 생명은 인격이신 그 영께 속하며, 인격이신 이 영과 분리될 수 없다. 인격이신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가져오셨고, 이 생명은 하나의 법, 곧 생명의 법 또는 생명의 영의 법을 동반한다. 이 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근원으로서 가지고 있고, 또한 큰 능력을 가진 한 인격이신 하나님의 영을 그 집행자로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영의 법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돌비에 새겨진 문자의 법인 것을 보았다. 이 법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신약의 법은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진 생명의 법이다. 이 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조절하여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응답하고도 남게 한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심적인 은혜이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IV. 생명의 법이 있는 곳

A. 생명의 법이 일하는 곳

생명의 법을 가져오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 생명을 처음 얻었을 때 이 생명은 우리 속에서 유기적으로는 완전하나 우리 온 존재 각 부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나무에 열린 열매와 같다. 열매가 갓 열릴 때 그 생명은 완전하지만 유기적으로 완전할 뿐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열매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해지려면 자라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날 때 얻은 하나님의 생명도 유기적으로만 완전하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이 완전히 성숙되기를 원한다면 이 생명 또한 우리 온 존재의 각 부분 안에서 점차적으로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생명의 자람과 성숙은 생명의 법이 우리 온 존재의 각 부분 안에서 일함으로써 이뤄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일하는 곳이 우리 온 존재의 각 부분, 즉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한 우리의 ‘속 부분들’임을 알려 준다.

B. 속 부분들과 율법들

우리의 속 부분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 영과 혼과 마음의 각 부분이다. 여기서 마음은 생리적인 심장이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이다.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과 혼은 독립적인 부분이나 마음은 혼합된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 따라 본다면 마음에는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가 포함된다.

1. 생각—예를 들어, “마음에 악한 생각”(마 9:4)과 “마음의 생각”(히 4:12).
2. 의지—예를 들어, “마음의 뜻으로”(행 11:23, 원문 참조)와 “마음의 … 뜻”(히 4:12).

3. 감정—예를 들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14:1)와 “마음이 기쁠 것이요”(요 16:22).
4. 양심—예를 들어, “마음에 ... 양심”(히 10:22)과 “마음이 흑 ... 책망”(요일 3:20)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이 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세 부분과 영 안의 양심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을 그 구성 요소로 갖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은 영의 한 구성 요소와 혼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영과 혼을 연결시킨다.

우리 속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 영의 직감과 교통은 하나님께 더 많이 관련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에 중점이 있으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영 안의 양심과 사람의 인격이 있는 곳인 혼 안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사람에게 더 많이 관련되고 사람을 위한 것에 중점이 있다.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내적인 여러 부분들을 함께 모은 합성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사람의 총 대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우리의 이 속 부분들 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생명의 법의 일이 어느 부분에 미칠 때 이 법은 그 부분의 법이 된다. 생명의 법의 일이 생각에 미칠 때 이 법은 생각의 법이 되고, 의지에 미칠 때 의지의 법이 되며, 감정에 미칠 때 감정의 법이 되며, 양심에 미칠 때 양심의 법이 된다. 그리하여 생명의 법은 우리 속 부분들의 각 부분의 법이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10절과 10장 16절은 이 법을 ‘법들’이라고 불렀다. 이 법들은 사실상 생명의 법 또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으로서 하나의 내적인 법이지만 우리 안의 여러 ‘부분들’에 두어진 것이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생명의 법을 ‘법’이라고 불렀고 히브리서에서는 ‘법들’이라고 불렀다. 하나는 단수요, 다른 하나는 복수이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법 자체를 말할 때는 하나뿐이므로 단수이다. 그러나 이 법이 일한 효과를 말할 때는 이 법이 우리 전 존재의 속 부분들 안에서 그 효능과 기능들을 나타내므로 복수인 법들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이 법을 단수의 법이라 말한 것이나 히브리서에서 복수의 법들이라고 말한 것이나 사실상 다 한 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C. 마음과 생명의 법과의 관계

우리는 생명의 법이 일하는 곳이 우리의 속 부분들임을 이미 보았다. 이 속 부분들 중에 마음이 첫째이다. 마음은 사람의 속 부분들이 합해진 부분이며 사람의 총 대표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 속 부분들 안에서 일하여 여러 법들이 되는 생명의 법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다룰 것이다.

1.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임

앞에서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은 영과 혼을 연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영과 혼 사이에 있다. 그러므로 생명이 영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음을 통과해야 하며, 생명이 영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도 반드시 마음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생명이 반드시 통과하는 길이므로 생명의 입구와 출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죄악의 고통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느낄 때 그의 감정은 감동되고 양심은 통회하며 생각은 회개하고 의지는 믿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지고 그는 구원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그의 마음이 찬성하지 않고 열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전파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때문에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스펄전(Spurgeon)은 “사람의 영을 감동시키려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실로 옳은 것이다. 마음이 움직여야 비로소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마음을 통과해야 하며 마음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마음이 찬성할 때 생명이 통과할 수 있다. 마음이 찬성하지 않으면 생명이 통과하지 못한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양심은 찬성하는데 다른 부분들이 찬성하지 않거나, 생각 부분은 찬성하는데 감정 부분이 찬성하지 않는다. 이럴 때에도 생명은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실로 생명의 입구와 출구이다.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생명을 살아 나타내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2. 마음은 생명의 스위치임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이므로 생명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 달려 있다. 이뿐 아니라 마음은 생명의 스위치이다. 마음이 닫히면 생명은 들어오지 못하고, 나갈 수도 없다. 그러나 마음이 열릴 때 생명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자유스럽게 나가도록 조절될 수 있다. 마음의 어떤 부분이 닫히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없고, 마음의 어떤 부분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은 실로 생명의 스위치이다. 생명은 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 사람 속에서 그 능력이 일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는가에 달려 있다. 마치 발전소의 전력이 강하지만 방 안의 작은 스위치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다. 이 스위치가 열리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올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것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음에 의해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매우 사랑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지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마음만 있을 뿐 영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부흥사들의 일이 실패한 원인도 이것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사람의 감정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의 의지를 분발시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하였을 뿐,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이해하려면 물론 마음속의 생각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먼저 영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접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오직 영만이 영적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은 모두 먼저 영으로 접촉한 후 마음속의 생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소리를 들을 때 먼저 귀로 접한 후에 생각으로 깨닫고, 먼저 눈으로 색깔을 접한 후 다시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이 약하다면 우리는 다만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으로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며, 그 이후 사람들이 그 영을 만날 수 있도록 또다시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강할 때에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영 안에 직접 가져다준다. 이때 사람은 복음을 듣자마자 영을 접촉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그들이 점차적으로 생각으로 깨닫고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하나님과 영적인 일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무관심하다면 영은 안에 갇히게 되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교통하시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된다.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을 접촉하려면 영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기관이고,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과하게 하는 열쇠이며 스위치이고 전략적인 지점이다.

3. 마음이 생명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음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이고 생명의 스위치이므로 생명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생명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된다. 마음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은 방해를 받고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며 생명의 법은 더 이상 조절할 수도 없게 된다.

우리 안의 하나님의 생명이 자유롭게 일하고 성장할 때 우리는 계시와 지속적인 빛을 매일 받는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종종 그렇지 못하다. 많은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않고 영적인 생활도 비정상이다. 이는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참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충분히 추구하지 않고 충분히 청결하지 못하며 충분히 열려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병이요 마음의 문제이다. 양심의 정죄하는 느낌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양심에 문제가 있거나, 염려와 근심과 악한 생각이나 변론이나 의심 때문에 생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의지가 고집 세고 강박하여 의지에 문제가 있거나, 감정이 육체적인 애호와 천연적인 선호를 갖고 있어 감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음속의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이 생명의 법이 조절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갈망하다면 먼저 마음을 처리할 필요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영을 사용해야 한다. 마음의 처

리를 잘 받지 못하면 영은 말할 것도 없다. 많은 형제자매들의 문제가 영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마음이 틀렸을 때에는 영 안의 생명이 장애를 받으며 생명의 법도 자유롭게 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마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때야 생명의 법이 자유롭게 일하고 아무 방해 없이 통행하여 우리 온 존재의 각 부분에까지 이를 수 있다.

4. 어떻게 마음을 처리하는가

마음이 생명과 너무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조절되어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네 가지 큰 문제인 부드럽지 않음과 순수하지 않음과 사랑하지 않음과 평안하지 않음을 가지고 있다. 부드럽지 않은 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순수하지 않은 것은 생각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고, 평안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수하며 사랑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이 네 방면을 처리하신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움을 원하신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가 완고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복종하며 온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신다(겔 36:26).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단하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고기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웠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주님께게서 돌아서고 다시 단단해진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진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상태가 올바르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 계속 부드러워야 한다. 이것저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나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두려

위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정도로 부드럽게 될 때까지 처리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는 다 부드러우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에는 즉시 강박해진다. 심지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라고까지 말한다. 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또 어떤 형제자매는 다른 일에는 단단하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에는 항상 부드러워진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가? 어떤 때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어떤 때에는 그분의 징계로 우리를 치신다. 하나님은 종종 먼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신다. 만일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환경을 통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치신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극도로 순수하고 단순한 것이다(고후 11:3). 순수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원하며, 하나님 외의 다른 사랑이나 기호나 갈망이 없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순수한 자는 …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외의 사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외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게 되고 우리 영 안의 생명도 이로 인하여 장애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를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딤후 2:22, 원문 참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며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애정을 갖는 마음을 의미한다. 성경에 주님을 향한 믿는

이들의 사랑을 전적으로 말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아가서이다. 아가서는 여인이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듯이 주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 준다. 이 사랑은 너무나 깊고 변하지 않으며 죽음보다 더욱 강하다(8:6-7). 그 책은 특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언급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감정을 움직이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베드로가 그분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음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의 생명이 베드로 안에서 일하고 자랄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 생명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생명으로 얻어 이 생명 안에 사는가를 말해 주는 책인 요한복음에 이 일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평안한 마음은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행 24:16) 정죄와 비난이 없으며 온당하고 평온한 마음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를 관리한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므로(요일 3:20) 우리를 더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기 위하여”(요일 3:19) 양심의 모든 거리낌과 책망과 비난을 깨끗이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은 통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수하고 사랑하며 평안하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올바른 것이다. 이런 올바른 마음만이 생명의 법의 적합한 협력자이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자유롭게 조절되어 나가도록 허락한다. 많은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통행금지’라는 팻말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하고 정지시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고 확장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말들은 높고 큰 지혜의 말은 아니지만 건강 검진과 같이 우리

마음의 모든 상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을 택하는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행복하는지, 아니면 완악하고 거역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해 보아야 한다.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며 비뚤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하는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깊이 관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는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 마음의 감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선호하고 사모하는 다른 것은 없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은 거리낌이 없고 평온한지, 아니면 정죄와 비난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평안의 마음, 곧 올바른 마음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묻고 세세히 처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영 안의 생명은 반드시 출구가 있게 되고, 생명의 법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조절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이 다 점검되고 처리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우리 영에서부터 마음을 거쳐 우리 전 존재의 각 부분까지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전 존재의 각 부분이 다 이 생명의 법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로 충만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영광스러운 목적에 이르게 된다.

V. 생명의 법의 조건들

생명의 법이 있는 곳을 본 우리는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전 존재의 여러 속 부분들 안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실행에 있어서, 생명의 법이 우리의 속 부분들 안에 자유롭게 일하려면 두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A. 하나님을 사랑함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전적으로 생명에 대해 말했고 동시에 믿음과 사랑도 강조했다. 믿음은 생명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사랑은 생명을 흘러 내보내는 것이다.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하고 생명을 살아 나타내려면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오직 믿음만이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오직 사랑만이 생명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의 법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 하나님을 사랑하라”(막 12:30, 원문 참조)고 말했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많은 부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속 여러 부분들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 안의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씨로 뿌리신 후, 사랑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돌아가며 그분께 기대도록 하신다. 이럴 때 우리 속의 ‘수건’은 벗어지고(고후 3:16 참조) 우리는 빛을 보고 계시를 얻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된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원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의 모든 풍성을 우리 전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공급하도록 허락한다. 그러므로 어느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바로 그 부분을 조절하게 된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일한다. 그때 우리 전 존재의 안팎이 모두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B. 생명의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함

두 번째 조건은 생명의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7장 ‘영의 느낌과 영을 인식함’에서 생명의 법이 느낌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느낌을 주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

명을 가질 때 이 생명의 법은 반드시 우리 속에 느낌을 준다. 우리의 책임은 이 생명의 법의 느낌을 순종함으로써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생명의 법의 느낌은 처음에는 비교적 미약하고 가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적 미약한 느낌을 기꺼이 순종한다면 후에 오는 느낌은 갈수록 강해진다. 우리는 먼저 최초의 이 미약한 느낌을 순종하는 데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계속 순종해야 한다. 이럴 때 생명의 법은 우리 전 존재의 여러 속 부분들 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의 생명은 매우 자연스럽게 밖으로 확장하며 또한 깊고 높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우리의 답변은 이러하다.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하기 전에는 순종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한 번씩 주시는 것처럼 한 번에 한 가지 느낌밖에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듯이 느낌도 하나씩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시면 우리는 그 느낌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연히 두 번째 느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오직 첫 단계로 해야 할 일인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는 것만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창 12:1)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떠난 후에 그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헤롯왕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첫 단계로 애굽으로 피하라라고만 말씀하셨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했다(마 2:13).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한 느낌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의 느낌은 생명나무의 원칙인 의지하는 원칙과 동일하다. 생명의 법의 느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한 번에 하나의 느낌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한 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

나눔에게서 독립한 선악 지식의 나무의 원칙과 다르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을 좇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첫 번째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 이후에 오는 느낌을 계속해서 순종해야 한다.

어떤 때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되지 않을 때 이 생명의 법은 우리가 불편함과 불안을 느끼고 사망의 맛을 느끼도록 한다. 이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행 16:6-7).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이렇게 금지하고 허락하지 않는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멈춰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생명의 법의 느낌을 순종하여 행하고 멈춘다면 이 생명의 법은 우리 안에서 방해 없이 일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계속 자라고 확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의 느낌을 순종하는 것, 특히 첫 번째 느낌을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하는 긴요한 조건이다.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기 위한 것이다(12-13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협력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위한 조건이 된다.

VI. 생명의 법의 기능

우리는 사랑과 순종이 생명의 법이 일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자 생명의 법에 대한 우리의 책임임을 보았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때 생명의 법은 자연적으로 우리 속 부분들 안에서 일하며 그것의 자연적인 기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생명의 법은 두 가지 종류의 기능을 가진다. 첫 번째 기능은 제해 버리거나 죽이는 것이며, 두 번째 기능은 더하거나 공급하는 기능이다. 제해 버림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하는 것이고, 더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을 더하는 것이다. 제해 버리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요소이고, 더하는 것은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요소이다. 제해 버린 것은 묶은 것이고, 더한 것은 신선한 것이다. 제해

버린 것은 죽은 것이고, 더한 것은 살아 있는 것이다.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서 일할 때 두 종류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 옛 창조의 모든 것을 점점 제해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든 것을 점점 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속의 생명은 점점 자라게 된다.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 두 종류의 기능을 갖는 이유는 이 법을 가져온 생명 속에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종류의 특별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요소는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만유를 포함하고 만유를 끝낸 놀라운 죽음이다. 생명의 요소는 주 예수님의 부활 또는 주님의 부활 능력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요소는 부활의 요소라고 부를 수 있다.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제해 버리는 기능은 생명 안에 포함된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요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사람 안의 모든 어려움들을 제해 버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죽음은 생명의 법의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집행되어 죄의 요소, 세상의 요소, 육체의 요소, 정욕의 요소, 옛 창조의 요소, 천연적인 조성의 요소 등과 같이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죽이며 제해 버린다. 또한 생명의 법 안의 더하는 기능은 생명 안에 포함된 주님의 부활의 요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부활은 생명의 법의 일을 통하여 우리 속에 적용된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생명의 법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모든 요소들 또는 새 창조의 모든 요소들을 우리 안에 더하고 공급함으로써, 우리를 신격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약과 같다. 우리가 먹는 약 중에는 세균을 죽이는 요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요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 있다. 죽이는 요소의 기능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질병을 제해 버리고, 영양을 공급하는 요소의 기능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한다.

이것은 우리 몸의 혈액과도 같다. 혈액에는 두 가지 요소인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다. 백혈구에는 병균을 죽이는 기능이 있고 적혈구에는 영

양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 속에 혈액이 흐르고 있을 때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균들을 깨끗이 죽이고, 적혈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 온몸 각 부분에 공급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일할 때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할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 포함된 두 가지 요소인 죽음과 생명이 죽이고 공급하는 기능을 하여, 세상과 육체 같은 영적인 세균은 죽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풍성으로 구성된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는 올바른 길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때, 우리 안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도록 한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느낌을 따라 양심을 처리하며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처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때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느낌들을 순종할 때 생명의 법은 우리 속에서 조절하여 하나님 이외의 것을 제해 버리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더하는 두 가지 기능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점점 자라 성숙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참되고 실제적인 체험이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VII. 생명의 법의 능력

생명의 법에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능력도 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밖에 기록된 법이고 죽은 법이고 문자의 법이다. 이 법은 사람에게 요구할 뿐 사람이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에게 공급하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법은 “할 수 없고”(롬 8:3, 원문 참조),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히 7:19). 그러나 신약의 법은 우리 안에 기록된 법이고 살아 있는 법이며 생명의 법이다. 이 생명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생명’이다(히 7:16). 그러므로 이 생명에서 나온 법 또한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일에서 우리를 능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법의 능력은 그 법을 가져온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임을 보아야 한다. 바로 이 능력이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하늘로 올라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했다. 또한 이 능력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조절하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한다(엡 1:20, 3:20).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다음의 몇 가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A.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함

첫째로, 이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한다. 생명의 법과 마음의 관계를 언급할 때 우리는 생명의 법이 마음의 저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까지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신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시 119:36)라고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능력은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다.

B.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함

둘째로, 이 능력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한다. 생명의 법의 조건들을 말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일이 우리가 순종하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 했는가!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능력이 능히 우리의 상태를 처리하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한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도 어떤 때에는 후퇴하고 마음이 강박해지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은 조절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의 의지를 조절하여 우리가 그분께 다시 순종하도록 하신

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의 문제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의 순종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능력이 일한 결과이다. 이 능력은 우리의 순종하지 않는 의지를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

한번은 어느 자매가 참으로 순종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의 생각이 괴로움을 당할 뿐 아니라 양심도 참소를 받았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다. 그녀가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빛을 보여 주셨다. 그녀는 그녀가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기뻐하며 안식했다.

C.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함

셋째로, 이 능력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예비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다(엡 2:10). 이 선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살아 내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온 선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선은 사람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살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절하여 우리가 이 뛰어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D.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함

넷째로, 이 능력은 또한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한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라고 말한다(고전 15:10). 또한 그는 그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도 그의 안에서 운행하시는 자의 능력을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골 1:28-29). 이 '능력'은 '폭발력'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일이 자신의 재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폭발력을 의지한 것임을 말한다. 역대로 주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 계속 수고하고 끊임없이 고초를 겪었

다. 이것은 그들 개인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일하고 그들 안에서 조절하며 그들로부터 어떤 활동을 조절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일이 산출된 것이다. 이 조절되어 나온 활동과 폭발적으로 나온 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서 나온 일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 폭발적인 능력이 사람 속에서부터 사람을 조절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의 안에서 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은 반드시 힘을 다하여 일을 할 것이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중일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몇몇 지방 교회들에 가서 일하였다.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상해(上海)로 돌아왔을 때 니(Nee) 형제님은 나에게 “형제님,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이제 또 상해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유머가 섞인 말이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일하도록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무궁한 능력의 생명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이며 가장 폭발력이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이 생명이 그들 속에서 일하며 조절할 때 그들 속에서 무엇인가가 폭발할 것이다. 그들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일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분발시키지도 않고 주님의 일을 소리가 없고 냄새도 없게 만들었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은 제한받고 있고 생명의 법은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한 간증을 하고 싶다. 나는 많은 때 감히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 나는 매일 삼십 분만 기도하여도 생명의 바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생명의 법이 조절하기 시작하며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내 속에서 재촉하여 내가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한다. 그곳에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가야 한다. 일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일하면 만족한다. 일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표. 우리의 봉사를 살아 있고 신선하게 함

다섯째로, 이 능력은 또한 우리가 살아 있고 신선한 봉사를 하도록 한다. 구약의 봉사는 문자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낡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또 사람을 죽인다. 신약의 봉사는 그 영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신선하기 때문에 살아 있고 사람을 살린다. 구약의 봉사는 외적인 죽은 규례들에 근거한 활동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의 공급을 줄 수 없다. 반면에 신약의 봉사는 영 안의 생명의 법이 조절한 결과로서 생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으며 산 공급을 받게 한다. 우리가 집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행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이 움직이면, 다만 몇 마디 교제하고 간증하는 것이나 심지어 광고를 하는 것도 살아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 공급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이나 구변이나 학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에 따라 살아 있는 봉사를 하는 자격 있는 신약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후 3:5-6, 엡 3:7, 원문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는 방언과 환상과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등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운행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은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생명 안에 담긴 능력이 계속 일함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은사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은사로 말미암아 능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파할 수 있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여러 세대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여 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오! 이것은 얼마나 큰 은사인가! 이같이 큰 은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능력이 작용함에 따라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능력의 작용에 의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은사는 능히 우리가 살아 있고 신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

VIII. 생명의 법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존재의 전 영역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일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 안의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그

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갈 4:19) 확장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점점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실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고후 3:18),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며(롬 8:29) 결국 그분과 완전히 같게 된다(요일 3:2).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간단한 비유를 들어 말해 보겠다. 계란 속에는 닭의 생명이 있다. 그러나 병아리가 부화되는 기간 중 처음 며칠 동안에는 전등으로 계란을 투시(透視)해 보면, 어떤 부분이 머리이고 어떤 부분이 다리인지 분간할 수 없다. 그러나 부화 기간이 차서 그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다시 전등으로 투시해 보면 껍질 속에 있는 완전한 병아리의 형상을 볼 것이다. 이것은 병아리의 형상이 계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때,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 안에 태어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유기적으로는 완전하시나 형상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에 이 생명의 법이 우리의 속 부분들 안에서 계속 일할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요소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라시며 결국 그분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뤄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이뤄질 때 우리도 점점 변화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뤄진 만큼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뤄지는 것과 우리의 변화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뤄지는 것이 우리의 여러 부분들에서 그리스도의 요소가 안에서 밖으로 증가되는 것이듯, 우리의 변화 또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까지 우리의 여러 부분들에서 안에서 밖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의 과정은 영으로부터 이해(또는 혼)를 거쳐 행위(또는 몸)에까지 진행된다.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살아날 때 그것은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었다(이것은 앞에서 새 영을 말할 때 언급했다). 후에 생명의 법이 일함으로 인하여 혼안의 이해도 새롭게 됨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비춤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알고 거절하게 되며, 성령에 의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서 살아나

타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서 더욱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적인 행위도 점차적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뤄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에서부터 혼을 거쳐 행위에 서까지 변화되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모양이 주님의 모양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과 같아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인성과 같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 안에서 형태 지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변화는 과정이고, 주님과 같아지거나 주님과 같은 형상과 본성을 갖는 것은 변화의 최종 결과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역사이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변화의 목표가 다만 우리를 주님과 같게 하거나 주님과 같은 형상과 본성을 갖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그분과 같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한 ‘우리 몸의 구속’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빌 3:21).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영 안의 본성과 우리의 혼과 행위의 형상에서 그분과 같게 하실 뿐 아니라, 더욱 우리의 몸까지 영광스럽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몸이 되게 하여 우리를 몸 안에서 그분과 완전히 같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일한 최종적인 결과이다. 오, 얼마나 놀라운가! 어떠한 영광인가!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순수하심같이 자기를 순수하게 해야 한다(요일 3:3, 원문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며, 매일 우리의 죄와 세상과 육체와 옛 창조의 모든 것을 처리함으로 혼잡하지 않고 순수하게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곧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표에 이르시고 우리도 곧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IX. 하나님은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되기 원하심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보여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신 이유가, 그 분이 이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이 생명의 법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A.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심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마귀가 사람을 탈취한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이런 문제들의 해답은 성경의 첫 부분에는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계시되었다. 십계명 중 첫 세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마귀가 광야에서 주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경배하라고 했을 때 비로소 사람을 탈취한 마귀의 뜻이 드러났다. 마귀는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고 사람이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것은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 누가 사람에게 하나님ی 되고 누가 사람의 경배를 얻느냐 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며 사람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 구약 시대에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거하셨다. 신약 시대에 그분은 또한 성육신 하시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임을 표명하셨다. 그 후 그분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거하시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장래 그분은 또한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온 집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영원히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B.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 후에 하나님이 되기 원하심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더욱 원하신다. 그분은 단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갖고 그분의 아들이 될 때만이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이 되도록 할 수 있다.

부활의 날 아침에 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다(요 20:17). 여기서 주님은 먼저 아버지를 언급하신 후에 하나님을 언급하셨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 예수님은 그분의 마지막 저녁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 주셨다(요 17:3).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더 많이 일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배하며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것은 이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작용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C.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되기 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그분의 생명의 법 또한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법이 일할 때 이 법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자신을 조절하여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

회교도(回教徒)들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대교 인들은 더더욱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객관적이며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할 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지 않았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객관적이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들은 밖에 있는 문자의 가르침이나 계명을 따라 그들 밖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적인 생명 안에서 그들의 사신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문자의 교리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서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낸 기능이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조절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 하나님은 이 법 곧 그분의 이 운행하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이 생명의 법 안에서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언제든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며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조절할 때 우리의 봉사는 생명의 봉사요 영적인 봉사이며 산 봉사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교리적이거나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고 실제적이시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생명의 체험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여러 활동들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시며 우리가 만지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앙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또한 규율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살아 있는 생명의 법과 생명의 기능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조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단지 교리나 신앙 안의 하나님이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대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의 바퀴를 돌림으로 다시 우리 안에서 조절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그분의 생명의 바퀴의 기능은 또다시 나타나고 그분의 생명의 법도 우리 안에서 움직이며 조절하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 이럴 때 그분은 다시 실제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다. 그분은 더 이상 하나의 이름이나 교리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두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조절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조절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며 우리도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조절하여 그분이 그분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하나님은 왜 반드시 그분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며 우리도 왜 그분의 생명의 법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살아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조절할 때 그분의 생명의 법은 그분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며 또한 우리를 그분께 이끈다. 바로 그분의 생명의 법의 일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얻을 수 있으며 그분도 비로소 우리를 얻을 수 있다. 언제든지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조절하지 않을 때에는,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산 백성이 되는 살아 있는 관계도 멈추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조절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오직 그럴 때만이 우리는 분명하고도 산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소유할 수 있고 우리도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높은 보좌 위에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한 규례들을 따라 그분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규례들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며, 이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도 이 생명의 법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X. 결론

생명의 법에 관한 각 방면의 요점을 본 이후에 우리는 생명의 법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체험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에서 언급한 각 항목의 요점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해해야만 생명의 참된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점을 깊이 새기기 위해 다시 한 번 요약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기 바란다.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유기적으로 완전할 뿐 성장과 성숙의 완전함은 없었다. 우리가 완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목표에 이르려면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 생명의 일은 생명의 자연적인 기능과 특성인 생명의 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 생명의 법이 생명의 내용을 우리로부터 조절하여 나타내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의 이 생명의 법의 일은 우리 마음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마음이 협력할 때 이 생명의 법은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에게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에 의해 그 느낌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법에게 우리를 조절할 기회를 또 다시 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 법은 우리에게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우리가 그 느낌에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한다.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할수록 생명의 법에게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인과(相互因果) 관계가 우리 속에서 계속 순환될 때 결국 이 생명 안에 포함된 죽음과 부활의 두 요소의 기능이 끝없이 나타나게 된다. 죽음의 기능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제해 버리고, 부활의 기능은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더하신다. 또한 이 법의 일과 죽음과 부활의 두 가지 기능은 능력이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것을 살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며 성숙된다.

동시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속 우리를 조절할 때, 우리

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쉬우며 또한 살아 있고 신선하게 된다. 이 살아 있는 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도 그분의 산 백성이 된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전적으로 이 생명의 법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제 11 장 내적 인식

이제 우리는 생명에 관한 열한 번째 큰 요점인 내적 인식, 곧 우리 안의 생명의 법과 기쁨 바름의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보기로 한다.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만큼 하나님을 얻고 그분을 생명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적 인식은 생명의 사람과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의 사람을 가지려면 내적 인식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I. 하나님을 인식함의 중요성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알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힘을 다하여 그분을 추구하며 알라고 말씀하셨다(호 6:6, 3). 신약에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히 8:10-11).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적으로 그분을 인식하는 역량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한 인식은 한 면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람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또 한 면으로는 우리 안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랄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알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며 그분을 더 많이 살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다.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참으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엡 1:17), 우리를 “하나님을 앎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시기를”(골 1:10 하, 원문 참조) 바란다.

II. 하나님에 대한 세 단계의 인식

시편 103편 7절은 “그 법칙을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인식한 것은 하나님의 행사이고 모세가 인식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임을 말해 준다. 히브리서 8장 10절과 11절은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고 …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고 말한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신약에서 내적인 법을 얻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이 두 성경 구절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 준다.

A. 첫째 단계—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함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수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기 위해 그들에게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전하게 걸어가도록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을 보았으며, 광야에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신 것과 그들을 먹이기 위해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과 기사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행사를 알았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 곧 오병이어(五餅二魚)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것과,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과,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은 기적과 기사들을 봄으로써 주님의 행사를 인식했다. 또는 우리가 병중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것이나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나, 궁핍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의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얇고 외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B. 둘째 단계—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함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을 아는 것을 가리킨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에 어긋나는 것을 결코 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그분께 간구하였다(창 18:23-32).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알았던 것이다. 고라당이 배역으로 멸망당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원망할 때, 모세는 여호와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염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민 16:46)고 말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칙, 곧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알았음을 보여 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라고 말한 것과 다윗이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삼하 24:24)고 말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해방할 때 그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할 것임을 깊이 믿는다(사 55:10-11). 또한 우리가 그 영을 위하여 뿌리면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을 안다(갈 6:8).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단계의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는 것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행사가 수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기도할 때 믿음이 증가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아직 충분히 깊고 내적인 것은 아니다.

C. 셋째 단계—하나님 자신을 인식함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본성도 갖게 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만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만지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행사와 법칙을 인식하는 앞의 두 단계의 인식과는 달리 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난치병을 앓는 어느 형제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다면 그는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나를 돌아 보셨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형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약간의 인식을 갖게 된다. 후에 그는 또 병을 앓았다. 이번에 그는 병든 원인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처리하였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처리한 후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실 것을 알았고(고전 11:30-32), 하나님은 진실로 그를 치료하셨다. 그 형제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는 데서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하는 데로 진보하였지만, 외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들을 가졌을 뿐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후에 그 형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자신에게 있다고 내면에서 느낀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처리하여 제거한다. 그의 이런 느낌과 인식은 밖의 어떤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준 인식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그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어느 형제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되었다. 후에 그가 어려움을 다시 만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는 자신 안에 기묘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느낀다. 이러한 느낌과 인식은 밖에서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보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을 인식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짐으로 생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내적인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행사와 법칙만을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두 단계의 인식만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행사와 법칙을 인식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안에서 친히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 자신을 직접 만지고 내면에서 그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새 언약 아래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이다.

III. 하나님에 대한 두 종류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상 외적인 인식과 내적인 인식의 두 종류 인식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은 다 외적인 인식이다. 이 두 단계의 인식은 깊이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나 모두 외적인 하나님의 행사나 법칙에서 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 인식은 모두 객관적이고 외적인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내면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종류의 인식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하나님 자신을 만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주관적이고 내적인 방식으로 인식할 때 생기는 것이다.

성경 원문에서는 내적인 인식과 외적인 인식을 묘사하기 위해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 히브리서 8장 11절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는데,

원문에서는 의미가 다른 두 개의 단어이다. 첫 번째 ‘알다’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한 일반적이고 외적인 앎을 가리킨다. 두 번째 ‘알다’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은 내적인 감각의 앎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인식과 내적인 인식이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희고 고운 설탕과 희고 고운 소금을 나란히 두었다 하자. 겉의 외양을 보아서는 모두 희고 곱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설탕이고 어떤 것이 소금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느 것이 소금이고 어느 것이 설탕인지를 물어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에서 온 것으로서 외적이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이다. 또한 그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맛본다면 단 것은 설탕이고 짠 것은 소금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내적인 감각에서 온 것으로서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맛볼 때마다 즐거움과 달콤함을 갖는다. 이것은 외적인 하나님의 행사나 법칙에 의해 하나님을 앎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는 분이심을 감사하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는 또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도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 ‘맛봄’을 통해 우리는 내적인 인식을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맛볼’ 때, 우리는 내적인 감각에서 온 분명하고 정확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참으로 이것은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IV. 내적 인식

신약 성경 안에는 내적 인식에 관해 아주 분명히 말해 주는 네 개의 구절이 있다. 처음 두 절은 히브리서 8장 11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이다. 이 두 구절은 모두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 없이도 내적으로 하나님

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말한다. 히브리서 8장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연적인 기능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하고, 요한일서 2장은 성령의 계시하는 움직이심인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 생명의 법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두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에베소서 1장 17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가 내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네 군데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생명의 법과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온 기름 바름의 가르침, 이 두 가지 수단에 의해 하나님을 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두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도 두 방면이 있다. 생명의 법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인 하나님의 본성을 알도록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기능을 발휘하여 생명의 특성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은 자연히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한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한다. 왜냐하면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하나님 자신의 체현(體現)이신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바르고 일하실 때 그분은 항상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바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식하도록 하신다.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자신을 내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내적 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V.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 두 방면의 인식을 보여 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셨다. 이 인식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구약의 특징은 율법과 선지자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두 가지 수단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분을 알게 하셨다.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 방면에서 인식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이끌어 그분의 본성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금지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 예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므로 그들에게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므로 그들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유형은 하나님의 본성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 전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말해 주고 있다. 어떤 조항은 하나님의 광명을 말해 주고, 또 다른 조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말해 주며, 또 다른 조항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준다. 하나님은 요구하고 금지하는 율법의 각 조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본성의 모든 방면을 알도록 그들을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그분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인 그분의 인격을 대표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좇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시와 인도였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다(신 18:15).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의 건축에 관하여 한 말은 하나님께서 회막 건축에 관하여 그들에게 주신 계시였다. 모세가 광야

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간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각종 계시와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분 자신인 그분의 인격을 알게 하셨다.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특성이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다.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것들은 개정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으로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람이나 일이나 시간과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율법이 바뀌지는 않는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이 규정들을 기꺼이 받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며 변치 않는 본성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생활 방식과 특성과 취향까지도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게 된다.

또 다른 면에서 선지자는 특정한 때에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해 냈기 때문에 선지자의 활동은 고정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을 좇아 행하시고 그분 자신은 유동적이고 결코 제한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사람에게 이런 때에는 이런 계시를, 저런 때는 저런 계시를 줄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런 인도를 주고 저기에서는 저런 인도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율법이 사람에게 준 규정은 변하지 않고 제한된 것이지만 선지자가 사람에게 준 계시와 인도는 유동적이고 제한이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계시와 인도를 기꺼이 따를 때면,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그 순간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전쟁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에 부합될 수 있었다.

VI.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것은 모두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가진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내적 인식을 갖도록 하셨다. 그분의 생명에서 나온 생명의 법은 구약의 율법을 대치하여 우리가 내면에서 그분의 본성을 알도록 하였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치하였고 우리가 내면에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을 알도록 하였다.

A.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은 생명의 자연적인 특성과 기능이며, 이 생명의 특성은 생명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그 기능을 나타내며 우리를 조절할 때 항상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은 밖의 지식의 가르침을 요구하지 않으며 율법과 규례의 규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내적인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준 자연스러운 의식에 의하여 생긴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아기의 입에 식초를 넣는다면 그 아기는 그것을 뱉을 것이다. 그러나 설탕을 그 입에 넣으면 아기는 삼킬 것이다. 신맛과 단맛을 구별하는 아기의 능력은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연적인 기능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갖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사람은 죄를 범하기 싫어한다. 이것은 그가 죄의 형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본성이, 죄는 지긋지긋하고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그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은 양심의 정죄보다 더욱 깊은 것이다. 우리는 죄를 혐오하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알게 된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우리가 …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고전 4:11-13)라고 말한 것과 같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가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본성을 만졌다. 즉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되었다.

거룩함과 사랑과 성실함과 빛 등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장소가 변해도 항상 변함없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법의 특성도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이 운행할 때마다 우리가 만지게 되는 하나님의 본성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늘 영원히 변함없다.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의 이전 생활 방식과 특성과 취향이 하나님의 본성과 부합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외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본성과 부합되도록 요구하는 외적 규율인 구약의 문자의 법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내적인 생명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본성 안으로 연합시키는 신약의 생명의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은 이 법에 의해 하나님의 본성의 요소를 담게 되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같아지게 된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본성도 똑같이 사랑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과거 처럼 어둡고 더러운 일을 하려 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것을 원하기만 해도 우리 안의 생명의 법은 우리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불안하게 느끼도록 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밝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되는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내적으로 생명과 평강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본성과 부합되도록 변하게 된다.

B. 기름 바름의 가르침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오직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만 언급되었다. 우리는 모두 ‘기름 바름(anointing)’이 동명사로서 관유의 활동, 곧 관유의 움직임과 작용을 가리킨다는 것을 안다.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성취를 볼 때, 성경에서 관유 또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킨다(사 61:1, 눅 4:18). 관유 또는 기름이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므로 ‘기름 바름’은 분명히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관유를 바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일을 ‘기름 바름’이라고 부른다.

기름 바름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일이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며,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의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기름 바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려 주는 것은 우리를 내면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을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라고 부른다.

기름 바름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므로 기름 바름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체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한량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기름 바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특성도 제한될 수 없다.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저런 가르침을 주신다. 이것은 그 특성이 변하지 않고 고정된 그분의 생명의 법과는 다르다. 그분의 생명의 법은 그분의 생명의 고정된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고정된 본성을 만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이 법의 기능도 고정적이다. 그러나 그분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존재에서 온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존재를 만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내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또한 무한한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가르침에 의해 그분의 계시를 얻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더욱 그분의 무한한 존재와 그분의 무한한 뜻을 알게 된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우리의 행위와 행동과 움직임과 선택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다만 밖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관유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바르심으로 우리가 내면에서 하나님 자신을 접촉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요소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된다.

생명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만지도록 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에 따라 우리를 조절한다. 그러나 기름 바름은 우리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인격을 만지도록 하여 우리 안에 그분의 본질을 바른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이 끊임없이 일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생활 방식과 취향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생명의 법은 그러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과 선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름 바

름의 가르침은 그러한 일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느끼시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사러갈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행동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쁨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며 인도한다. 상점에 가서 옷을 살 때 어떤 모양과 색깔을 택하는가는 하나님의 본성의 취향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은 우리가 어떤 모양과 색깔이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는지를 느끼도록 한다. 옷을 사러 가게에 갈지 안 갈지에 관한 인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사러 가야하고 어떤 때는 사러 가지 말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옷의 모양과 색깔에 관련된 취향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 옷을 사러가든지 취향은 똑같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 쌍의 형제자매가 결혼 날짜를 언제로 정할 것인가는 행동에서 인도를 받는 문제로서 하나님의 본성과는 무관하다. 초하루나 보름에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되고 다른 날에 결혼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행동에서 인도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 바름이나 성령의 운행하심이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장소를 어떻게 장식하며 어떻게 집회를 안배해야 하며 특성과 취향과 방식이 하나님의 본성에 맞고 성도에게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다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쁨 바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조절하는 것이다.

C. 양자의 관계

생명의 법과 기쁨 바름의 가르침이 다르고 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서로 긴밀한 인과(因果)관계를 가지며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지난 과에서 본 바와 같이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에 있고 하나님의 영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법은 '생명의 영의 법'(롬 8:2)이라고 부르며 또한 성령의 법이기도 하다. 비록 이 법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있지만 성령에 의해 집행되는데, 성령의 이 움직이심이 바로 기쁨 바름이다. 그러므로 이 법의 기능은 반드시 기쁨 바름과 함께 나타

난다. 언제든지 기름 바름이 멈출 때 이 법의 기능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기름 바름과 생명의 법의 기능이 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나눌 수 없는 것임을 알려 준다.

더 나아가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생명의 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계된다. 생명의 법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기능이므로 우리 안에서 이 법이 하는 일은 다 생명의 느낌에 속한 것이다. 이 생명의 법에 의해 우리의 깊은 속에는 재촉하거나 금지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이 있을 뿐 그 느낌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 느낌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오직 기름 바름이 우리를 가르칠 때만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준 느낌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설탕과 소금을 처음 맛본 어린아이는 그의 속에 있는 생명의 자연스런 기능으로 단맛과 짠맛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겠지만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후에 어머니가 그에게 단 것은 설탕이고 짠 것은 소금이라고 알려 줄 때 그는 양자의 맛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가 무엇인가도 알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어떤 형제가 다시 영화 구경을 가거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그것들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본성은 그가 그런 일들을 버릴 때까지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도록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그에게 알려 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할 때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여전히 왜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는지 알지 못한다. 기름 바름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본성과 맞지 않음을 그에게 알려 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불편함을 느낀 원인을 알게 된다. 이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내적인 감각이 그에게 준 의식이 있을 뿐 아니라 그를 깨닫게 하는 기름 바름의 가르침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의 기능이 기름 바름에 의해 나타날 뿐 아니라 생명의 법의 느낌의 의미도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통하여 계시된다.

또 다른 면에서 생명의 법의 운행하심은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계된다. 우리는 체험으로부터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생명의 성장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생명이 자란 만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

한 설탕과 소금을 맛본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 어머니가 그에게 단 것은 설탕이고 짠 것은 소금이라고 알려 줄지라도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의 생명이 어느 수준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가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생명이 충분히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더 많이 이해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생명이 더 많이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의 성장은 생명의 법의 운행하심에서 비롯된다.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운행할수록 생명은 더 많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의 운행하심은 우리가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더 많이 이해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서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고 충만히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내적 인식을 갈수록 증가시킨다.

D. 양자의 비교

우리는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르고 또 서로 어떻게 관련되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 양자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볼 것이다.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연스러운 기능이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 자신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세 종류의 인식을 준다.

첫째,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만짐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도하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인도하심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고 특별한 인도하심은 주님의 일의 계획을 위한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옷을 사러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어느 날 결혼식을 가져야 하는가 등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일반적인 인도하심이다.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형제가 중국 내륙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느낀 것은 주님의 일에서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다.

셋째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에 관한 계시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또한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계시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것 등과 같이 우리 사람의 행실에 관한 것을 보는 것이다. 특별한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골 2:2)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기능(엡 1:23) 등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요점들을 본 후에 우리는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인 인식이 참으로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인식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포함하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고 충만하며 철저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

VII. 성경의 입증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인 느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그러나 이 내적인 느낌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원칙과 맞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만당하지 않고 극단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정확하며 온당할 수 있다.

내적인 의식이 우리 영 안의 생명의 법으로부터 나온 것이든 기름 바름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든 성경의 진리와 일치해야 한다. 만일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의식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생명의 법이나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

다. 내적 의식은 살아 있는 것이지만 성경의 진리는 정확하고 온당하다. 성경의 진리만 있을 때에는 살아 있지 않고 정확하고 온당하기만 하다. 그러나 내적인 느낌만 있다면 살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는 마치 기차가 앞으로 가려면 속에 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밖에 철로가 필요한 것과 같다. 물론 밖에 철로만 있고 속에 능력이 없다면 기차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속에 능력만 있고 밖에 철로가 없다면 움직일 수는 있어도 반드시 사고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산 느낌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밖에 정확한 진리가 필요하다. 우리 속의 산 느낌은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고, 밖의 정확한 진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그 원칙의 빛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걷고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대낮과 같고 정오와 같이 밝으며 내적인 느낌이 분명하고 정확할 때에, 우리는 구름 기둥으로 예표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두운 밤과 같이 희미하고 우리 속은 한밤중 같이 어둡고 내적인 느낌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 그때 우리에게는 불기둥으로 예표된 성경이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안전한 길을 걸으려면 모든 인식과 인도와 계시를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균형 잡힐 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VIII. 밖의 ‘가르침’

성경은 한 면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만 있으면 사람의 가르침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또 한 면으로는 여러 곳에서 사람의 가르침을 언급한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14장 19절, 디모데전서 2장 7절과 3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24절 등의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또

그들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배우기 원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생명의 법과 기쁨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준 내적 느낌은 사람의 가르침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러한 느낌을 듣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더욱 연약하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듣지 않고 어떤 때에는 듣기를 싫어한다. 생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주관적인 사람과 자신의 의견을 붙잡는 사람과 고의로 자신을 닫아 놓는 사람은 늘 듣지 못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늘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듣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생명이 조절하지 않거나 관유가 발라지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다. 욥기 33장 14절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라고 말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욥보다 더 심하여 하나님께서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분은 관용하시며 참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밖에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신다.

신약 안에는 많은 가르침이 이 원칙에 따라 반복된다. 서신서에는 “... 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듣고 알았지만 그것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을 다시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나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대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가르친 것을 반복하시는 것이다. 밖의 인도와 안의 가르침은 서로 돕는 것이지만 밖의 인도는 안의 가르침을 대치할 수 없고 단지 안의 가르침을 반복하여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일에서 사람을 도울 때 십계명을 주어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정하신 것을 설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며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이미 가르치신 것을 반복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세부적으로 이것저것을 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신약에는 세부적인 방면의 일들을 결정해 주는, 개개인을 위한 선지자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정하신 것을 설명해 주는, 교회를 위한 선지자들 밖에 없다. 하나님은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의해 세부적인 일에 관한 해답을 각 사람에게 알려 주신다. 이것이 신약의 원칙이다. 비록 우리는 겸손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의 생명의 법이 조절한 것이나 기름 바름이 이미 가르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약의 원칙과 일치되지 않게 된다.

2.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식과 가르침은 모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밖으로부터 합당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이 우리 영 안에 준 느낌과 가르침을 우리의 생각이 깨닫기 어렵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준 느낌과 가르침을 우리의 생각이 이해하려면 밖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밖의 이런 가르침을 받을수록 우리의 생각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에서 나온 의식과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밖의 이런 가르침을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생각은 우리 안의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이 우리에게 준 의식과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또한 우리가 밖의 이런 가르침을 더 많이 받을수록, 이것은 우리의 영이 더 자라도록 돕기 때문에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에게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더 깊은 느낌과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입지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서 의식과 가르침을 주지만 여전히 밖에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 준 의식과 가르침을 대

치할 수 없을 뿐더러 대치해서도 안 되며, 다만 우리가 내적인 느낌과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하거나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이 우리에게 더 깊은 느낌과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밖의 사람의 가르침은 반드시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 준 느낌과 가르침으로부터 '아멘'이라는 메아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신약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안팎에서 온 가르침과 인도는 서로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반응하는 것이다.

3.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관한 진리와 영적 생명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다. 우리에게서 내적인 기름 바름과 생명의 법에서 오는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하지만 자주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가르침이 없으면 내면에서 오는 주관적인 인식을 갖지 못한다. 물론 신약에서는 밖의 객관적인 가르침이 안의 주관적인 인식을 대치할 수 없다. 그러나 자주 안의 주관적인 인식은 밖의 객관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생겨난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원인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안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을 통해 내면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경외해야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밖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속에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갖고 있다 하여 밖의 사람의 가르침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게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내면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밖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IX. 영 안에서 인식함과 생각 안에서 이해함

A. 영 안에서 인식함

내적인 인식은 생명의 법과 기쁨 바른인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고 이 둘은 모두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내적 인식은 분명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인식에서 우리의 영의 양심 부분이 결정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모두는 우리의 영의 직감 부분이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적인 인식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영의 직감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람의 몸과 혼에는 다 감각이 있다. 예를 들어, 몸에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등이 있고 혼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각이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도 양심의 감각과 직감의 감각이 있다. 양심의 감각은 옳고 그름 때문에 작용하고 직감의 감각은 어떤 이유 없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성경은 우리의 영이 '원할 수 있고'(마 26:41),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고'(막 2:8), 깊이 '탄식할 수 있고'(막 8:12), '결심할 수 있고'(행 19:21), '분내고, 열심을 내고, 신선하게' 될 수 있다고(행 17:16, 18:25, 고후 7:13) 말한다(이상의 성경 구절의 '마음'은 원문에서는 다 '영'이다). 이것들은 모두 영 안의 직감의 감각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직감은 혼만큼 많은 감각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영의 직감은 혼의 감각과 차이가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혼의 감각은 어떤 원인 때문에 비롯되지만 영의 직감은 원인 없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혼의 감각의 원인은 다만 사람과 일과 외적인 사물에서 온 것이다. 그 원인이 사람이건 일이건 사물이건 우리가 혼적인 의식을 갖도록 한다. 만일 그것이 기쁜 것이면 우리는 행복해하고 슬픈 것이면 근심한다. 외적인 영향으로 인한 혼의 감각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 반면에 영의 직감에는 이유가 없다. 이것은 영의 직감은 어떤 매개체 없이 직접 영의 깊은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의 직감은 밖의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혼의 감각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영의 직감은 자주 혼의 감각과 상반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자. 그것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우리의 마음도 매우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상태는 매우 무겁고 답답하다. 우리는 왜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러한지 알지 못한다. 마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각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감정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다. 이런 의식이 곧 영의 직감의 금지함이다. 또 어떤 일은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애호와도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 안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움직임을 느낀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나면 즉시 속에서 아주 편안하다고 느낀다. 이런 의식은 곧 영 안에 있는 직감의 재촉함이다.

이런 영 안의 금지함이나 재촉함은 이유가 없이 발생한다. 이것은 생명의 법의 일과 기쁨 바름으로 인해 생기는 더 깊은 감각이다. 이러한 감각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지고 그분을 알며 그분의 뜻을 알게 된다. 영의 직감 안에서 이렇게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이다. 그러므로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의 실재를 보여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인식이며 또한 우리가 말해 왔던 내적 인식이다.

B. 생각의 이해

내적 인식은 우리의 영의 직감 안에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 혼의 생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해하고 깨닫는 기관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적 인식은 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생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 안에서 직감으로 인식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이해가 그것에 추가되어야 한다. 생각의 이해는 영의 직감을 생각이 해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영 안에 직감적인 의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관련된 사람과 일과 사물들을 가져와서 영의 직감적인 의식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이 반항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깊은 속에 있는 직감 안에서 어떤 부담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영 안에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는지 형제를 심방하도록 인도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형제를 심방해야 한다면 어떤 형제를 심방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은 생각의 이해를 요구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내적인 직감으로 점검해야 한다. 형제를 심방하는 일을 생각할 때 속에 반향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제를 심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다시 심방해야 할 형제들을 한 명씩 생각하면서 영 안의 직감으로 점검한다. 궁핍한 형제에 관해 점검해 볼 때 영 안에 반응이 없을 수 있다. 병든 형제에 관해 점검해 볼 때 또 반응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한 형제를 생각할 때 영 안의 직감이 반응한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전 존재의 중심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만일 우리가 그 느낌이 틀릴까 염려한다면 심방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형제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만일 영이 그 모든 형제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를 심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영 안에서 인식한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는 영 안의 의식을 생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것을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부담과 느낌을 갖게 된다. 이 부담이 곧 직감 안에서의 인식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당신이 한 메시지 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며 당신의 영 안에 있는 부담으로 그것을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당신이 ‘육체의 처리’의 문제를 점검할 때 영이 반응한다면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주제에 관하여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곧 생각의 이해이다. 이같이 영 안의 직감의 부담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 주고, 혼 안의 생각의 이해를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주일이 되면 당신은 전례대로 얼마의 헌금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영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특별한 헌금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부담과 느낌이 생긴다. 그때 당신은 얼마 정도의 헌금을 어떤 일을 위해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를 생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당신은 직감 안에 하나님의 부담을 가질 뿐 아니라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내적 인식이다.

이런 방법은 아주 우둔한 것 같지만 영 안의 의식을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식으로 해야 한다.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능숙하게 되면 영 안의 의식이나 인식이 생기자마자 생각이 즉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

X. 내적 인식을 얻는 길

우리는 내적 인식의 각 방면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실행적인 문제인 내적 인식을 얻는 길에 대해 말하겠다. 내적 인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영을 훈련하고 이해를 새롭게 하며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A. 영을 훈련함

내적 인식은 우리 영의 직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려면 우리의 영을 늘 훈련하고 영을 사용하여 살아 있고 강하게 해야 한다. 오직 영이 살아 있고 강할 때만이 영의 직감이 의식하고 깨어 있어 우리가 내면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영을 훈련하려면 첫째로 영으로 돌이키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계속 걸 사람 안에서 산다면 영의 직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밖의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밖에서 분주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생각이 분주하게 돌아다녀서도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항상 영 안의 움직임을 주의하고 깊은 속의 의식을 주의해야 한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실제로 만지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을 훈련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람을 대하든, 일을 처리하든, 물건을 접하든, 집회에서 주님을 섬기거나 말씀을 공급하든,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 사업을 경영할 때일지라도 모든 일에서 혼을 거절하고 영이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앞장서도록 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가장 먼저 깊은 영 안의 의식을 접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기를 계속한다면 영 안의 의식은 분명 깨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내적인 인식은 쉽게 풍성해지고 깊어질 것이다.

영을 훈련하는 최상의 실행은 기도이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기도는 영을 사용하기를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한담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항상 무력해져 있다. 만일 시편 기자(記者)가 하루에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시 119:164)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한 시간이나 그 이상 동안 간구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경배하고 교통하고 찬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 기도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영은 반드시 자라고 강해질 것이다. 권투를 연습하는 사람이 매일 한 시간씩 훈련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 그의 주먹은 아주 강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매일 영을 사용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영은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영이 강해질 때 직감도 분명히 예민해지게 되고, 우리는 예민해진 이 직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갖게 된다.

B. 이해를 새롭게 함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내적 인식에는 영 안에서의 앎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생각의 이해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적 인식을 가지려면 영을 훈련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 생각의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한다. 생각은 사물을 이해하는 기관이고 이해하는 것은 생각의 주된 능력이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해를 담고 있는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원문 참조). 골로새서 1장 9절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인식

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원문 참조). 그러므로 생각의 이해가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전 존재가 타락했고 우리의 생각도 타락하여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창 6:5) 아니라 사물에 대한 모든 생각과 관점에는 세상 냄새가 가득했다.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는 혼미케 되어 영적인 일들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었다(딤후 3:5).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이 일은 우리가 영에 속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영 안에서 시작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혼으로 확산되어 우리의 생각의 이해를 새롭게 한다. 우리의 생각의 이해가 성령에 의해 더 많이 새롭게 될수록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

비록 생각의 이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생각의 이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근거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참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새롭게 하는 일을 우리의 혼 안에까지 확대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이해를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십자가의 처리를 받음으로 과거의 옛 생활을 제해 버려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은 우리가 이전 생활 방식의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비로소 이해가 속한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과거의 옛 생활이 우리 생각의 이해를 혼미케 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옛 생활을 벗어 버렸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전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죽이고 제하도록 허락했다. 단지 그럴 때만 우리의 생각의 이해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옛 생활을 제하도록 허락한 정도만큼 우리의 생각의 이해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은 혼의 일부이다. 원래 생각은 영과 무관했으나 이제는 영이 ‘생각의 영’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영은 생각과 관계있게 되었다. 이것은 영이 확장되어 우리의 혼에 미치므로 우리가 이 영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영에 연결됨으로 새롭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새롭게 됨은 영이 혼으로 확장됨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중심에서 둘레로, 곧 안의 영에서 밖의 혼으로 이르는 것이다. 성령은 먼저 우리의 내적 존재의 중심인 영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고 십자가의 처리를 받는다면 그분은 우리 영에서 밖의 둘레인 혼 안으로 확장되신다. 이것이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혼이 성령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우리의 영과 연합될 때,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고 생각의 이해 또한 새롭게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에 의해 거듭나게 된 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옛 생활을 제하는 성령의 처리를 받아들일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 혼안의 생각의 이해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단지 이렇게 새롭게 된 이해만이 영안의 직감에 적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직감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 주실 때 생각의 이해는 즉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강하고 예민한 영에 더하여 새롭게 되어 청명(淸明)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모든 인도와 계시에 대한 내적인 인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C. 마음을 다룸

마음은 사람의 총체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속의 영과 생명의 모든 활동도 다 방해와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영이 예민하도록 훈련되고 생각도 새롭게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 인식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청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마음 속으로 스스로 옳다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다. '어린아이'는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하며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될 때까지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겸손하고 부드럽게 될 때까지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서 자기 만족과 강박함이 제해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내적인 계시와 인식을 얻을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은 "마음이 순수한 자는 ...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여 하나님 외의 다른 기호와 갈망을 가진다면 우리 속에 수건이 있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면 그 수건은 벗어진다(고후 3:16).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약 4:8). 그럴 때 우리는 영 안에서 빛과 계시를 받고 생각 안에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 나도 ...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날 아침에 갈급히 주님을 사랑하고 찾았으므로 주님은 부활 후 제자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고, 그녀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아는 사람이 되었다(요 20장). 로렌스(Lawrence) 형제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해야 한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원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말한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식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꺼이 순종할 정도로 처리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생기는 의식과 인식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1) 영이 강하고 예민하도록 영을 훈련하고 사용해야 하고 (2) 그 영에 의해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하며 (3)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결론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알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을 알도록 수많은 방법과 수단을 주셨다. 구약 시대에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행사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법칙을 선포하시어 그분을 알도록 하셨다. 그러한 행사와 법칙들을 통해 사람들이 얻은 그분에 대한 모든 인식은 외면적이고 객관적인 것에 불과했고 피상적이고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행사와 법칙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면적이고 주관적이며 깊고 완전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의 법을 두셨고, 이 법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조절하여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본성을 알도록 한다. 이 생명의 법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고 변하지 않으며 고정적이다. 이 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변함없이 계속 우리를 조절하며 그 결과로 우리의 생활 방식과 특성과 취향이 다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게 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관유로서 우리에게 기름 바르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관유는 하나님

자신이기에 때문에 하나의 인격이며 융통성이 있고 무한하다. 우리 안에 있는 관유는 무한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계속 바르시며, 그 결과로 결국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의 행함과 행동이 하나님의 요소로 가득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된다.

생명의 법과 기쁨 바름이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혼으로 확장하시어 우리의 생각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직감이 예민해지도록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생각의 이해가 청명해지도록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순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마음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생명의 법과 기쁨 바름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우리 영 안의 직감은 그것을 즉시 알게 되고 생각의 이해도 즉시 깨달으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내적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내적 인식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점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을 밖에 주셨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밖에 있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가 내면에서 느낀 의식을 다시 가르쳐 반복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있는 의식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들과 영적인 생명의 기본적인 인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우리에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과 수단이 이렇게 많으므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이해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 관한 충만한 인식에 의해 자랄 수 있다”(골 1:9-10, 원문참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며 성숙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더 자랄 것이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완전히 점유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요소는 우리 안으로 완전히 역사되어 들어올 것이고, 따라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의 영광스러운 목표는 성취될 것이다.

제 12 장

생명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생명의 인식에 관한 열두 번째 큰 요점인 '생명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를 볼 것이다. 생명에 대하여 한 걸음 전진된 인식을 가지려면 우리는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참된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잘못 추구해 왔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서 참된 생명의 성장이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제 우리는 생명의 길 안에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올바르게 추구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들여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볼 것이다.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생명의 성장이 아닌가를 보기로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인상과 더 정확한 인식을 줄 것이다.

I. 생명의 성장은 행위의 개선이 아님

행위의 개선은 바로 사람의 나쁜 행실을 좋은 행실로, 악한 행실을 선한 행실로 고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개과천선(改過遷善)'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에 교만했던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고, 항상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게 되고, 전에 조급해하며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 조급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행위의 개선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의 행위가 개선되는 것이 생명의 성장인가? 아니다.

왜 행위의 개선이 생명의 성장이 아닌가? 그것은 행위와 생명은 절대적으로 다른 두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악이 생명 밖에 있는 것 이듯 선도 생명 밖에 있는 것이다. 악이 생명이 아니듯이 선도 생명이 아니다. 선과 악은 성질이 다른 것이지만 다 같은 영역에 속한 것이고, 생명 밖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 생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선과 악은 두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이다. 생명은 다른 그루의 나무이고 다른 영역에 속한 것이며 다른 왕국에 속한 것이다. 생명과 선악(善惡)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결심과 노력으로 행위를 상당히 개선했다라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극히 어리고 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개선이 완전히 생명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자신의 행위에 속한 것이지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그가 개선한 것은 그가 생명 안에서 성장한 결과가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은 행위의 개선이 아니다.

II. 생명의 성장은 경건의 표현이 아님

경건의 표현이란 무엇인가? 경건의 표현은 행위의 개선과는 다르다. 행위의 개선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사람 앞에서 전보다 행위가 좋아지는 것이다. 경건의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경건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의 개선이나 경건의 표현도 모두 생명의 성장이 아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진지하고 행위나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생명의 자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만 하나님을 높은 곳에 계시며 존경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표현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사람의 생명으로 거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생명의 법이 작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사람에게 하나님 되시는지를 조금도 알지 못하고 조금도 체험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들에게 경건의 표현이 있지만 그 표현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표현이 그들 안에 생

명의 성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같이 생명의 성장은 경건의 표현도 아니다.

Ⅲ. 생명의 성장은 열심 있는 봉사가 아님

열심 있는 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이가 본래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아주 냉담했다가 이제는 열심을 내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원래 집회를 자주 참석하지 않다가 이제는 모든 집회를 참석하며, 원래 교회를 관심하지 않다가 이제 교회의 각종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열심 있는 봉사는 주님을 향한 믿는 이의 뜨거움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의 근면함을 보여 주고 또 종종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열심에는 사람의 흥분과 분주함과 흥미가 섞여 있을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봉사는 사람의 혼적인 힘을 좇아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 것일 경우가 많고 그 영의 인도하심에서 온 것이 아닐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한 것이 아니며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도록 돕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심 있는 봉사도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생명의 성장이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볼 수 있다(행 22:3). 그때 그는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 밖으로는 자기의 흥분과 능력에 의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과 조금도 관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Ⅳ. 생명의 성장은 지식의 증가가 아님

믿는 이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더 많은 성경을 이해하고, 더 많은 영적 용어를 이해함으로 그의 영적인 지식이 증가하는 것은 일종의 성장이지만 생명의 성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의 증가는 다만 그의 생각이 더 발전되고 더 많은 것을 알도록

하며 그의 머리가 더 많은 이해력을 갖도록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믿는 이 안에 더 큰 계시를 주시거나, 생명이 믿는 이 안에서 더 많은 입지를 얻음으로 그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인식과 체험 안에서 자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단지 지식만 증가하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고전 8:1)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고전 13:2) 생명에 관하여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은 지식의 증가도 아니다.

V. 생명의 성장은 은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님

믿는 이가 말씀을 전하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방언을 할 수 있는 것 등의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귀하지만 역시 그것도 생명의 성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들은 단지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이 그 사람 위에 임할 때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 그 안의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사용되는 어떤 사람이 많은 은사들을 나타낼 수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역사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은사가 많아지는 것이 반드시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모든 구변과 지식에서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지만(고전 1:5, 7), 생명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주 어렸고 육체에 속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다(고전 3:1).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은 은사가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아님을 보여 준다.

VI. 생명의 성장은 능력의 증가가 아님

믿는 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전보다 더 능력이 있고,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할 때 전보다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교회를 인도하고 사무를 처리할 때 전보다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능력의 증가이나 여전히 생명의 성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의 증가는 성령께서 그에게 입혀 주신 외적인 능력일 뿐, 성령께서 그의 안에 생

명을 조성하시어 그의 영을 통해 그 안에서부터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생명에 속한 것도 아니다. 이같이 이러한 능력의 증가도 역시 생명의 성장이 아니다.

누가복음 9장은 초기에 주님을 따랐던 열두 제자들이 모든 귀신을 제어했고 각종 병을 치료하는 능력과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얻었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영적 생명의 상태가 아주 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것은 능력의 증가가 꼭 생명의 성장이 아님을 충분히 잘 보여 준다.

이상의 여섯 가지 부정적인 요점에서 볼 때, 생명의 자람은 우리의 행위가 좋게 개선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표현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 있는 봉사나 영적인 지식의 증가나 우리 밖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나, 우리의 일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생명의 성장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생명의 성장의 기준으로 삼는다. 대개 사람들은 믿는 이의 행위의 어머함과 경건의 어머함과 열심과 지식과 은사와 능력의 어머함으로 그 사람의 생명이 자랐는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관념은 정확하지 않다. 노란 구리(銅)는 황금과 매우 비슷하지만 황금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여섯 가지 요점 중에는 다소 생명의 성장과 비슷한 것들이 있으나 생명의 성장은 아니다. 물론 참된 생명의 성장에는 대개 이 여섯 가지 표현들이 있다. 그러나 이 여섯 가지 요점만으로 생명의 성장을 측정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럼 생명의 성장은 대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요소의 증가임

하나님의 요소의 증가는 하나님 자신이 더 많이 우리 안으로 쉬여지고 우리에게 얻어져서 우리의 요소가 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생명이 곧 하나님 자신이며 생명을 체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임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

든 충만하심까지 충만하게 되도록 신격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형상을 이룰 때까지(엡 3:19),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하는 것이다.

II.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신장의 증가임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탄생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을 처음 얻었을 때에는 이 생명은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다. 이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장이 매우 작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추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살고 우리를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그리스도의 신장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자람이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시므로 이 생명의 성장은 곧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이 자라는 것이다.

III. 생명의 성장은 성령의 입지의 확장임

우리는 생명이 다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령임을 말한 적이 있다. 생명의 체험은 곧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자람은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입지를 얻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더 간절히 좇고 기쁨 바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치심을 신실하게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입지를 얻으시고 따라서 우리 안의 생명도 더욱 많이 자라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은 곧 성령의 입지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것이다.

IV. 생명의 성장은 사람의 요소가 감소되는 것임

앞의 세 가지 요점은, 믿는 이 속에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하고 그리

스도의 신장이 자라고 성령의 입지가 확장될 때 생명이 자란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말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 편에서 보기로 하자. 첫째로 생명의 성장은 사람의 요소가 감소되는 것이다. 사람의 요소가 감소되는 것은 사람 속의 아담, 곧 옛 창조가 감소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또한 사람의 냄새가 감소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형제들은 아주 열심이 있고 어느 자매들은 매우 온유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생명이 자란 것 같지만 모두가 사람의 요소와 사람의 냄새로 가득할 뿐 하나님의 요소를 만지거나 하나님의 향기를 맛보도록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느 형제나 자매의 생명이 자랐는가의 여부를 알기 원한다면, 당신은 다만 그의 밖의 행위가 어떠하며 경건함과 열심이 어떠하며 그의 지식과 은사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요소가 여전히 많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사람의 요소의 감소가 곧 하나님의 요소의 증가이다. 어떤 믿는 이에게 생명 안에서의 참된 성장이 있다면, 그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활과 일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은 그가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사람의 냄새가 적은 반면에 하나님의 향기는 많다. 즉 사람의 요소는 감소되고 하나님의 요소는 증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요소의 증가일 뿐 아니라 사람의 요소의 감소이기도 하다.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형제자매들이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십여 년 이상 동안 말씀의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이 점을 계속 말하였지만 형제자매들 안에 이것을 넣어 줄 수는 없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말에 모든 형제자매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전히 행위의 개선과 열심히 봉사하는 것 등을 생명의 성장의 표준으로 삼았다. 한번은 어떤 지방에 갔었는데 그 지방 교회의 몇 책임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곳에 매우 영적이고 생명으로 충만한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거나 걸을 때에 견고하고 또 부드러운데 매우 조용하고 온화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이것을 영적이고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부른다면, 천주교 예배당의 마리아상이 훨씬 더 영적이고 생명

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은 그 자매보다 훨씬 더 온화하고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요함과 온유함에는 사람의 냄새와 사람의 요소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사람이 노력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는 믿는 이의 생명이 어떠한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다만 그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의해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가 표현한 것에 어떤 냄새와 요소가 있는지를 감지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인가, 사람의 냄새인가? 하나님의 요소인가, 사람의 요소인가? 많은 때 우리의 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지만 냄새는 정확하다. 어떤 옷은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옷의 냄새를 맡아보면 더러운 냄새가 그 옷에 가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속의 생명의 상태를 판단하려면 차(茶)의 견본을 조사하듯 그 냄새를 맡아야 한다.

V. 생명의 성장은 천연적인 생명의 파쇄임

믿는 이의 천연적인 생명이 파쇄된 것이 곧 그의 생명이 자랐다는 증거이다. 천연적인 생명의 파쇄란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과 재간과 관점과 방법이 다 성령과 십자가에 의해 처리받아 파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본래 일하고 행동할 때,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교회를 다스릴 때에도 항상 자신의 천연적인 능력과 재간과 관점과 방법을 의지한다.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재간을 의지하여 자신의 관점과 방법에 따라 한다. 후에 그는 십자가의 처리를 받고 환경을 통해 성령의 징계를 받아 그의 천연적인 생명이 어느 정도 파쇄되었다. 지금 그는 주님의 일을 할 때나 교회의 사무적인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의 능력과 재간과 관점과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천연적인 생명이 이렇게 파쇄된 사람은 다시는 그의 천연적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천연적인 생명에 의해 살지 않으며,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은 곧 천연적인 생명의 파쇄이다.

VI. 생명의 성장은 혼의 각 부분이 정복되는 것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우리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는 혼이 정복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생명의 성장은 긍정적인 면에서 성령의 입지의 확장이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혼의 각 부분이 정복되는 것이다. 천연적인 생명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혼을 의존하여 산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혼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세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혼에 의해 산다는 것은 곧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의해 산다는 것이다. 사람은 혼에서 특별히 강하고 두드러진 부분에 의해 살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부분을 사용해서 그 일을 처리한다. 워치만 니 형제님은 이것은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걸다가 벽에 부딪힐 때 코가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돌출한 부분이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것이다. 우리 혼의 상태도 이와 같다. 생각이 특별히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 때 반드시 생각이 먼저 오고, 감정이 특별히 풍성한 사람은 항상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은 반드시 의지가 앞장설 것이다.

십자가의 처리를 충분히 받은 사람은 혼의 각 부분이 정복된 사람이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모두 부서지고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전과 같이 두드러지지 않다. 어떤 일에 마주칠 때 그는 생각을 사용할까 두려워하고, 감정을 사용할까 두려워하며, 의지를 사용할까 두려워한다. 생각이 먼저 나오지 않고 영이 먼저 나온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영이 먼저 움직인다. 의지가 인도하지 않고 영이 인도한다. 이것은 바로 혼이 인도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영이 머리의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혼에 의해 살지 않고 영에 의해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생명 안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은 혼의 각 부분이 정복되는 것이다.

이제 생명의 성장의 열두 가지 요점을 본 우리는, 참된 생명의 성장은 우리 편에서는 감소되고 파쇄되고 정복되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증가되고 자라고 확장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것들은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식이며, 우리가 다른 책 <생명의 체험(상·하)>(한국복음서원 刊)에서 상고한 영적인 체험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모

든 요점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제 13장 생명의 출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인식에 관한 열세 번째 큰 요점인 '생명의 출로(出路)'를 볼 것이다. 생명의 길을 알고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려면 생명의 출로, 곧 생명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나가는가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본과에서 말할 각 요점들은 우리가 앞에서 거의 다 언급한 것이다. 지금은 그것들을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자 한다.

I. 생명이 있는 곳—영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분의 생명은 우리 영 안에 가져와졌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곳은 우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면 이 셋은 하나로 연합되어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한 '생명의 영'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셋—하나인 '생명의 영'이 생명이 있는 곳이다.

II. 생명의 출구—마음

우리는 '생명의 법'이라는 장(章)에서 마음이 생명의 입구와 출구이자 생명의 스위치임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명의 성장은 실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성경에서 마음이 생명의 성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한 곳은 마태복음 13장이다.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은 씨이고 마음은 밭이라고 알려 주셨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곳이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자라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 마음이 올바르고 합당할 때 생명이 자랄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비뚤어질 때 생명은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생명이 우리 속에서부터 자라나길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도록, 즉 단순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울도록 다루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도록 다름을 받으면 마음이 올바르고 합당하게 되어 생명을 자랄 수 있게 한다.

Ⅲ. 생명의 통로

마음이 생명의 출구요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지만, 생명이 마음속에서 자라려면 반드시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네 부분은 생명이 통과하는 곳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이 네 부분과 생명의 자람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A. 양심

생명이 우리 속에서부터 자라날 때 첫째로 통과하는 곳은 우리의 양심이다. 양심은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양심을 처리하는 것은 양심을 거리낌이 없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자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사람에게도 불의했고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거짓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은 시커멓고 거리낌과 구멍으로 가득하며 극히 더러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반드시 양심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자마자 배워야 할 중요한 공과에는 과거의 빛을 배상하는 것과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과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고 허물이 없도록 처리하게 한다. 그 후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연약해져서 죄와 육체에 빠지거나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고 점유될 수 있다. 그때 우리의 양심에는 다시 거리낌과 새는 곳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양심을 항상 거리낌이 없게 유지하려면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양심의 처리가 생명의 성장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언제든지 우리가 양심을 돌아보지 않고 무시할 때면 즉시 생명은 막히고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생명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즉 우리 안의 생명이 출로를 얻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라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양심을 처리해야 한다.

양심을 처리한다는 것은 양심 안의 모든 거리낌과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처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불의하게 되거나 세상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여 거룩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합당하지 않은 어떤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양심은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과 불안함의 느낌을 갖게 한다. 우리가 양심을 처리하기 원한다면 양심 안의 이런 의식들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을 처리하는 것은 곧 양심 안에 있는 이런 의식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철저히 처리할 때 우리의 양심은 청결하고 온당하게 되며 거리낌이 없을 뿐 아니라 참소도 없게 된다. 이럴 때 생명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부터 자라나게 된다.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에서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하려면 종종 양심을 지나치게 처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은 양심이 너무나 예민하게 되고 심지어 연약해질 정도까지 양심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감히 움직이거나 행동할 수 없게 된다. 조금만 움직여도 잘못을 범했다고 느껴지고 조금만 행동해도 불안하게 된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지만 양심을 처리하는 것을 처음 배울 때에는 필요한 것이다.

1935년은 나 개인이 가장 엄격하게 양심을 처리했던 시기였다. 그때

나는 정신병 환자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 누군가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다만 대문 앞에서 있었고 감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다. 응접실에 들어가서도 남이 앉으라고 말하지 않으면 감히 앉지도 못했다. 만일 앉는다면 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한 것이라고 느꼈다.

신문이 놓여 있더라도 남이 보라고 말하지 않으면 감히 보지 못했다. 만일 읽는다면 나는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했다고 느꼈다. 그때 나는 편지 한 통을 쓰려면 항상 서너 번은 써야 했다. 처음 편지를 쓴 후에 그 안에 정확하지 않은 말이 있다고 느끼면 찢어 버리고 다시 썼다. 두 번째로 편지를 쓴 후에 또 어떤 말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면 또 찢어 버리고 다시 썼다. 또 그때에는 감히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든지 너무 많이 말했든지 어떤 잘못을 했다고 느꼈고, 그 잘못을 처리하지 않으면 편안할 수 없었다.

한번은 상해에서 어느 형제와 작은 방에 같이 거했었다. 우리는 세수를 할 때에 물을 방에 가져와야 했다. 그 방은 작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사람의 침대에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나도 그 형제의 침대 위에 물을 흘렸다. 물론 몇 분 후에 물이 말랐기 때문에 사실상 죄로 볼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내 양심은 불안하고 죄를 범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는 그에게 “형제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좀 전에 제가 형제님의 침대 위에 물을 몇 방울 흘렸습니다.”라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렇게 자백한 후에 나의 양심은 또 불안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세 방울을 흘렸는데 몇 방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또 할 수 없이 죄를 자백했다. 오후에 나는 조금 부주의하여 그의 침대 밑의 구두를 밟게 되었고 또다시 나의 양심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다시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이런 죄들을 처리하였다. 결국 그 형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고 나 또한 더 이상 죄를 자백하기가 미안했다. 그러나 또 자백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어느 날 또 그에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죄를 자백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가 또 귀찮아 할까 봐 두려웠고 또 자백하지 않자니 마음이 편치 못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는 산보를 하려했고 나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기회를 붙잡아 그에게 “제가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

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형제는 “가장 나쁜 사람은 잘못을 범하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좋은 사람은 잘못을 범하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는 사람이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은 잘못을 범하고 자백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가장 좋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양심을 참으로 너무 지나치게 처리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었다. 사실상 생명 안에서 참된 성장을 가지려는 사람은 이같이 철저하게 양심을 처리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심을 적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생명이 합당하게 성장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양심이 이같이 엄격하고 철저히 처리될 때 양심의 의식은 갈수록 예민해진다. 이것은 먼지가 가득한 창문의 유리에는 햇빛이 통과할 수 없지만 창문을 조금 닦으면 조금 깨끗해지고 조금 더 닦으면 조금 더 깨끗해져서 빛이 더 많이 통과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양심을 처리하는 것도 이와 같다. 양심은 더 많이 처리될수록 더욱 깨끗하고 밝아지며, 그 의식도 갈수록 예민해진다.

양심이 예민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왜냐하면 예민한 양심은 부드러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마음 안에 있는 예민한 양심은 약간의 의식만 있어도 그것을 즉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예민한 양심이 분명히 부드러운 마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무감각한 양심을 갖고 있다. 사람의 양심이 마비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강박해진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의 양심을 먼저 두드리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를 계속 말하는 것도 사람의 양심을 두드리 그에게 많은 잘못과 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람의 양심이 움직일 때 마음도 움직이게 되며 그때 그 사람은 기꺼이 주님의 구원을 영접하게 된다.

예민하고 거리낌이 없는 양심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우리로부터 생명을 자라나게 한다. 이같이 양심은 생명이 자라나면서 첫 번째로 통과하는 장소이자 생명이 자라나기 위한 출로의 첫

번째 부분이다.

B. 감정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자라날 때 두 번째로 통과하는 곳은 우리의 감정이다. 감정은 사랑의 문제이다.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주님을 불타게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의 문제임을 알고 있다. 좋아할 경우에는 즐거워하고 기꺼이 한다. 싫어할 경우에는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꺼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나려면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기를 좋아하며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즐거이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먼저 우리의 감정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기꺼이 그분과 협력하도록 하신다.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많이 언급했는데 그것은 모두 우리의 감정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이것은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출로를 얻도록 주님께서 그의 감정을 감동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 산 제사로 드리라 … 하나님의 …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언급한 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고 추구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들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출로를 얻으려면 거리낌 없는 양심 외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이나 양심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경계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거리낌이 없는 양심 … 으로 나는 사랑이거늘”(원문 참조)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감정과 마음과 양심을 같이 말했다. 여기에서 바울의 의도는 디모데에게, 사람의 많은 변론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의 목적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순수한 마음과 거리낌 없는 양심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순수한 마음과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야 비로소 사랑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인도할 때 반드시 먼저 그가 그의 마음과 양심을 처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마음과 양심이 처리되어야 감정이 쉽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원하게 된다. 감정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출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감정은 생명이 자라면서 두 번째로 통과하는 장소이자 생명이 자라나기 위한 출로의 두 번째 부분이다.

C. 생각

생명이 자라나면서 세 번째로 통과하는 곳은 우리의 생각이다. 생각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처리하는 것은 생각을 모든 옛 사상(思想)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원문 참조)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주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통과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생각도 생명의 성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온 존재 속에서 새롭게 하는 일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딤후 3:5). 그러므로 생각의 새롭게 됨을 말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 이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많은 부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일은 우리 속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제11장 ‘내적 인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영과 생각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먼저 우리가 영 안의 직감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 있을 후 생각의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

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과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한 쌍의 기관(機關)이다. 영만으로도 부족하고 생각만으로도 부족하다. 반드시 영이 있어야 하고 생각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빛을 발하는 전구에겐 전구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고 필라멘트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두 가지가 협력해야 하는 것과 같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성령은 자연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한 쌍의 기관인 우리의 영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이 단락은 새롭게 됨의 문제를 언급할 때 생각과 영을 함께 묶었고 영을 ‘생각의 영’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의 일이지만 생각 자체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감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사용하여 영의 직감 안에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생각은 반드시 영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영은 반드시 생각과 연결되고 생각에 속해야 한다. 이것은 전구 속의 필라멘트가 전구와 연결되어 있고 전구에 속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의 영을 ‘생각의 영’이라고 불렀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왜 성령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있어서 영은 생각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각의 참된 새롭게 됨은 다 영의 새롭게 됨에서 시작한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 다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다.

우리 생각의 영이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영은 살아 있고 예민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기쁨 바르실 때마다 이 영은 그것을 감지하고 알게 된다. 동시에 우리의 생각도 분명하고 능숙하게 즉시로 영 안에 있는 직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고 고려하던 영과 함께한다.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육신

에 둔 생각이 아니라 영에 둔 생각일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칭했다. 이 영의 생각은 계속 영에 놓이고 영을 주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으로부터 자라나도록 허락한다.

결론적으로 생각의 새롭게 됨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로, 로마서 12장은 생각이 새롭게 되고 옛 사상을 벗어 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둘째로, 에베소서 4장은 생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영이 생각에 협력하고 생각과 하나 되어 ‘생각의 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셋째로, 로마서 8장은 생각이 영의 편에 서고 영에게 복종하고, 영에 속하고 영에 끊임없이 놓이고, 영을 관심하고 영의 움직임과 의식을 주의함으로 ‘영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생각이 이렇게 새롭게 되고 영의 협력을 얻고 영의 편에 설 때, 이 생각은 생명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자연스럽게 통과하고 자라도록 허락한다. 그러므로 생각은 생명이 자라면서 세 번째로 통과하는 장소이자 생명이 자라나기 위한 출로의 세 번째 부분이다.

D. 의지

생명이 자라나는 데 네 번째로 거치는 곳이 우리의 의지이다.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은 순수해야 하고, 양심은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감정은 사랑해야 하며, 생각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의지는 어떠한가? 성경에서 보면, 의지는 온순하며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지는 순종의 문제이다. 의지를 처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의지를 온순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의지는 주장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 결정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것은 다 의지의 기능이다. 우리가 “저는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의지가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는 원한다.” 또는 “나는 결정한다.”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의 의지가 원하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지는 우리 전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행동과 움직임을 결정한다. 배가 키에 의해 방향이 바뀌듯이 사람도 그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한다.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것이다. 의지가 반대

하고 찬성하지 않는 일들을 의지에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없다. 의지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우리 의지가 굴복되고 순종하는가에 매우 많은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의 의지가 강박하고 완고하고 거역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날 수 없게 된다. 만일 우리의 의지가 부드럽고 온순하고 기꺼이 생명의 움직임에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자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의지는 생명이 자라면서 네 번째로 통과하는 장소이자 생명이 자라나기 위한 출로의 네 번째 부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언급할 때마다 그것이 마음의 여러 부분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은 양심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어떤 것은 감정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어떤 것은 생각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어떤 것은 의지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할 때에는 그의 마음 전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사람의 마음에 거리낌과 책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양심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감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에는 생각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강박하고 완고하다고 말하는 것은 의지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가 말한 마음의 처리는 마음의 이 다섯 방면의 처리를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거리낌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분명하며 능숙하고, 온순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유용한 마음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속에서 뚜렷한 출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끝맺는 말

앞에서 생명이 있는 곳과 생명의 출구와 통로를 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출로를 갖도록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무 문제가 없도록 처리되어야 함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을 거처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출구로 삼기 때문이다. 이 여섯 기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생명은 방해를 받고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 안에서 성장을 추구하기란 정말 간단하지 않다. 영을 만지고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마음의 각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 생명 안에서 성장한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적고 또한 그들의 성장이 매우 느린 것이다.

때때로 어느 형제를 볼 때,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실 그는 모든 방면에서 매우 좋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괴상하기 때문에 그의 영적 장래가 매우 어둡다. 어떤 자매는 양심을 처리했고 생각에도 문제가 없지만 감정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별로 많지 않다. 또 어떤 형제는 의지가 강하여 모든 일에서 이미 자신의 견해를 붙잡고 교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빛 비춤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이 모든 것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적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바란다!

제 14 장 빛과 생명

이제 생명의 인식에 관한 마지막 큰 요점인 ‘빛과 생명’에 관하여 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체험에서, 빛은 특별히 생명과 연관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다 빛 비춤을 받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빛 비춤을 받은 만큼 생명을 얻게 된다. 오직 빛 비춤만이 생명을 산출하며 생명을 증가하게 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알려면 빛과 생명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I. 생명은 행위와 다른 것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가 우리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사람 또는 하나님—사람이 되게 하는 것임을 거듭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 다만 행위에 있어서 도덕적인 표준에 이르고 사람의 선을 살아 내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생활에서 생명의 표준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는 길은 도를 닦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위의 개선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전진하려면 반드시 생명과 행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과 행위는 참으로 다르다. 성경은 시작에서부터 두 나무인 생명 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언급하였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고, 선악의 나무는 선악의 행위를 가리킨다.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

무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두 그루의 나무인 데서 우리는 생명과 행위가 참으로 다른 두 종류의 것임을 볼 수 있다.

생명과 행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생명은 자연적인 성장인 반면, 행위는 사람의 일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 집 한 채와 나무 한 그루가 있다 하자. 집은 행위의 결과이자 사람의 일의 산물인 반면, 나무는 생명의 표현이자 자연적인 성장의 표현이다. 집의 창문은 사람이 만들어 그곳에 붙인 것이고 나무의 꽃과 잎은 생명이 자라서 그곳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집은 일종의 행위를 나타내 주고, 자란 나무는 일종의 생명을 나타내 준다. 이 양자의 차이는 매우 현저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행위의 차이도 이와 똑같다. 우리 자신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것은 다 행위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난 것만이 생명이다. 어떤 형제자매에게는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함이 있다. 얼핏 보면 생명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 낸 행위에 불과할 뿐 그들 속에서 자라난 생명이 아니다. 그들의 행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들의 생명은 별로 자라지 못한 것이다.

생명과 행위는 이처럼 다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유사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과 행위를 분별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그들의 냄새 또는 맛으로 분별할 수 있다. 행위의 모양은 생명과 매우 흡사하지만 그러나 행위는 분명히 생명의 냄새나 맛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여기에 겉모양이 흡사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하자. 하나는 생명이 있는 참 나무이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인조 나무이다. 생명이 있는 참 나무에 많은 열매가 열려 있고 생명이 없는 나무에도 사람들이 붙여 놓은 인조 열매가 있다. 두 그루 나무의 열매는 같은 모양과 같은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냄새를 맡아보면 즉시 그 차이를 느끼게 된다. 참된 열매에는 냄새가 있지만 인조 열매에는 냄새가 없다. 인조 열매는 다만 관상용일 뿐 먹을 수는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현도 이와 같다. 어떤 형제자매의 생활의 모습과 모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에서 나온 것 같지만 자세히 냄새를 맡아보면 생명의 냄새가 없다. 어떤 자매는 마담 귀용(Madam Guyon)의 기도와 교통을 매우 유사하

게 모방하지만 그 냄새는 다르다. 어떤 형제는 나사렛 예수의 겸손한 태도를 모방하지만 걸모양만 비슷할 뿐 예수의 향기는 없다. 이것들은 다 생명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며, 생명을 살아 낸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생명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냄새로 말미암아 분별해 낼 수 있다. 생명에서 나온 모든 것에는 반드시 생명의 맛과 냄새가 있는 반면, 행위에서는 다만 사람의 맛과 냄새만 있을 뿐이다.

둘째로, 우리는 환경의 변화의 시험을 통하여 생명과 행위를 분별할 수 있다. 생명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환경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다. 어떤 타격을 받아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행위는 타격이 올 때 변질되거나 소멸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알의 씨를 땅에 묻을 경우 그 씨는 자라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생명이 없는 돌을 땅에 묻는다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살아 나타낸 것이 생명인가 행위인가는 많은 경우 밖에서 구분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냄새로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에는 환경의 변화로 시험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환경에서 각종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과 재난을 허락하실 때 만일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런 환경들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고 심지어 더 많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의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나 파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역경으로도 억누를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뚫고 이기며 쇠하지 않고 영원히 번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소유한 것이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라면 역경과 재난을 거치고 파괴와 시련을 만날 때 곧 변질되거나 소멸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는 다 사람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재난과 파괴를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며,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원래의 모양대로 보존되지 못한다.

과거에 어느 자매는 어떤 일을 만나든 마담 귀용과 같이 염려하거나 조급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차근히 대처했다. 그녀는 마담 귀용과 외적으로 똑같이 행동하기를 배웠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맛과 냄새에서도 마담 귀용을 닮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다. 그러자 그녀가 배웠던 것은 다 사

라지고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 걱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가 이전에 보여 준 염려하지 않음이 다 사람의 노력에서 온 것임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시험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너무 빨리 단언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표현에 대하여도 너무 빨리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때 우리의 보는 눈과 느낌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시간에 의해 입증하신 것만이 정확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의 행위에 불과한 것은 시간을 거친 후에는 다 쓰러지거나 변질되고 소멸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들은 시간을 거친 후에도 계속 남아 있다. 시간의 시험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행위인가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나는 내가 경험한 몇 가지 일을 언급하여 생명과 행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싶다. 나는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신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경건한 생활을 살며 행동과 태도에서 주님을 경외한다고 들었다. 나는 그것을 듣고 그들을 매우 존경하였다. 그 후에 나는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것을 듣고 나는 더욱 감동되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나는 신학생들과 같이 경건한 생활을 살고 전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시간을 드려서 행하며 배웠다. 이렇게 내가 행하고 배운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적인 영향을 받고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나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완전히 행위의 모양이었다.

또 하나의 상반되는 예(例)가 있다. 그 당시 중국 사람은 새해를 지내는 풍습이 아주 성행했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이런 일들은 내 속에서 아무런 지위가 없었다. 그해 초하루 아침에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평소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고 주님의 임재도 충만했다. 내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새 옷을 입으라고 하셨다. 나는 옷을 받아서 입은 후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내 속

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같이 느껴졌다. 그때 나에게는 그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있어서 나는 즉시 그 옷을 벗어 버리고 이전의 옷으로 바꾸어 입었다. 그런 다음 다시 기도하러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다시 만졌으며 하나님께서 또 오신 것같이 느꼈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것은 밖의 권면이나 결심이나 행위가 아니며, 어떤 가르침이나 본을 따르는 것이나 모방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의식을 주어 내가 그 새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 준 것이다. 이 내적인 의식이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었던 것이다. 그날로부터 새해와 절기의 풍습이 내 몸에서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 이것은 앞의 예(例)에서 보여 준 외적인 존경심과 모방과 얼마나 다른가! 이것은 바로 생명의 표현이다!

1940년 상해(上海)에서 동역자들을 위한 훈련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석했다. 그때 어떤 형제가 나에게 “여기에 거하는 동역자 형제자매 중 생명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사람은 조금 가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아주 의미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경건하고 영적인 척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생명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만일 어떤 생활이 우리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거나 어떤 것을 사모하고 두려워한 결과라면 그런 생활은 다 거짓된 것이고 행위에 불과하다. 어느 날 환경이 변하면 그런 생활도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환경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 되며 생명의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밖의 환경이 내게 적합할 때에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생활한다. 환경은 변하더라도 나의 생활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생활은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생명과 행위의 차이를 알았다면,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어떤 것이 행위이고 모방이며 어떤 것이 생명에 속한 것인지 조목조목 점검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면 내적인 생명에 의해 살아 낸 부분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외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긴 행위와 모방과 순종과 외적 규율에 대한 적응임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사람의 노력에서 나온 행위를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노력에서 나온 행위에서 벗어나 생명을 살아 낼 수 있는가? 우리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가르침에서 나오거나 자기 자신의 모방이나 훈련에서 나온 것이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빛 비춤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행위는 빛 비춤이 필요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생명은 빛 비춤에 의해서만 산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에서 벗어나 생명을 살아 내려면 반드시 빛 비춤을 얻어야 한다. 빛 비춤이 없다면 기껏해야 선한 행위를 이룰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 비춤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아 낼 수 있다.

II. 생명은 빛에서 나온 것임

성경 전체는 생명이 빛 비춤에서 온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빛이 올 때 생명이 뒤따라 오고,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으며, 빛이 있는 만큼 생명이 있게 된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일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땅은 완전히 황폐했고 어두웠다. 또한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에는 사망이 가득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단계는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다. 빛이 올 때 그것은 흑암에 속한 사망을 제해 버리고 생명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생명은 빛을 따라오는 것이고 빛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 셋째 날에 식물의 생명이 산출되었다. 식물의 생명을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더 높은 생명을 위해서는 더 강한 빛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넷째 날에 하나님은 또 해와 달과 별들로 빛을 발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더 높은 생명들이 산출되게 되었는데 이제는 새와 물고기와 짐승 등 각종 동물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닮은 사람의 생명도 있게 되었다. 마침내 일곱째 날에는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나오게 되셨다. 가장 높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다. 이 다양한 생명이 출현하는 과정은 항상 생명이 빛을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빛이 있을 때 생

명이 있고, 빛이 강해질 때 생명은 높아진다.

첫째 날의 빛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낮고 감각 없는 식물의 생명을 이끌어 왔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적으로 받은 빛 비춤(고후 4:6)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지만 다만 많은 본질과 외적인 형태가 없는 초기 단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었다.

넷째 날의 빛은 첫째 날의 빛보다 더욱 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러므로 더 높은 동물의 생명을 가져왔다. 빛이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었기 때문에 생명도 더욱 구체화되고 높아졌다. 빛이 진보할 때 생명도 뒤따라 진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더 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빛 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속에서 더욱 자라고 더욱 분명한 형태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것'이다.

일곱째 날의 빛은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그 빛은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가장 높은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다. 빛이 최고조에 이를 때 생명도 고봉(高峯)에 이른다. 빛이 완전할 때 생명도 충만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받은 빛 비춤이 최고조에 이를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풍성하고 성숙되어 하나님과 완전히 같아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상징한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성령은 생명이 빛을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 준다. 성령은 빛이 첫째 날과 넷째 날과 일곱째 날의 세 단계로 나누어지고 따라서 생명도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빛은 매 단계의 시작이다. 한 단계의 빛이 그 단계의 생명을 가져오며, 그 단계의 빛의 정도가 빛이 가져오는 생명의 수준을 결정한다.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넷째 날의 빛 가운데서 창조된 사람이 일곱째 날의 빛 가운데서 나타난 생명의 나무를 접촉함으로써, 그 나무가 가리키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아직 이 생명을 얻기 전에 사탄이 와서 사람을 유혹했다. 사탄은 사람이 선악의 나무가 가리키는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여 사람을 부패시켰다. 사람이 이렇게 부패되므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사람이 생명나무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봉하셨다(창

3:24). 이와 같이 일곱째 날의 빛이 가져온 생명은 사람에게 닫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자신께서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생명이 되셨다. 요한은 그분에 관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고 말했다. 그분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곱째 날의 생명을 동반하는 일곱째 날의 빛이 사람들 가운데 다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이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 안으로 이 생명을 영접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르러서는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다.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이 있으므로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고 다시는 밤이 없게 된다. 동시에 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도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고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 성 안은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다. 한 면에서는 빛이 흑암을 쫓아냈고 또 한 면에서는 생명이 사망을 삼켜 버렸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일곱째 날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과 연합될 때의 영광스런 장면이며, 사람이 빛 안에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접한 궁극적인 결과이다.

이것은 모두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생명과 빛을 함께 언급하는 하나의 노선이 있음을 보여 준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대원칙이다. 시편 36편 9절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씀도 생명과 빛의 관계를 분명히 말해 준다. 생명은 항상 빛에 뒤따르고 오직 빛만이 생명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안의 생명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한다면 그 안의 빛 비춤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한다. 많은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열심을 조금 더 내면 그의 생명이 더 자랐고 또는 그가 조금 더 경건해지면 그의 생명이 진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관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람의 열심에 있지 않고 사람의 경건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 곳과 생명의 근원은 유일하다. 생명은 빛에 달려 있으며 빛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생명 안에서 성장했는지를 판정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이 내적으로 받은

빛 비춤이 어떠한지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도우려면 반드시 그들이 빛 비춤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빛 비춤을 얻을 수 있다면 생명의 자람도 갖게 된다. 말씀 전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만일 우리의 말이 일종의 권면과 가르침에 불과하다면 행위를 개선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생명의 결과를 산출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의 일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 오래 남아 있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우리 자신이 빛 비춤을 받고 그 빛 안에 산다면 우리가 전한 말씀은 빛이 있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 드러낼 것이다(이것이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라고 말한 것의 의미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은 후에 교리는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의 깊은 속에 살아 있는 어떤 것이 남아 있어 계속 그들을 감동시키고 만지고 영향을 주어 그의 생활을 변화시킨다. 이런 변화는 사람의 노력을 통해 외적으로 개선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빛 비춤을 받음으로 생명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내면에서 그 빛을 접촉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심지어 마음으로 믿겠다고 결정했더라도 그는 내면에서 생명을 영접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에 빛이 충만하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복음의 빛이 그들 안으로 비춰진다. 사람들은 계속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집에 돌아온 후에 그들 속에 어떤 것이 계속 “믿으라, 믿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빛 비춤의 결과로서 사람이 내적으로 생명을 얻어 거듭나고 구원받도록 한다. 이런 예들은 생명이 빛에서 온 것임을 증명한다. 빛이 있을 때 생명이 산출될 수 있고, 빛이 없을 때에는 생명이 산출될 수 없다. 생명은 참으로 빛에서 나오는 것이다.

Ⅲ.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

생명이 빛에 달려 있다면 빛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성경에서 볼 때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이것 또한 성경의 대원칙이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하고, 또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므로 … 비취어”라고 말한다. 이 말씀들은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그때에 빛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리킨다.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다만 죽은 문자에 불과할 뿐 비추는 능력이 없으며 아직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열어 주시어 우리를 소생시킬 때 이 말씀은 비로소 비추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빛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을 철저히 읽고 심지어 그것을 외울지라도 우리가 얻은 것은 다만 문자의 교리일 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얻을 수도 없다. 오직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주님은 말씀과 영과 생명,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하셨다. 생명과 영이 다 우리 안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말’도 우리 밖에 있는 성경의 문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밖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식에 불과할 뿐 빛이 아니다.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 말씀만이 하나님의 산 말씀이며 빛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과 교통하면서 계속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영을 열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인다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산 말씀이 되어 생명의 빛을 가져올 것이다.

빛 비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사야 66장 2절은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라고 말하고 5절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빛을 거절할 때면 빛은 즉시 사라진다. 빛을 잃을 때 생명도 없어지고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지며 모든 영적인 풍성과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참으로 크나큰 손실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두려워하고 떨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거역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상관하지 않고 또 다시 말씀하실 때에도 불순종하고 세 번째로 말씀하실 때에도 그냥 지나친다면, 결국은 당신 속에 빛도 없고 영적인 창(窓)이 조금도 없으며 생명의 입구도 전혀 없을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한다면 당신의 체험은 순종하지 않을 때와 전혀 다를 것이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이 있게 된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더 많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창이 있게 된다. 이렇게 계속 순종한다면 당신은 결국 온몸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계 4:8)과 같을 것이며 너무나 투명하여 빛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빛 안에 있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IV. 빛은 내적 느낌임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을 가리키므로, 우리가 얻은 빛은 외적이고 객관적인 빛이 아니라 내적이고 주관적인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하나님의 생명이 주 예수 안에 있고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의 빛’(요 8:12)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사실상 밖에서 우리를 비추는 객관적인 빛이 아니라 속에서 우리를 비추는 주관적인 빛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은 우리가 계시의 영을 얻을 때 마음눈이 밝아진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내적인 빛 비춤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계시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이므로, 이 계시가 가져온 빛도 밖의 객관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 속의 주관적인 빛이다.

빛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빛이 비칠 때 반드시 우리 속에 어떤 의식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내적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앞에서 말한 예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나는 새해에 새 옷을 입었을 때 속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그 느낌이 곧 내적 비춤이다. 그러므로 내적 빛은 내적 느낌이고 내적 느낌은 곧 내적 빛이다. 십여 년 전에는 우리가 느낌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분명하다. 우리는 빛 비춤을 말할 때마다 느낌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속의 모든 느낌은 우리가 얻은 빛 비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비춤을 많이 받는지 거의 받지 않는지를 알려면 우리 속에 의식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아야 한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둠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비추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빛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빛이 그 속을 비추도록 허락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의식이 충만한 사람은 빛이 충만한 사람이며 투명한 사람이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주님 앞에서의 상태가 이러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접할 때 그들이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다고 느낀다. 나는,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투명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한 형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당신은 그가 투명하지 않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그에게 약간의 빛은 있지만 그가 투명하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말할 때 당신은 그가 완전히 투명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가 그렇게 투명한 것은 그의 속에 내적 느낌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투명한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느낌이 충만하며 투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 비추시고 의식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느낌을 순종하지 않는

다면 우리 속은 투명하지 않을 것이며 느낌도 둔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계속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적인 의식은 갈수록 둔해지고 희미해져서 결국은 완전히 어두워져 조금의 느낌도 없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의식을 끊임없이 순종한다면 성령은 갈수록 우리 안에서 입지를 더 많이 얻으시고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신다. 이뿐 아니라 내적인 빛 비춤도 갈수록 더 밝아지고 우리 속의 의식도 더욱더 풍성하고 예민해진다.

V. 빛 비춤은 하나님의 공활하심에 달려 있음

우리는 어떻게 빛 비춤을 얻을 수 있는가? 빛 비춤은 도대체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빛 비춤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공활하심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공활히 여길 자를 공활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롬 9:15). 하나님은 계시를 주실 자에게 계시를 주시고 비춤을 주실 자에게 비춤을 주신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므로 빛을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자가 없고 빛을 통제할 수 있는 자도 없다. 빛이 임할 때에는 당신이 찾지 않아도 임하고, 빛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당신이 찾지도 임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해가 뜨는 것과 같다. 해는 뜰 때 뜬다. 당신이 해가 뜨기 원하지 않아도 해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추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에게는 빛을 찾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도 하늘의 빛은 오히려 그에게 임하여 그를 쓰러지게 했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었다(행 9:3-4).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공활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은 사람의 손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의 통제 아래 있으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활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춤을 받으려면 다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양망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지만 빛 비춤을 받는 것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어떤 형제가 성경을 잘 읽으므로 우리도 성경을 잘 읽

을 수 있고, 그가 성경에서 빛을 받기 때문에 나도 빛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빛을 얻기 어려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자연의 빛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전등과 등불과 촛불을 켜서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서 빛 비춤을 받는 것은 그러한 식으로 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빛 비추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비추지 않으신다면 결코 스스로 빛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빛을 찾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에 관하여 이사야 50장 10절과 11절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고 말했다. 이 몇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빛 비추는 문제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언급한 곳이다. 이 구절들은 한 면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지시하는데, 그것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가 어두움에 빠져 빛을 잃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뢰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비추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요 빛의 근원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빛 안에서만이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면에서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빛이 없을 때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 햇불을 켜거나 스스로 빛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든 빛으로 자신을 둘러 비추면, 일시적으로는 자신이 켜 햇불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슬픔 중에 눕게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빛을 빌리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빛을 가져다가 우리 자신의 빛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교통 집회에서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처리를 받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간증했다. 그리고 다른 형제는 그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되어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날부터 십자가의 처리를 받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스스로 빛을 찾거나 빛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빛을 빌려

온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빛을 자신의 것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빛을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빌려온 빛은 쓸모없으며 참된 빛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흑암을 만났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조용히 기다리며 그분이 다시 공황을 베푸시기를 구해야 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시고 공황을 베푸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이상이 되며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빛을 보게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 우리는 즉시 어둠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헛수고이다. 이 말은 당신이 방자히 행하면 빛을 보지 못하고 조금 경건하면 빛이 온다거나, 당신이 조금 게으르면 빛을 보지 못하고 조금 부지런하면 빛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빛 비춤은 우리의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등불과 횃불을 켜서 스스로 빛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으며 해가 뜨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횃불을 켜서 빛을 만든다. 하나님은 이렇게 횃불을 켜서 자신을 밝게 하는 사람의 결말은 슬픔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공황을 앙망하기 바란다.

VI. 빛 비춤을 얻는 길

빛 비춤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공황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피동적으로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우리 편에도 책임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 말한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공황히 여기셨고 이미 빛을 비추셨음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

께서 곧 우리의 빛이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 곧 빛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빛을 구하고 찾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빛 비춤을 받고 빛이 비치도록 허락하느냐에 있다. 해는 이미 떴으므로 우리는 해를 또 찾을 필요 없이 다만 해의 비춤을 받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날이 밝았는데도 가서 해를 찾는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고 말한다. 당신은 다만 깨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빛 비춤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빛 비춤은 구하거나 가서 찾는 문제가 아니라 얻는 문제요 받는 문제이다. 우리가 저야 할 책임은 빛을 얻고 빛 비춤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수건을 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 아래의 몇 가지 요점을 포함한다.

첫째로, 반드시 빛 비춤을 원해야 한다. 빛 비춤은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가 얻고 받는 것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얻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것이 빛 비춤을 얻는 첫째 조건이다. 해가 이미 떴으므로 찾을 필요가 없고 구할 필요도 없다. 다만 비춤을 얻고 받기만 하면 된다. 만일 당신이 비춤을 얻으려 하지 않고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 가려 놓는다면 날마다 해가 떠도 당신을 비출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도 이와 같이 이미 우리 속에 비추어졌다. 오늘은 우리가 빛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빛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빛 비춤을 받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비춤을 원하고 받을 때 비춤을 얻게 된다. 우리가 빛을 원치 않고 받지 않을 때에는 빛 비춤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빛 비춤을 원하는 사람은 참으로 너무도 적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므로 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수건이 되어 버렸다. 만일 우리가 이 수건을 제해 버리지 않고 빛 비춤을 거절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빛 비춤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빛 비춤을 원한다면 반드시 빛이 임하게 된다. 빛 비춤이 있을 때 우리는 내적으로 무언가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내적 느낌이다. 우리 깊은 속에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은 빛 비춤이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 빛 비춤의 의

식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비춤의 의식에 순종하여 어떤 것을 처리한다면, 우리에게서 수건이 제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빛 비춤을 원하며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빛 비춤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이 비춤의 느낌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서 수건을 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빛 비춤을 원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 비춤을 얻지 못하게 된다.

둘째로, 주님을 향해 자신을 열어야 한다. 주님은 빛이시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께 향할 때 반드시 빛이 있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그분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향할 때에는 반드시 빛이 없게 된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은 “언제든지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원문 참조)고 말한다.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 수건이 있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게 되며 빛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비춤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을 주님께 열고서 자신의 깊은 속을 해방하고, 자신을 조금도 보류하거나 남겨 두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아주 쉽게 빛을 얻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열어 놓기가 쉽지 않은 데 있다. 우리는 아직도 항상 자신을 감추고 보류하며 주님께 열려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감히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때때로 어린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부모님 몰래 어떤 잘못을 범한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불러도 입으로 대답만 할 뿐 부모님께 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 많은 사람들의 주님 앞에서의 상태도 이와 같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며 보류한다.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문제를 만지시면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을 처리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빛 비춤을 받기를 두려워하고 감히 주님께 열어 놓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돌돌 감긴 종이같이 결코 펴지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쓰시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지만, 그들이 듣고 읽은 메시지와 성경 말씀은 다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근거나 비평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그들은 빛을 조금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에 밝은 방에 있는 사람은 밖의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지만,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은 밖의 것을 잘 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주님께 닫혀 있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평하며 다른 사람의 상태는 분명히 알지만 자신의 상태는 조금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흑암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열지 않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들 자신은 빛 비춤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빛을 구하라고 설득할 수 있다. 그들은 공급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장비시켜 주며 은사를 주실 것을 자주 구하지만, 주님의 빛 비춤은 두려워하고 심지어 거절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말씀과 그들이 행한 일들은 사람들에게 살아 있는 빛 비춤을 줄 수 없는 죽은 권면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님께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마치 깊은 굴속에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강한 빛도 그들 속을 비출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은 내적으로 공허하고 황폐하며 빛이 없이 어두움만 있게 된다. 그러나 주님께 열려 있는 사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열고 자신의 안팎의 모든 것을 어떤 보류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도록 한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빛 비춤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메시지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비춤을 받으면 즉시 그것을 겸손히 받으며, 한 면에서는 슬퍼하며 또 한 면에서는 주님을 경배한다. 슬퍼하는 것은 자신의 황폐함과 실패 때문이고, 경배함은 하나님의 공훈과 빛 비춤 때문이다. 그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부족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비참한 사람이며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다고 느낄 뿐이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공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더 깊은 빛 비춤을 받기 원한다. 이럴 때 하나님의 빛은 그 안에서 계속 그를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도 그 안에서 계속 자라므로, 그는 투

명하고 의식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

셋째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자신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안목과 관점과 느낌과 의견과 말 등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을 멈추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참으로 자신을 이렇게 멈추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도 빛 비춤을 막는 또 하나의 심각한 수건이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자신의 느낌과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성경의 뜻에 추가시킨다. 성경은 분명히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지만 그가 읽을 때는 “베드로 시몬”이 된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읽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에는 그의 의견이 보이지 않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의견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구절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의견과 느낌이 전혀 가치 없는 나무와 풀과 짚인 줄을 알지 못한다. 어떤 형제들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하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면 그들의 말은 중점과 핵심 없이 공중을 날아다닌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와 같아서 계속 반복되는 중점과 요점들은 모두 놓치고, 도리어 단편적이고 중요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듣고 잊어버릴 말들만 매우 분명히 기억한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멈출 수 없는 많은 생각과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제자매는 온종일 밖으로는 매우 분주하고 속으로는 여러 환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온 존재의 어느 부분도 멈출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빛을 조금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있다.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은 가장 분주하고 멈출 수 없는 사람인 마르다에 관해 말해 준다. 누가복음 10장은 그녀가 외적으로 얼마나 분주했는지를 기록했고 요한복음 11장은 그녀가 내적으로 얼마나 활동적이었는지를 기록했다. 우리는 마르다의 온 존재가 분주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많은 의견과 느낌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말을 하였다. 그녀는 한 순간도 멈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한 마디도 그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마르다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입을 여시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어 주님을 나무라

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며 주님께 “마지막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기묘하게 해석하여 부활의 시간을 몇 천 년 후로 연기시켰다. 주님께서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자 그녀는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답변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말이 많았다. 마르다는 그의 말을 마치고 즉시 집으로 달려가 은밀히 그녀의 동생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완전히 꾸며 낸 것이며, 자신이 주님을 위해 제안한 의견이었다. 말이 많고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은 많은 제안을 하고 많은 의견을 내놓는다. 이런 사람은 조금도 멈추지 못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수건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고 빛 비춤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사람이 멈추기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빛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 중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죄와 세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견과 느낌과 주장과 말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죄와 세상은 헤어진 옷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 버리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의견이나 느낌이나 주장은 쉽게 벗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장 심각한 수건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빛 비춤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비춤을 얻으려면 반드시 잠잠하고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 밖의 활동을 멈추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의견과 느낌과 주장과 관점과 말들도 다 멈추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깨달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뜻과 설명을 성경에 추가하지 않고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자신이 읽은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빛이 올 때 성경에 있는 위대한 것들이 그 안에서 빛을 발하여 그에게 계시를 준다. 이것은 그가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전 인격은 안팎에서 모두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린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이 해방될 때 메시지의 중점을 붙잡고 내면에서 오는 주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빛 비춤을 받는 세 번째 조건은 우리 자신을 멈추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빛과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빛 비춤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우리 속에 빛 비춤과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박도 하지 말고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언제든지 우리가 빛과 논쟁할 때 빛은 즉시 물러난다.

성령은 사람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일을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수행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의 저항을 받자마자 즉시 물러나신다. 성령께 저항해서 그분을 물러나시게 하는 것은 아주 쉽지만 그분을 다시 돌아오시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하심을 얻을지라도 성령께서 즉시 오시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아가서에서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연인에게 문을 두드릴 때 그녀는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후에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다시 문을 열어 갔지만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감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징계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실 뿐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일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는 사람은 항상 남을 돕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에 대해 비평하고 고의적으로 반대하면, 그는 당신과 다투지 않고 이유나 시비(是非)를 따지지 않는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길 밖에 없다. 그는 당신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더 이상 당신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물러난다. 그러므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가 겪는 손실은 막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있는 사람에게 매우 조심해야 한다! 당신은 길 가는 사람을 마음대로 비평할 수는 있

겠지만 성령의 사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음대로 비평하거나 고의로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당신의 비평이 틀렸고 일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의 비평이 옳고 반대하는 데에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이 그를 비평하고 반대할 때 당신에 대한 그의 사역은 끝날 것이다. 그가 수천만 명을 도울 수 있어도 당신은 도울 수 없다. 그가 당신을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심지어 그 사람이 당신을 돕기 원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한다. 이는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우리 밖에서 말하는 사역자들을 비평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은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적인 성령의 비추심과 논쟁할 때 최소한 며칠간 흑암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어두운 시간은 바로 당신에 대한 징벌이요 훈계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도 여전히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 죄를 범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정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여러 번 그분께 죄를 범한다면 당신은 결국 아주 비참하게 끝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속 논쟁했고 그분께 죄를 범했다. 결국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행정의 손이 움직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애통해하고 회개했어도 그 상황을 회복할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비춤을 얻든지 사역자들로부터 말씀의 비춤을 얻든지 마땅히 논쟁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가 참으로 약하여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만 “하나님, 이것은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이지만 저는 약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여전히 그분의 긍휼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빛 비춤이 있을 때 조금도 논쟁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시도록 허락해

드릴 수 있다.

다섯째, 우리는 지속적으로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빛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것은 단 한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비춤 아래 계속 있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빛 비춤을 받을 때 그 순간에만 순종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원칙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가 빛 비춤을 받는 길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다섯 가지를 주의 깊게 관심한다면 우리는 자주 빛 비춤을 얻고 빛 안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를 주시며 우리가 보아야 할 빛을 보게 하시고 빛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의 성장을 갖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

주님의 두 중에 관하여

저희는 워치만 니와 그의 동역자 위트니스 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전한 말씀이 80년 이상 전세계, 육대주의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 왔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저서는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저희에게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 이 두 형제님의 삶과 봉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워치만 니

워치만 니는 17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전세계적으로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그의 저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일하게 교회 생활의 실행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강조한 그의 사역의 또 다른 비중 있는 방면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모두에 관하여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워치만 니는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계시를 열어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서 주님을 위해 20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주 예수의 충성스런 증인으로서 1972년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위트니스 리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니와 가장 가까웠고 깊은 신뢰를 받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1925년, 19세 때에 역동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했고 자신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위트니스 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처음 7년 동안 그는 플리머스 형제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그는 워치만 니를 만났고, 그 이후로 1949년까지 17년 동안 중국에서 니 형제님의 동역자로 수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는 일본군에 의해 투옥되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종의 사역과 일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부흥을 가져와 중국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49년 워치만 니는, 중국에서 주님을 섬기던 그의 모든 동역자들을 함께 모은 자리에서 위트니스 리에게 중국 대륙 밖의 대만 섬에서 사역을 계속하라는 위임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백 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1960년대 초기에 위트니스 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위트니스 리는 35년 이상 주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1974년부터 1997년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수년 동안의 수고의 열매로서 300권 이상의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위트니스 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를 열어 보여 주었고, 이것을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직 이 건축이 완성될 때 주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그분의 마음이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님의 사역의 주된 특징은 그들이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

라 진리를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위치만 나와 위트니스 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1. 성경은 완전하고 신성한 계시로서 무오(無誤)하며,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신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다.

2.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영—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함께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3.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육체가 되셔서 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이 되셨다.

4.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5.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

6. 예수 그리스도는 삼 일 동안 매장되신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사십 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을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셨다.

7.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지체들을 한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 오늘날 이 영은 이 땅에서 운행하시며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신다.

8.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을 휴거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소유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9. 이기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성한 축복에 영원토록 참여할 것이다.